

국립국어원 2016-03-1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647-01

함께 가꾸는 우리말 우리 꿈



국립국어원 2016-03-10

함께 가꾸는 우리말 우리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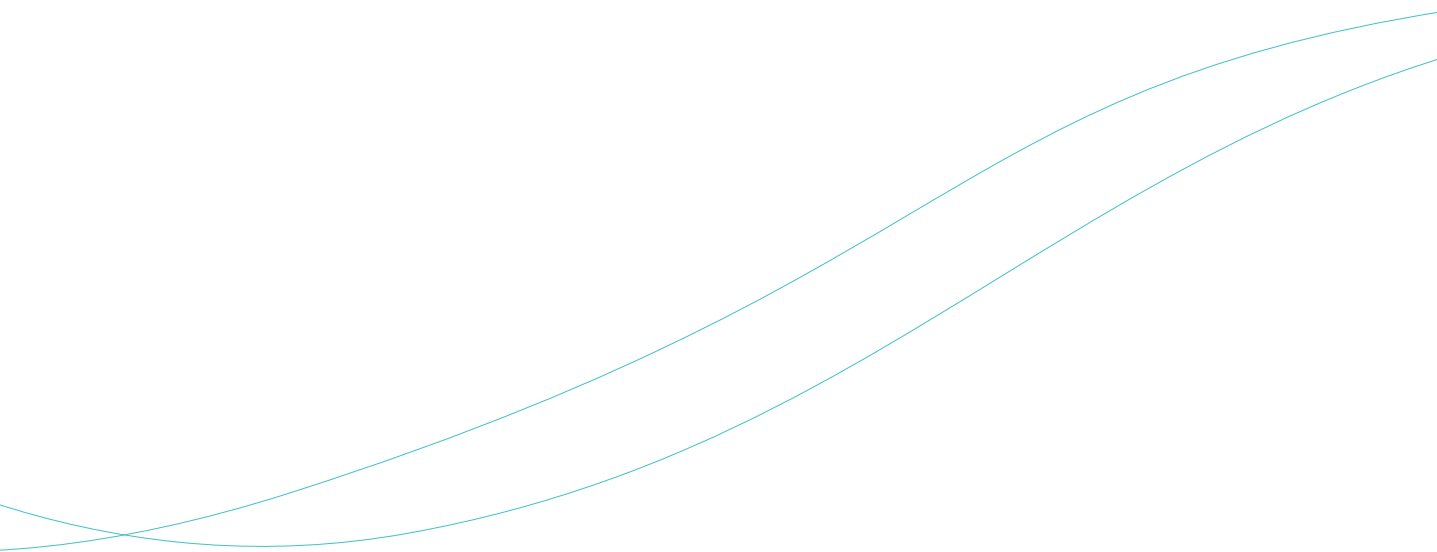
국립국어원 2016-03-10

발 간 등 록 번 호

11-1371028-000647-01

함께 가꾸는 우리말 우리 꿈





연구책임자 | 민병곤(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민형(서일중학교 교사)

연구보조원 | 신다솔(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지원(서울대학교 석사과정)
이중원(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원)

담당연구원 | 강경림(국립국어원 연구원)

개발진 | 권은선(이우학교 강사), 김다연(남양중학교 교사)
박성희(국사봉중학교 교사), 박주형(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송치순(전동중학교 교사), 조진수(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최소영(정신여자고등학교 교사)

검토/자문 | 박재현(상명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유미(중앙대학교 교양학부대학 교수)
이주영(광남중학교 교사), 조서희(한산중학교 교사), 이 슐(성일중학교 교사)
신은재(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중학교 교사), 조은영(서울대학교 사범대학교 부설중학교 교사)

발행일 | 2016년 12월 31일

발행인 | 송철의

발행처 | 국립국어원
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775
누리집 www.korean.go.kr

※ 이 책자는 (주)에스이랩이 수행한 ‘국립국어원 우리말 꿈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의 연구 영역의 결과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차례

1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004

2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010

1.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011

2. 공감하고 배려해요

040

3. 매체로 소통해요

073

3장 진로 체험 프로그램

104

1. 우리말글의 미래 열기

105

2. 우리말글 갈고 닦기

139

4장 우리말 꿈터 전시 연계 프로그램

166

1. 알고 쓰는 우리말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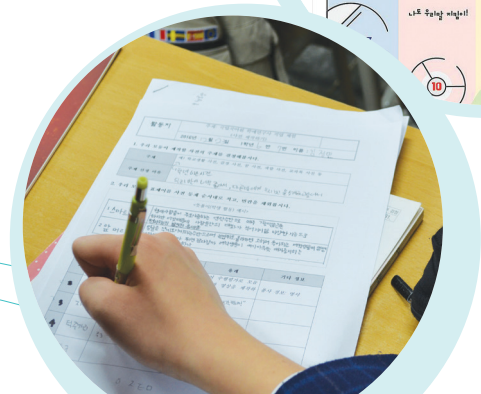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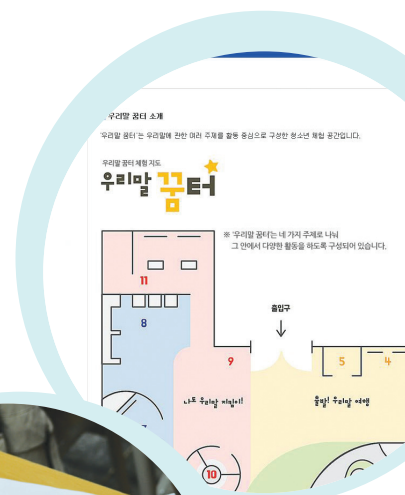
167

2. 아껴 쓰는 우리말글

193

참고 문헌

222



1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1. 프로그램의 특징

최근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청소년 학습자에게 실효성 있는 언어문화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우리말 체험 공간인 ‘우리말 꿈터’를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언어문화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마련된 교육 자료입니다. 청소년 언어문화를 일시적인 일탈 또는 교정의 대상으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주체적인 언어문화 형성 과정에 주목합니다. 또한 청소년 언어문화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의 요인을 입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자료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청소년의 실제 언어 사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변화시키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체험 및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개발로 청소년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셋째,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우리말글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국립국어원과 관련된 직무와 직업 세계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꿈터’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이 우리말 꿈터에서 체험한 내용을 심화하여 교수·학습할 수 있는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직무와 직업 세계를 탐색하여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구조 및 활용 방법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 청소년 언어문화를 공적 의사소통, 사적 의사소통, 매체 의사소통 범주로 나누고, 각 범주에서 드러나는 언어문화의 문제점을 청소년 스스로 탐색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
- ② 진로 체험 프로그램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사전 편찬, 표준어 제정’,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등으로 소개하고 학생들이 직접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
- ③ 우리말 꿈터 전시 연계 프로그램: 우리말 꿈터 전시 시설과 연계되어, 우리말 꿈터 전시 주제를 심화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차시별 시간은 중학교 1교시 수업(45분)을 기준으로 개발되었습니다. 또한 각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세부 단위들은 모두 2차시(90분) 연계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단위는 모두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보장될 경우, 연계하여 수업할 수도 있습니다.

매 차시 수업은 도입과 전개, 마무리로 구성하였으며, 각 단계마다 활동 방법과 유의 사항, 그리고 교사의 예시 발화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차시 마지막에 실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지를 수록하여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지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 → 자료 찾기 → 연구 결과 → 연구 보고서 게시판).

3. 교육과정과의 연계

3.1.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단원	교육과정	연계 지도 방법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2009 중학교 1-3학년군 [듣기·말하기] (1) 듣기와 말하기의 소통 과정을 이해하고 효율적인 듣기와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2) 공식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말을 정리하며 듣고, 자신의 의견을 조리 있게 말한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공식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듣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다각도로 성찰해 보고, 그것을 내면화하는 연습을 해 본다. 또한, 기능적인 측면보다는,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사소통 하려는 태도 측면을 강조하여 학생들이 공적인 상황에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듣기·말하기] [9국01-06]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며 말한다. [9국01-07]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부딪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공감하고 배려해요	2009 초등학교 5-6학년군 [듣기·말하기] (8)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이나 결과를 예상하여 신중하게 말한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의 사적 의사소통 문화의 문제와 방식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을 한다. 특히 다양한 대화 상황을 제공하여 의사소통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느끼고 해결할 의지를 갖도록 한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듣기·말하기] (7) 대화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상대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듣고 말한다.	
매체로 소통해요	2009 중학교 1-3학년 [듣기·말하기] (12) 폭력적인 언어 사용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람직한 언어 표현으로 순화하여 말한다. (13) 전통적 듣기·말하기 문화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듣기·말하기 문화를 성찰한다.	이 단원은 학생들이 인터넷 등 매체 의사소통 문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학생들이 인터넷 기반의 매체 언어 활동이 전통적 언어 활동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갖는지, 새로운 언어 활동의 맥락 속에서 적절한 언어 활동은 어떠한지 그 형식과 내용적 측면을 살필 수 있게 한다. 또한 다양한 매체 사용의 맥락에서 제시되는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매체 언어 생활을 위하여 사용 주체가 갖추어야 할 태도와 인식을 갖출 수 있게 한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읽기] (2) 글이나 매체에 제시된 다양한 자료의 효과와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쓰기] (9)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쓴다. (10) 쓰기 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글을 쓴다.	

3.2. 진로 체험 프로그램

단원	교육과정	연계 지도 방법
우리말의 미래 열기	2009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6) 품사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단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전에서는 뜻풀이와 함께 품사 정보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품사' 관련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사전에 등재하고자 하는 단어의 품사를 구분하고 품사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용례를 제시할 수 있게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9국04-04] 품사의 종류를 알고 그 특성을 이해한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품사 정보와 아울러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것과 관련하여 배운 내용을 사전 집필 과정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대중이 자주 틀리는 단어가 표준 발음 또는 표기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고민하게 한다.
우리말 갈고닦고 사랑하기	2009 초등학교 5-6학년군 [문법] (3)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국어 어휘의 특징을 이해한다.	우리말 다듬기 활동을 위해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와 같은 어종에 대한 지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학생들이 우리말 다듬기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어종에 따른 어휘 체계 관련 내용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8) 어휘의 유형과 의미 관계를 이해하고 활용한다.	공공언어 개선 시 단어 차원에서 다듬은 말 사용이 권장되므로 어종에 대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공공언어 개선에서 어문 규범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이 어문 규범 관련 내용을 배울 수 있게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10)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담화 상황에 적합한 국어 생활을 한다.	공공언어는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이므로, 공공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언어가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담화의 개념과 특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언어의 사용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9국04-07]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	

3.3. 우리말 꿈터 전시 연계 프로그램

단원	교육과정	연계 지도 방법
알고 쓰는 우리말글	2009 중학교 1-3학년군 [읽기] (8) 글의 표현 방식을 파악하고 표현의 효과를 평가한다.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속담뿐 아니라, 중학생 수준에서 알아야 할 관용 표현의 예와 그 표현 효과를 학습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학생들이 언어생활에서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할 줄 아는 수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쓰기] [9국03-07] 생각이나 느낌, 경험을 드러내는 다양한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쓴다.	글에 쓰인 관용 표현을 읽고 표현 효과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추어져야 글쓰기에서도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학생들이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하여 글을 쓸 수 있게 한다.
	2009 중학교 1-3학년군 [듣기·말하기] (10) 화법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집단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안다.	이 단원에서는 이전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학습했던 ‘방언의 가치’를 상기하고, 각 방언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게 한다. 또한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방언뿐 아니라 사회 방언의 영역까지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사회 방언의 개념을 학습하고 사회 방언이 사용되는 언어생활의 예를 간접 체험하게끔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지역 방언 또는 사회 방언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한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9국04-05] 어휘의 체계와 양상을 탐구하고 활용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어휘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단원에서는 표준어와 지역 방언, 다양한 사회 방언이 공존하는 언어 현실의 일면을 제시하였다.
아껴 쓰는 우리말글	2009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3)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내용을 이해한다.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은 정규 교과 수업을 통해 익힌 어문 규범의 기본 원리와 세부 조항을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내면화할 수 있다.
	2015 중학교 1-3학년군 [문법] [9국04-03]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한다.	이 단원을 통해 학생들은 정규 교과 수업을 통해 익힌 어문 규범에 맞는 단어 표기 방법을 다양한 실생활의 사례에 적용함으로써 내면화할 수 있다.

2장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1.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2. 공감하고 배려해요
3. 매체로 소통해요

1.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 이 단원은

수업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공적 의사소통 문화를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구성하였다. 수업에서 공적인 의사소통은 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교사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소통하고, 학생들은 모둠별로 모여 과제에 대해 서로 소통한다. 또 발표나 토의, 토론 상황에서 학생들은 의견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공감한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발표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적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언어 문화와 태도에 대해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자신의 언어문화와 태도를 이해하며 학생 스스로 공적 상황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필요성을 깨닫고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학습 목표

가.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는다.

나. 화자는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능동적으로 소통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다. 청자는 화자의 말하기를 경청하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를 지닌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 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파악한다.· 발표를 들을 때의 태도를 성찰한다.· 발표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른 친구의 발표를 보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찾아보기· 발표를 수행하거나 들을 때 친구 및 자신의 태도를 성찰하기· 발표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준비한다.· 바른 태도로 발표를 경청한다.· 화자 또는 청자로서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발표하기· 발표를 경청하며 평가하기· 공적인 상황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화자와 청자의 태도를 정리하고 내면화하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발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겪는 어려움을 탐색하고, 그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여 실천을 통해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발표를 할 때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려움에는 무엇이 있는지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실제로 보면서 생각해보고, 학습자들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직접 준비하여, 발표할 때 부딪힐 수 있는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발표해 보게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발표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중 질문, 토의 혹은 토론, 소집단 활동 시의 대화 등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적인 상황에서의 말하기를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진다.

■ 학습 목표

- 가.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파악한다.
- 나. 발표를 들을 때의 태도에 대해 성찰한다.
- 다. 발표할 때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 준비물

학습지, 개인용 컴퓨터 혹은 검색을 위한 휴대 전화, 필기도구

도입

학생들의 입장에서 공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준비한 동영상을 통해 대표적인 공적 의사소통 상황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해 보게 한다. 그리고 ‘발표’를 중심으로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임을 안내한다.

■ 활동 방법

- 공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적 의사소통의 예를 소개한다.
- 동영상을 보여준 뒤, 수업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 공적인 상황에서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것임을 안내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공적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낯설 수 있으므로 ‘공적’의 의미를 ‘사적’ 혹은 ‘개인적’이라는 개념과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 동영상 시청 후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게 했을지,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질문하라고 하실 때나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지 등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수업 자체가 공적 의사소통 상황이나, 이 중에서 ‘발표’라는 상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공적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것임을 강조한다.

수업 돋보기

이 도입 부분에서 시청할 만한 동영상 자료로 EBS 다큐프라임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가 있다. 이 다큐멘터리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질문 기회를 부여함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못하는 한국 기자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며 질문이 사라진 한국 강의실의 문제를 집중 분석하고 있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해요. ‘공적’이라는 말은 ‘사적’이라는 말의 반대 의미로, 말을 하거나 들을 때 일정한 형식과 틀을 고려해야 하는 공식적인 것을 뜻해요. 가령, 여러분에게 사적인 상황은 쉬는 시간에 친구와 대화를 하는 상황이고, 공적인 상황은 수업 시간에 수업과 관련하여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상황에 해당하겠지요.
- 공적인 상황, 그러니까 수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나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동영상을 시청해 봅시다.
- 잘 보았나요? 동영상의 상황은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매우 공적인 상황이고, 여기에서 한국 기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나요? 여러분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자유롭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이 동영상에서의 기자들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나요?
- 동영상에서 한국 기자들이 오바마에게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는 상황에 적절한 질문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시나 질문을 잘 못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수업 상황에서 선생님께 자유롭게 질문하지 못하는 이유도 아마 이와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요. 공적인 의사소통은 사적인 의사소통만큼이나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준비하여 말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공적인 상황에서도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든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 처하게 될 테니까요.
-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러한 공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상황인 수업도 다양한 의사소통 상황으로 다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가령, 선생님께 질문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상황, 발표하는 상황, 모둠별로 활동을 하는 상황, 토의 혹은 토론을 하는 상황 등등 매우 다양하지요. 이 모든 상황을 한 시간 안에 다 살펴보는 것은 어려우니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공적 상황인 ‘발표’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학생들이 발표 상황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성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하여 3분 말하기를 실시한다. 이는 짧은 시간 내에 준비하여 2~3분 정도 발표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5분 동안 준비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고 모둠별로 모여서 친구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모든 학생들을 다 발표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므로 3~4명 정도만 발표를 시킨다.
- 자발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생을 우선으로 발표시키되 무작위로도 뽑아서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발표하도록 유도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전개 부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 활동 1은 2분 말하기를 하고, 개인별로 말하기를 평가한다. 친구의 발표를 평가한 후에는 평소에 자신이 발표하는 모습을 떠올려 자기 평가도 한다. 청중의 듣기 태도에 대해서도 성찰한다.
- 활동 2는 평가 학습지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 상황에서 드러나는 화자와 청자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하고 모둠별로 모여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로 문제점들을 정리한다.
- 활동 3은 정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둠별로 모색한다.
-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통해 발표라는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 상황을 언어적, 비언어적 측면에서 탐색하여 자신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 지식 갈무리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은 발표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질문하기, 소집단 협력 학습에서 토의 또는 토론하기 등으로 다양하다. 수업의 효율성과 초점화를 고려하여 본 수업은 발표하기를 집중적으로 살피지만 발표 상황에서도 다른 공적인 말하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공적 의사소통을 위한 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학생들이 발표에서 필요한 태도가 다른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 공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부정적인 언어문화

	화자		청자
기능	언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비속어를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은 단어, 문장을 그대로 사용함. -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적절하게 조직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음.
	비언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거나 발음을 분명하게 하지 않음. - 말투, 억양, 보조 자료 등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하지 못함.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에 대해 예의 바른 태도를 갖지 않음. - 청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지 않음. - 청자의 생각을 존중하고 소통하려 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말하려는 경향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에게 집중하지 않음. - 화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 하지 않음. - 화자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음. - 화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갖지 않음. - 화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갖지 않음.

• 바람직한 공적 의사소통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점

	화자		청자
기 능	언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어를 사용한다. - 비속어가 아닌 바른 단어와 어법에 맞는 단어를 사용한다. -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간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말한다.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자의 말 중에서 중요하거나 인상적인 내용은 메모하거나 혹은 특히 관심을 기울이며 듣는다. - 화자의 말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적극적으로 한다.
	비언 어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목소리가 청자에게 분명하게 들리도록 말한다. - 표정, 손짓, 몸짓, 자세 등을 예의 바르면서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 말하는 내용을 고려하여 말투나 억양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을 다양하게 활용한다. 	
태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자의 관심, 요구, 흥미, 성향, 기분 등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 청자의 반응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 청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경청한다. - 화자의 말을 끝까지 집중하며 듣는다. - 화자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로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도입에서 안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준비한 말하기를 발표하게 한다.
- 자원자와 무작위로 선정한 학생을 섞어서 3~4명 정도 발표하게 한다.
-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친구의 발표를 들으며 학습지를 완성한다.
- 평소 자신의 발표 모습을 떠올리며 자기 평가도 해보게 하며, 자신을 비롯한 친구들의 듣기 태도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자신이 평소에 잘 알고 있는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수 있도록 5분 동안 준비하게 한다.
-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짧게 발표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최대한 가볍게 활동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할 경우 발표 사례가 다양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 최대한 학생들이 평소에 발표하는 대로 자연스럽게 발표하도록 상황을 유도한다. 발표 상황이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며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다.
- 학생들에 따라 발표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상황에 따라 발표를 더 시킬 것인지 덜 시킬 것인지를 결정한다.
- 자기 평가는 친구들의 발표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경우를 떠올리게 한다.
- 듣기 태도에 대해서는 발표하기 전에 언급하지 않아야 한다. 이 활동의 목적은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평소 태도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듣기 태도에 대해 평가할 것이라는 말을 교사가 발표 전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평소 태도가 드러나지 않을 우려가 있다. 발표 후에 자신의 발표 태도를 생각해보는 과정에서 발표를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반성해 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발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듣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일단 여러분이 발표할 때의 실제 모습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 잠깐 3분 말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3분 동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하고 어떤 내용을 말할지 정리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주제로 정해서 엄마의 외모, 말투, 성격이나 엄마가 잘 해 주시는 요리, 엄마의 특기,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주제는 사람뿐만 아니

라 동물, 사물 등 그 어떤 것도 가능해요. 그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라면 다 상관없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겠죠? 이런 내용들을 3분 이내에 자유롭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은 5분을 줄게요.

- 특별히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이든 동물 이든 사물이든 아니면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자신 있게 3분 동안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를 찾고 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말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주겠습니다.

(5분 후)

- 그럼 지금부터 3분 말하기를 시작해 볼까요?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활동은 누구의 잘못을 들춰내서 지적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어떻게 발표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뿐이니깐 그냥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평소처럼 부담 없이 발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가장 먼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 볼 사람?
- 멋지게 용기를 낸 ○○이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의 발표를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학습지에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 아직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선생님은 숨어있는 보석 같은 친구들의 말하기도 궁금해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무작위로 번호를 부를 테니 그 친구가 나와서 발표를 해 봅시다. ▢번! 누구인가요?
-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발표에 대해 생각해 보았는데, 그럼 이제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친구들의 발표를 바탕으로 자신이 발표할 때는 어떤 점을 잘하고 어떤 점은 부족한지 스스로 평가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친구들의 발표를 듣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땠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태도는 물론 친구들의 태도에 대해 자유롭게, 그렇지만 솔직하게 평가해 봅시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평가 학습지를 완성한 후에는 학습 자료를 나누어 주고, 학습 자료에 제시된 상황을 바탕으로, 발표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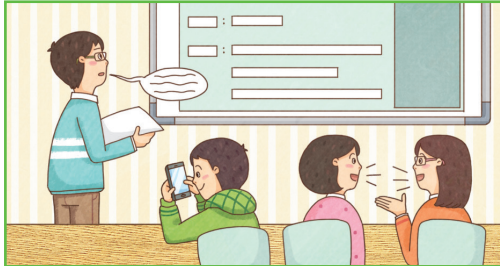
학습 자료를 보고 문제점을 생각할 때에도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 문제점을 정리할 때는 맨 처음에 본 동영상 내용, 친구들의 발표, 만화 자료, '나의 말하기 유형' 자료, 평소 자신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안내한다.
- 평가 학습지와 학습 자료의 내용을 종합할 때 우선순위를 두고 문제점을 선정하도록 하여 어떤 부분이 가장 심각한지 파악하게 한다.

- 모둠별로 모여서 평가 학습지와 학습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할 때 가장 많이 드러나면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순위별로 정리한다.

- 지금까지 발표에서 우리가 말하고 들을 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사실 몇몇 친구들의 발표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관찰한 상황은 일부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발표를 비롯해 모둠 활동 등 우리들이 접하게 되는 공적인 상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나눠 주는 만화 자료를 보며 개인별로 문제점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 이 만화 자료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드러나 있나요? 한번 찾아 적어 보세요.
- 또 '나의 말하기 유형'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더 나누어 줄게요. 나의 말하기 습관이 어디에 속하는지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활동을 종합해서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드러나는 우리들의 문제점을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이 앞에서 본 동영상, 친구들이 한 발표, 만화 자료, 그리고 '나의 말하기 유형'을 구분해 본 자료, 평소 자신의 경험 등을 총동원하여 모둠별로 모여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순서대로 정리해서 학습지에 완성해 보세요.

수업 시간 우리는



▶ 발표자는 미리 준비한 시각 매체 화면만을 바라보고 읽고 있으며 청중은 발표자의 발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



▶ 발표자가 평소에 자신이 쓰는 비속어를 자주 사용하여 교사와 청중들이 듣기 불편해 함.



▶ 발표자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떠돌고 있는 청중에게 예의 없는 태도로 들으라고 강요함. 이에 청중들은 불쾌해 하거나 같이 화를 냄.



▶ 모둠 토의 상황에서 한 학생이 소극적인 태도로 문장의 첫 부분만 겨우 알아듣게 말하고 있음. 뒷부분을 명확하게 끝맺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이 답답해하고 있음.



▶ 모둠 활동에서 '술직히'라는 단어를 모든 말의 시작 부분에서 반복하고 다른 학생들은 '술직히'가 지나치게 반복되는 것에 대해 거슬리는 표정을 함.



▶ 모둠 활동에서 한 학생이 다른 친구의 말을 자르며, "아, 됐고, 내 말을 들어."라고 함. 다른 학생들은 무안한 표정을 지음.

참고 자료

나의 말하기 유형은

- 1) **‘천상천하 유아독존’형** : 스타의 기질이 있어 어디서나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래서 가능한 한 길게 말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어 후회하는 일도 있다. 말을 줄여서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2) **‘반대를 위한 반대’형** : 사사건건 반대를 하여 비난을 받는 사람.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적당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이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끝까지 들어본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난 몰라’형** : 매사에 초연한 사람. 자신이 상관하지 않아도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기도 하여 눈총을 받지만 신경 쓰지 않는다. 공적인 일은 안 해도 개인적인 부탁은 잘 들어준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사소한 잡담은 삼가야 한다.
- 4) **‘그게 뭘니까’형** :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우유부단함을 못 참아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공격하여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것으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5) **‘왜 사나면 웃지요’형** :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세상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매사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원망을 듣기도 한다. 때로 중요한 의견을 묵살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넘어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농담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6) **‘나를 따르라’형** : 매우 사교적인 성격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한다. 회의 시간에도 고루 참여시키기 위해 고심한다. 팀의 화합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좋다.
- 7) **‘족집게’형** :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요점을 정확히 전달해 주어 모든 사람들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정확하고 명백한 것을 좋아하며 주변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한다. 회의나 토론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녔다.

*출처 : 김복순(2008), 『발표와 토의』, 국학자료원.

활동 3

◎ 활동 3의 방법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모둠별로 논의하여 정리한다.



수업 돋보기

- 학생들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연해 한다면 평가 학습지에서 친구들이 잘한 점을 정리한 부분을 참고하게 안내한다.
- 해결 방법은 다양하면서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유도한다.

– 모둠별로 정리가 끝났지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정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모둠별로 함께 상의해서 학습지를 완성해 보세요.

참고 자료

- 변혜원(2011),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서울대학교 인류학석사학위논문.
: 이 논문은 청소년 언어 자료를 분석하여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방식의 특성과 특징적인 언어문화를 파악하고 있다.
- 유지은(2007), 중학생 발표 불안 해소 방안 연구, 국어교과교육연구 13, 국어교과교육연구학회.
: 이 논문은 중학생들의 발표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히고 발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리

모둠별로 생각한 방법들을 한 가지씩만 발표하게 하고 그 내용을 교사가 정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활동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활동 방법

모둠별로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을 하나만 골라 발표하게 한다. 모둠별 발표가 끝난 후에는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다. 이번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활동의 의미를 설명한다.



수업 돋보기

- 활동이 활동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끝나는 시간을 잘 조절한다.
- 시간에 여유가 있다면 모둠별 발표는 두 가지 이상씩 하게 하여도 무방하다.
- 발표 후에는 모둠이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유형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다.
- 활동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미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자신이 한 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게 돕는다.

- 여러분이 생각한 여러 방법들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하나 고르세요. 그리고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 앞 모둠이 발표한 내용이 자신들이 하려고 했던 내용과 겹친다면 겹치지 않는 다른 내용을 발표하면 좋겠지요?
- 네. 여러분이 제시한 방법 모두 참 좋았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발표와 같은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는 듣는 사람의 반응을 살피며 큰 소리로 분명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비속어가 아닌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예의바른 태도로 표정, 손짓, 몸짓, 어투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조 자료를 사용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공적인 상황에서 들을 때에는 바른 자세로 말하는 사람에게 능동적으로 반응하며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거나 기억해 두고 끝까지 집중하며 듣는 태도가 필요해요.

- 지금까지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직접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친구들에게 5분 정도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한 발표 주제를 모둠별로 정하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준비할 시간을 10분 정도 주기는 하겠지만 필요하다면 참고 자료를 미리 수집해 보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주제를 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참고할 만한 예시 주제를 알려 줄 테니, 이것을 활용하여 여러분이 주제를 스스로 정해도 좋고 이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해서 자료를 조사해도 괜찮아요.

주제 예시

-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게임, 영화 등)의 줄거리와 주인공 소개
-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의 모든 것
- 우리나라의 자랑거리
-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
-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
- 친구를 잘 사귄 수 있는 방법

참고 자료

- 유혜원(2010), 말하기 교육을 위한 격식 표현 연구-공적 말하기를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4-1, 한국교양교육학회.
- 채아라(2012),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효율적인 교육 방안 연구: 2007 개정8학년 교과서 말하기 단원을 중심으로, 국어교과교육연구 21, 국어교과교육학회.
- 매리 언더우드 지음, 입말교육연구회 옮김(2005), 「듣기교육」, 나라말.
- 류성기(1999), 「국어과 교육의 실제화 연구: 말하기 · 듣기 · 언어영역」, 교육과학사.

1차시-활동 1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친구들의 발표에 대한 나의 생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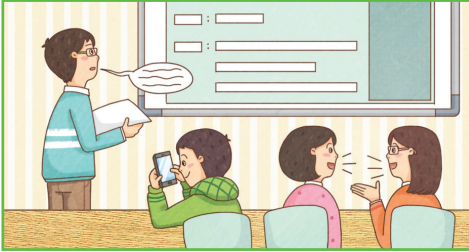
발표 순서	발표 주제	친구들의 발표에 대한 나의 생각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단어 사용, 문장 표현 방식, 설명 방식 등		말투, 표정, 시선, 몸짓, 손짓, 자세, 태도 등	
		잘한 점	고쳐야 할 점	잘한 점	고쳐야 할 점
1	우리집 강아지	- 강아지의 특징을 재미있게 표현한다. - 문장의 앞뒤가 잘 맞고 이해가 잘 되 도록 설명한다.	- 반말을 한다. - 강아지와 상관없 는 딴 얘기를 많이 한다.	- 강아지 흉내를 낼 때 표정과 손짓이 재미있다. - 목소리가 크고 말 투가 독특해서 귀 에 쏙쏙 들어온다.	- 약간 예의가 없는 느낌이다. - 자기와 친한 친구 만 바라보고 이야 기한다.
2	나의 친구	- 간단하고 짧게 끝 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잘 된다. - 소개하는 친구의 외모, 성격, 장점 등을 잘 나누어서 설명한다.	- 평소에 우리가 쓰 는 말을 썼는데 뭔가 예의 없어 보인다.	- 말투가 차분하다. - 자세가 바르다.	- 목소리가 좀 작아 서 내용이 안 들 릴 때가 있다. - 우리를 안 보고 책상만 바라보고 이야기한다.
3
4					
5					

주제 :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발표를 할 때 나는 어떻게?〉			
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단어 사용, 문장 표현 방식, 설명 방식 등		말투, 표정, 시선, 몸짓, 손짓, 자세, 태도 등	
잘하는 점	고쳐야 할 점	잘하는 점	고쳐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르고 고운 말을 쓴다. - 말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을 너무 천천히 한다. - 당황하면 내가 하는 말을 나도 이해 못할 때가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는 사람들을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한다. - 자세가 바르고, 예의를 갖추어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투가 좀 졸린다. - 로봇처럼 약간 딱딱해 보인다고 한다.

〈발표를 들을 때 친구들과 나는 어떻게?〉			
친구들의 태도		나의 태도	
잘하는 점	고쳐야 할 점	잘하는 점	고쳐야 할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 주제에 관심을 많이 보였다. - 발표하는 친구의 말에 반응을 잘해 주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끄럽고 집중을 안 할 때가 있다. - 발표하는 친구를 놀리기도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심히 들었다. - 친구의 이야기 중에 재미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집중해서 듣고 메모를 하기도 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표하는 친구를 잘 안 봤다. - 가끔 딴 생각을 하기도 했다.
발표를 들을 때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는 무엇일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듣는다. - 인상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은 메모하거나 기억해둔다. - 친구가 하는 말에 반응을 잘해 준다. - 친구가 발표를 좀 못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주제 : 친구들의 발표에 대한 나의 생각은?



• 화자 또는 청자의 문제점

- ▶ 화자: 듣는 사람을 보지 않고 자기 말만 한다.

청자: 발표에 집중하지 않는다.



• 화자의 문제점

- ▶ 여러 사람 앞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한다.



• 화자 또는 청자의 문제점

- ▶ 화자: 예의가 없고 청중을 무시한다.

청자: 발표하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 화자의 문제점

- ▶ 목소리가 작고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는다.



• 화자 또는 청자의 문제점

- ▶ 화자: 불필요한 단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해서 듣는 사람을 불편하게 한다.

청자: 발표하는 사람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다.



• 화자의 문제점

- ▶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말만 하려고 한다.

주제 :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

※ 나의 말하기 유형은? 다음 중 나의 말하기 유형이 어디에 속하는지 성찰해 봅시다.

- 1) **‘천상천하 유아독존’형** : 스타의 기질이 있어 어디서나 주목을 받아야 하는 사람. 그래서 가능한 한 길게 말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면박을 주어 후회하는 일도 있다. 말을 줄여서 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2) **‘반대를 위한 반대’형** : 사사건건 반대를 하여 비난을 받는 사람. 단지 다른 사람들이 적당한 의견을 내놓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이 특별히 부정적인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다. 상대방의 말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후, 또한 끝까지 들어본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한다. 다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게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3) **‘난 몰라’형** : 매사에 초연한 사람. 자신이 상관하지 않아도 세상은 저절로 굴러가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회의 시간에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기도 하여 눈총을 받지만 신경쓰지 않는다. 공적인 일은 안 해도 개인적인 부탁은 잘 들어준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적으로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며 사소한 잡담은 삼가야 한다.
- 4) **‘그게 뭘니까’형** :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우유부단함을 못 참아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성격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말로 공격하여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그것으로 관계가 나빠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한번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5) **‘왜 사나면 웃지요’형** : 심각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 세상을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매사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원망을 듣기도 한다. 때로 중요한 의견을 묵살해서 모든 것을 적당히 넘어가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농담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 6) **‘나를 따르라’형** : 매우 사교적인 성격의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골고루 관심을 갖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한다. 회의 시간에도 고루 참여시키기 위해 고심한다. 팀의 화합을 위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나가는 것이 좋다.
- 7) **‘족집게’형** : 다른 사람의 의견까지 요점을 정확히 전달해 주어 모든 사람들이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정확하고 명백한 것을 좋아하며 주변도 그렇게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한다. 회의나 토론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자질을 지녔다.

*출처 : 김복순(2008), 『발표와 토의』, 국학자료원.

1차시-활동 2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

〈우리들이 정리한 문제점〉

발표를 할 때의 문제점	발표를 들을 때의 문제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소리가 작아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된다. 2. 청중의 반응이나 관심, 기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한다. 3. 듣는 사람을 무시하며 자기 할 말만 한다. 4. 예의 없고 무례한 태도로 말한다. 5.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를 사용한다. 6. 말끝을 흐려서 내용 전달이 잘 안 된다. 7. 말의 앞뒤가 안 맞아서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된다. 8.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 9. 반말을 한다. 10. 지루하게 말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발표를 듣지 않고 자거나 딴짓을 한다. 2. 시끄럽게 떠든다. 3. 발표자를 놀리거나 무시한다. 4. 발표자에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 5. 발표를 적극적으로 듣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듣기만 한다. 6. … 7. 8. 9. 10.

〈우리들이 생각한 해결 방법〉

발표를 할 때 필요한 태도는?	발표를 들을 때 필요한 태도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의바른 태도로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며 내용이 잘 드러나게 표현한다. 2.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해서 내용을 분명하게 전달한다. 3. 표정이나 손짓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 4. 듣는 사람의 관심이나 흥미를 끌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 5. 듣는 사람의 반응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 발표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바른 자세로 내용을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 2. 말하는 내용 중에 인상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메모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며 듣는다. 3. 말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며 듣는다. 4. 말하는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 5. …

2차시

■ 이 시간에는

1차시에서 학습한 화자와 청자로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둠별 주제를 정하고 내용을 준비하여 발표한다. 모든 모둠원이 발표할 부분을 나누어 맡아 발표하고, 이때 다른 모둠원들은 친구들의 발표를 들으며 비판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모듬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지녀야 할 태도에 대해 정리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학습 목표

가.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내용을 준비한다.

나. 바른 태도로 발표를 경청한다.

다. 화자 또는 청자로서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한다.

■ 준비물

학습지, 개인용 컴퓨터 혹은 검색을 위한 휴대 전화, 인터넷과 발표 시 시각 매체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개인별 혹은 모듬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지, 색연필, 필기도구

도입

1차시에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하여 실제로 발표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임을 안내한다. 모둠별로 발표할 주제를 정하고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발표할 내용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 활동 방법

발표하는 방법과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수업 돋보기

- 모둠별로 발표 준비를 하는 것이므로 1차시에서의 활동보다는 자료를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다면 모둠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전지를 나누어 주고 발표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지난 시간에는 공적인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았죠? 지금은 그때 공부한 것들을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모둠별로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정하라고 하였죠? 그 주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모둠원들과 상의하고 10분 동안 컴퓨터와 휴대 전화, 교실 내 모든 참고 서적 등을 활용하여 발표할 내용을 마련해 보세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니 모든 모둠원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최대한 열심히 자료를 찾아 함께 의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준비한 내용을 모둠원들이 골고루 나누어 맡아 발표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발표를 할 때는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찾았던 발표할 때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선생님이 모둠별로 다니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전개

학생들이 실제 발표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적용하고 그것을 평가해 보는 경험을 하게 하여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겪는 자신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모둠별로 미리 생각해 온 주제를 공유한다.
- 휴대 전화나 컴퓨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할 내용을 제한 시간 (10분) 동안 마련한다.
- 마련한 내용을 모둠원 구성원별로 나누고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지 논의한다.
- 모둠별로 마련한 내용을 발표하되 최대 5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 친구들이 발표를 하는 동안 평가 기준에 따라 모둠의 발표를 평가한다.
- 평가 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소감을 말해보도록 하고, 발표 과정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뒤 수업을 마무리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수업 상황에 따라 사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발표 내용을 전지에 효과적으로 재구성하고 실물을 제시하거나 몸으로 표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보조 자료를 활용하도록 지도한다.
- 모든 모둠원이 발표 내용을 공평하게 분담하여 참여하도록 강조한다.
- 평가는 개인별이 아닌 모둠으로 하도록 하여 특정 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한다.
- 발표 상황,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제한 시간 동안 발표할 내용을 모둠별로 마련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발표하고, 친구들의 발표를 집중하여 듣도록 하는 것이 핵심 활동이다. 1차 시에서 공부하였던 발표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활용하여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적인 상황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를 알고 자신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인식하여 그것을 개선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제한 시간(10분) 동안 자신들이 정한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할 내용을 모둠원이 함께 찾는다.
- 찾은 내용들의 발표 순서를 정하고 컴퓨터를 활용하거나 전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 모든 모둠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이 부족하다면 발표를 준비하는 모둠과 평가를 하는 모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하는 모둠은 다른 모둠이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함께 자료를 찾아 주거나 컴퓨터 활용, 전지 활용 등을 지원한다.
- 발표 역할을 골고루 나누고 각자 발표할 준비를 한다.
- 교사는 모둠이 활동하는 곳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도와주거나 발표 순서를 정하거나 수업 시간을 조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다채롭고 역동적인 수업이 되기 위해서는 모둠별로 컴퓨터를 최소한 한 대씩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전지와 사인펜, 색연필 등을 준비하여 보조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든 만들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주제를 잘 잡아올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한다. 1차시 종료 전에 2차시에서 모둠별로 발표할 것임을 예고하고 5분 이내로 발표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정하도록 설명한다. 이때 2차시에서는 10분 정도의 준비 시간을 줄 것임을 안내하고 자료를 찾아올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미리 찾아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을 안내한다. 이 활동은 자료를 많이 찾아서 잘 짜여진 발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들이 1차시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하여 발표하는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너무 어렵거나 복잡한 주제를 잡지 않도록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모둠별로 나가서 발표를 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를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모든 모둠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간이 부족하다면 발표를 준비하는 모둠과 평가를 하는 모둠을 나누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평가를 하는 모둠은 다른 모둠이 발표 준비를 하는 동안 함께 자료를 찾아주거나 컴퓨터 활용, 전지 활용 등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 발표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둠이 준비하는 동안 교사는 발표 순서를 정하고 모둠별로 필요한 것들을 물어 사전에 준비한다.

– 여러분, 제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해 볼까요?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동안 돌아다니면서 발표 순서를 이미 다 정해두었습니다. 첫 번째 모둠부터 나와서 발표해 보도록 해요. 나머지 앉아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나누어 준 평가표를 활용하여 친구들의 발표를 평가해 보세요.

정리

발표를 전체적으로 평가하되 학생들이 잘한 점을 집중적으로 칭찬하고 아직 부족한 점 등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이를 통해 발표 시 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학생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안내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활동 방법

- 모둠별 발표가 모두 끝나면 교사가 발표 중에서 특징적인 부분으로 들어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다시 한 번 정리한다.
- 1, 2차시의 활동을 개괄하고 공적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 이렇게 해서 모든 모둠의 발표를 다 보았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매우 발표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특히 두 번째 모듬은 () 면에서 아주 훌륭했어요. 네 번째 모듬은 () 부분들을 잘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첫 번째 모듬이 () 한 점이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서 한 발표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발표는 정말 훌륭했어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우리가 1차시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던 해결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발표했다는 점이에요. 또한 발표를 듣는 청중의 모습도 매우 훌륭했어요. 모든 친구들이 집중해서 발표를 경청하였고, 상황에 따라 발표자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해 주고 궁금한 것은 질문까지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발표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 우리는 1차시 수업에서 친구들의 발표를 보면서 화자와 청자의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을 찾고, 그중 부족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실제로 발표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발표해 보는 경험을 해 보았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발표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고

민한 덕분에 오늘 발표 시간에는 발표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매우 집중하였던 것 같아요. 발표하는 사람이 바른 태도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듣는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반응을 보이며 듣다 보니 선생님은 여러분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매우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 이러한 발표는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공적인 상황에서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의사소통은 발표뿐만 아니라 토의, 토론할 때도 일어나고,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모둠별로 활동을 할 때에도 일어난다고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할 때 화자와 청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사실 발표 상황뿐만 아니라 다른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필요한 태도예요. 공식적인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가를 스스로 찾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하여 어떤 공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도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 자료

- 김소산(2016), 청소년의 자기 언어 인식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이 논문은 청소년이 자신의 언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양상을 분석하고 있다.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신의 언어 사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 참고할 수 있다.
- 김은성(2015), 청소년어에 관한 청소년 문식실천의 사례 연구, 국어교육연구 36,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 이 논문은 청소년들이 특정한 문식 활동을 수행한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있다. 이를 공적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문제와 관련시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의 영역을 확장시키는 데 참고할 수 있다.

2차시-활동 2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친구들의 발표를 한 번 살펴볼까?

평가기준표 : 모둠			
평가 항목		별점	합계
언어적 표현	1. 높임말을 사용한다.	☆ ☆ ☆ ☆ ☆	
	2.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	☆ ☆ ☆ ☆ ☆	
	3.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 ☆ ☆ ☆	
비언어적 표현	1.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크기가 적절하다.	☆ ☆ ☆ ☆ ☆	
	2. 표정, 시선, 손짓, 몸짓 등이 자연스럽다.	☆ ☆ ☆ ☆ ☆	
	3.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 ☆ ☆ ☆	
태도	1. 예의 바른 태도로 청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 ☆ ☆ ☆ ☆	
	2.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 ☆ ☆ ☆	
한 줄 평		총점	

평가기준표 : 모둠			
평가 항목		별점	합계
언어적 표현	1. 높임말을 사용한다.	☆ ☆ ☆ ☆ ☆	
	2.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	☆ ☆ ☆ ☆ ☆	
	3.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 ☆ ☆ ☆	
비언어적 표현	1.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크기가 적절하다.	☆ ☆ ☆ ☆ ☆	
	2. 표정, 시선, 손짓, 몸짓 등이 자연스럽다.	☆ ☆ ☆ ☆ ☆	
	3.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 ☆ ☆ ☆	
태도	1. 예의 바른 태도로 청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 ☆ ☆ ☆ ☆	
	2.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 ☆ ☆ ☆	
한 줄 평		총점	

평가기준표 : 모둠			
평가 항목		별점	합계
언어적 표현	1. 높임말을 사용한다.	☆ ☆ ☆ ☆ ☆	
	2.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	☆ ☆ ☆ ☆ ☆	
	3.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 ☆ ☆ ☆	
비언어적 표현	1.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크기가 적절하다.	☆ ☆ ☆ ☆ ☆	
	2. 표정, 시선, 손짓, 몸짓 등이 자연스럽다.	☆ ☆ ☆ ☆ ☆	
	3.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 ☆ ☆ ☆	
태도	1. 예의 바른 태도로 청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 ☆ ☆ ☆ ☆	
	2.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 ☆ ☆ ☆	
한 줄 평		총점	

주제 : 친구들의 발표를 한 번 살펴볼까?

평가기준표 : 모둠			
평가 항목		별점	합계
언어적 표현	1. 높임말을 사용한다.	☆ ☆ ☆ ☆ ☆	
	2.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	☆ ☆ ☆ ☆ ☆	
	3.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 ☆ ☆ ☆	
비언어적 표현	1.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크기가 적절하다.	☆ ☆ ☆ ☆ ☆	
	2. 표정, 시선, 손짓, 몸짓 등이 자연스럽다.	☆ ☆ ☆ ☆ ☆	
	3.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 ☆ ☆ ☆	
태도	1. 예의 바른 태도로 청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 ☆ ☆ ☆ ☆	
	2.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 ☆ ☆ ☆	
한 줄 평		총점	

평가기준표 : 모둠			
평가 항목		별점	합계
언어적 표현	1. 높임말을 사용한다.	☆ ☆ ☆ ☆ ☆	
	2. 단어 사용이 적절하고 문장 표현이 자연스럽다.	☆ ☆ ☆ ☆ ☆	
	3.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 ☆ ☆ ☆ ☆	
비언어적 표현	1. 발음이 분명하고 목소리가 크기가 적절하다.	☆ ☆ ☆ ☆ ☆	
	2. 표정, 시선, 손짓, 몸짓 등이 자연스럽다.	☆ ☆ ☆ ☆ ☆	
	3. 보조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 ☆ ☆ ☆ ☆	
태도	1. 예의 바른 태도로 청자를 배려하고 존중한다.	☆ ☆ ☆ ☆ ☆	
	2.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 ☆ ☆ ☆	
한 줄 평		총점	

청중 평가기준표			
평가 항목		별점	합계
1. 인상적이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메모하거나 관심을 가지며 들었다.		☆ ☆ ☆ ☆ ☆	
	2. 바른 자세로 끝까지 집중하며 들었다.	☆ ☆ ☆ ☆ ☆	
	3. 우호적인 태도로 발표자에게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 ☆ ☆ ☆ ☆	
한 줄 평		총점	

2. 공감하고 배려해요

■ 이 단원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사적 의사소통 문화를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사춘기를 보내며 부모님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을 갖고 주장하는 경향이 조금씩 강해진다. 동시에 또래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민감해지면서, 또래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이 단원의 목적은 갈등 상황이나 고민을 나누는 대화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나아가 배려하는 말하기, 공감적인 대화의 원리를 익혀 더 나은 소통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먼저 1차시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태도를 탐색하고, 2차시에서는 보다 친밀한 감정의 교류가 일어나는 대화 상황에서 소통상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감적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을 한다.

■ 학습 목표

- 가. 일상생활에서 배려하는 말하기, 공감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나. 배려하는 말하기, 공감적 대화의 원리를 이해한다.
- 다. 배려하는 말하기, 공감적 대화를 수행한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에서 말의 힘을 알고, 바르고 적절하게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배려하는 말하기 표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담을 통해 말을 바르고 적절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 인식하기 • 배려하는 말하기를 경험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 탐구하기 • 타인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 성찰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통 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함을 이해한다. • 공감적 경청의 원리를 알고 수행한다. • ‘나 전달법’의 원리를 알고 수행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적 대화 기술을 배우려는 동기 유발하기 • 공감적 대화의 원리 익히기 • 공감적 경청 및 나 전달법에 따른 대화하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하는 태도를 탐색하게 된다. 학생들은 속담 등을 통해 말을 바르고 적절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의 사례를 통해 대화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며 배려하는 말하기의 가치를 느끼게 된다. 특히 공손성의 원리를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하여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인다.

■ 학습 목표

- 가. 일상생활에서 말의 힘을 알고, 바르고 적절하게 말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 나.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 다. 배려하는 말하기 표현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말할 수 있다.

■ 준비물

광고 사진, 학습지,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손수제작물 공모전 수상작’ 영상

도입

속담을 통해 말을 바르고 적절하게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 활동 방법

활동지를 활용하여 개인별 활동을 한다. 속담의 정확한 뜻에 주목하기보다는 속담을 통해 ‘말’에 대한 우리의 문화를 알고, 말의 영향력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

-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말에 대한 속담이 참 많아요. 속담을 통해 ‘말’의 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 먼저 활동지에 제시된 말에 대한 속담 중에서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 끼리 선을 그어 연결해 보세요.
- 속담은 간결하지만, 속담에는 오랜 세월을 거쳐 삶에서 얻은 경험이나 교훈, 가치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위의 속담에는 어떤 교훈과 가치가 담겨 있나요?
-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힘이 다르고, 결국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처럼 내게 미치는 영향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있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관심을 갖고 늘 생각해야 해요.

말의 힘, 중요성, 신중한 말하기와 관련된 속담의 예시

• 말의 힘과 효과에 관한 표현

- 말이 씨 된다. : 늘 말하던 것이 이루어진다. 말이 구체적 사실을 가져온 원인이 된다.
- 입이 여럿이면 금도 녹인다. : 어떤 사항에 관해서 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시비를 가리고 말을 하면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 입만 가지면 서울 이 서방 집도 찾아간다. : 말만 잘하면 매우 힘든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말이다.
- 말로 해치는 것이 칼로 해치는 것보다 무섭다. : 칼로 입은 상처는 곧 낫지만, 남의 말로 인하여 입은 마음의 상처는 낫기 어렵다. 말의 위력이 칼보다 세니,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 말 한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 : 세상을 살아가는 데 말재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 말조심, 신중함의 표현

- 웃느라 한 말이 초상난다. : 농으로 한 말이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주어 마침내는 그가 죽기까지 한다 함이니, 말이란 극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 관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마라. : 곧 죽을 목숨이라도 막말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여라도 막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말 취소하기 어려움의 표현

- 쌀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화살은 쏜 다음 아무리 멀리 가도 주울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그릴 수 없다.
- 쌀은 쏘고 주워도 말은 하고 못 줍는다. : 말은 한번 내뱉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 제게서 나온 말이 다시 제게 돌아간다. : 말이란 한번 하고 나면 한없이 퍼지고 자기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 한번 한 말은 어디든지 날아간다. : 한번 입 밖에 나온 말은 금방 소문나기 쉽다는 말이다.

• 고운 말과 달콤한 말의 표현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내가 남에게 좋게 말을 하여야 남도 내게 좋게 말을 한다.
- 비단 대단 곱다 해도 말같이 고운 것 없다. : 비단이 아무리 고와도 사람의 부드러운 말보다 못하니 말은 부드럽고 곱게 해야 한다.
- 옥반에 진주 굴 듯. : 옥으로 된 접시에 진주가 굴러가는 소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말을 상냥하게 하는 것이다.
- 똥 썩 누덕 바지 치키듯. : 남을 듣기 좋게 자주 치켜세워 준다는 말이다.
- 말이 고마우면 비지 사러 갔다 두부 사 온다. : 말하는 상대방의 태도가 마음에 들고 그 뜻이 고마우면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후하게 해 준다.

*출처 : 정달영(2010), *한국어의 말(言語) 관련 속담에 나타난 언어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35, pp.39-71.

전개

상대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해 배려하는 말하기를 인지적·정의적 차원에서 경험하고 상황에 적절한 표현에 대해 탐구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활동 1은 타인의 사례를 통해 대화 상대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해 배려하는 말하기(공손성의 원리에 따른 말하기)의 중요성을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활동이고, 활동 2는 자신의 정서적 체험 속에서 배려하는 말하기의 가치를 익히는 활동이다.

또 학생들이 공손성의 원리를 인지적으로 이해하도록, 활동 1은 동일한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와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의 사례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활동 2에서는 학생들 개개인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부정적인 표현과 긍정적인 표현의 실제 사례를 풍성하게 접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 실제 사용되는 표현에 대한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공손성의 원리와 배려를 지식과 추상적 개념으로 제시하기보다는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개개인의 삶에서 생생하게 접하는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개념을 귀납적으로 접하게 한다.
-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대상으로 탐구하지만, 타인의 문제로 한정하지 않고 그것이 곧 자신의 말하기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음을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이 처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돌아보며 성찰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지식 갈무리

• 공손성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란 공손하고 예절 바르게 말을 주고받는 태도를 통해 대화 참여자들 사이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원리를 말한다.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단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만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상대가 창문을 닫기를 바라는 경우에 “빨리 창문 닫아.”라고 명령하듯 말하는 대신에, “바람이 들어와 춥네.,” “창문 좀 닫아 주면 좋겠네.”라고 부드럽게, 더 공손하게 말하려고 한다.

• 대화할 때는 이렇게(Leech, 1983)

·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 보세요.[요령의 격률]

(예) 혹시 바쁘시지 않다면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위의 (예)에서 화자는 상대가 처한 입장을 충분히 배려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혹시’와 ‘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질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시간이 없다고 대답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허용해 주고 있다.

· 내 탓으로 돌려 말해 보세요.[관용의 격률]

(예) 제가 잠시 집중을 못했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의 (예)의 화자가 이해를 못한 것은 상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못해서일 수도 있는데, 이해를 못한 책임을 자신이 집중하지 못한 탓으로 돌리고, ‘죄송하지만’이란 표현을 통해 자신의 잘못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칭찬하며 말해 보세요.[찬동의 격률]

(예) 진희 : [기대감을 갖고] 이번에 한 인테리어 어떤 것 같아?

정아 : [본인의 취향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고] 네 분위기에 어울리게 잘 된 것 같아. 네가 이런 데 감각이 있잖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한다. 거짓 칭찬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는 상황을 잘 포착해서, 칭찬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것이다. 이는 단지 대화를 이어가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능이 된다.

· 겸손하게 말해 보세요[겸양의 격률]

(예) 정호 : 너 이번에 글쓰기상 받았으며? 축하해. 멋지다!

석우 : 아니야. 늘 글 쓰는 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운이 좋았나 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해 주니 고맙다.

석우는 친구 정호의 칭찬에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며 겸손하게 기쁨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말 문화에는 이렇게 상대의 칭찬에 “천만에요.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부끄러울 뿐입니다.” 등의 표현과 같이 겸손을 드러내는 표현이 많은데, 이것은 겸손함을 중요한 인성으로 보기 때문이다.

· 동의하며 말해 보세요(동의의 격률)

[예] 다인 : 우리 오늘 뭐하지? 마땅히 할 게 없네. 영화 보러 갈까?

준한 : 영화? 영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아 맞다! 요즘 벚꽃이 예쁘다던데. 다음 주에는 벚꽃이 진다고 하더라고.

다인 : 그래? 그럼 영화는 만날 봤으니까, 벚꽃 놀이 갈까?

일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동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은 상대와의 갈등이나 대립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동영상 시청 후 모둠별로 동영상 속 인물의 말하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동영상에 제시된 대안적 말하기 표현에서 활용된 배려하는 말하기의 원리를 탐구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자기중심적 말하기에 대해 학생들이 대답을 할 때 갑을 관계에만 초점을 두게 하지 말고, 공손성의 원리에 따라 상대의 부담을 지우는 정도를 고려해서 배려의 정도를 따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령 ‘죄송하지만’ 같이 관습적으로 붙이는 말도, 자신에게 부담을 지우고 상대의 부담을 덜게 되는 표현이 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관계나 상황을 인식하고, 언어가 자신의 인식과 인격을 드러내는 것임에 유의하며 언어표현에 더 주목하게 한다.

- (광고를 보여주면서) 왜 이런 광고가 생겨난 것일까요?
- 요즘에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이른바 갑질하는 말하기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광고에서도 보듯이 상대를 배려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자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 다음에 보여 줄 영상에서는 이렇게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가 왜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지 잘 살피면서 집중해서 보세요.

매월 25일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들려주세요 !!

“내 이름을 불러줘”

주문할 때!

햄버거 한 개(무뚝뚝하게) ----- 50% 할증

햄버거 한 개 ----- 할인 없음

햄버거 한 개 주세요 ----- 20% 할인

안녕하세요? OO씨
맛있는 햄버거 한 개 주세요.

50% 할인



영상 자료

당신의 10초는 어떤가요?



장면 1 : 편의점 직원이 온라인 의류업체로부터 반품과 관련된 전화를 받는다.

편의점 직원 : 네. 여보세요. 화장품요? 아, 입은 적 없는데.

의류업체 직원 : 죄송한데, 화장품이 묻어 있어서 반품이 안 되세요.

편의점 직원 : 알아서 빨면 되잖아. 됐고.

의류업체 직원 : 아 근데 반품 유의 사항에 써 있듯이……

편의점 직원 : 아, 저 그거.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장면 2 : 편의점 직원에게 물건을 산 손님은 거스름돈을 잘못 받게 된다.

편의점 손님 : 거스름돈 잘못 주셨는데. 계산원이 계산을 못해. 짜증나게. 영수증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편의점 직원 : 죄송합니다.

장면 3 : 다시 원래의 장면으로 되돌아가 새로운 대화가 시작된다.

편의점 직원 : 여보세요. 화장품요?

의류업체 직원 : 죄송한데, 반품이 안 되세요. 화장품이.

편의점 직원 : 아. 어쩔 수 없죠. 네. 수고하세요.

편의점 손님 : 거스름돈 잘못 주셨는데, 많이 힘드신가 봐요. 수고하세요.

편의점 직원 : 감사합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공모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순수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작>

- 동영상에 나오는 대화에서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과, 반대로 배려하는 말하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서 활동지에 적어보세요.
- 자기중심적 말하기와 배려하는 말하기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며 찾아보세요. 기본적으로 상대의 입장, 처지, 기분, 감정을 고려한 말하기인가, 아닌가에 따라 같은 상황에서도 표현은 매우 달라지지요.



수업 돋보기

학생들은 '알아서 빨라는 것은 자신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반면 "어쩔 수 없죠."는 책임을 묻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아량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것은 편의점 직원의 실수를 마치 큰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많이 힘드신가요."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해 주어 실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여러분 자신의 말하기는 어떤가요? 속으로 한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참고 자료

· 박창균(2016), 배려의 소통적 자질 탐구, 새국어교육 108, pp. 89-113.

: 이 연구는 의사소통론적 관점에서 배려의 의미를 고찰하고, 대화에서 실현되는 배려의 자질을 탐구한 것이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개별 활동으로 배려하는 말하기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린 후 학습지에 자신이 들은 말과 그 때의 감정을 정리한다.
- 개별 활동 후 모둠에서 내용을 공유하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정리한다.
- 모둠 활동 후 모둠 내에서 비슷한 사례로 꼽힌 경우를 전체 발표를 통해 공유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반 친구와 있었던 경험일 경우 기록을 망설일 수 있으므로, 실명을 얘기하지 않고 기록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한다.
- 사적인 경험과 관련된 내용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개별 활동 시 순회 지도를 하면서 상황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예시를 들어준다.

-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의 경험에서 배려하는 말하기와 관련된 예를 찾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최근에 학교에서, 집에서, 상점에서,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의 장면과 그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 먼저 나의 입장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을 들었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잘 떠오르지 않으면, 기분이 나빴거나, 뭔가 마음이 불편했던 것과 같이 부정적인 기분이 들게 했던 장면을 생각해 봐요.
- 다음에는 내가 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이나, 뭔가 힘든 상황에서 내 입장이나 감정을 배려하는 말을 들었던 경우를 떠올려 보세요. 마찬가지로 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떤 말을 듣고 마음이 편안해지거나, 기분이 풀렸다거나 좋아졌던 장면을 생각해 봐요.
- 모두의 친구들한테 돌아가면서 자기 경험을 얘기해 봅시다. 모둠원들 사이에서 비슷했던 경험이 있다면, 발표할 수 있도록 모둠별 서기는 따로 정리해 두세요.
- 혹시 조금은 부끄럽지만, '최근에 나도 이런 말을 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한 경우가 있나요? 친구들과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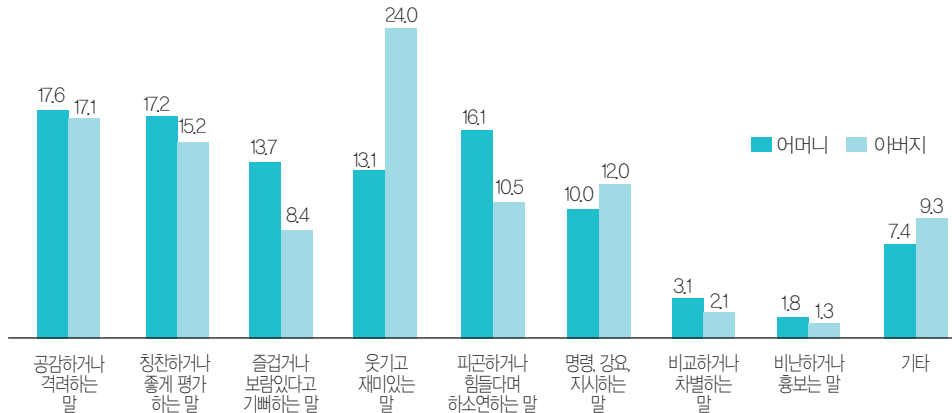
수업 돋보기

- 혹시 전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방송이나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끼리 나는 대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경우를 떠올려보게 한다. 또는 자신이 타인에게 한 말에 대해서 써도 무방함을 알린다.
- 모둠별로 발표를 하게 한다. 말하기 상황별로 분류하며 칠판에 배려하는 표현과 배려하지 않는 표현을 중심으로 사례를 적는다. 발표 후에는 용기를 내어 준 것을 칭찬해 준다.

참고 자료

국립국어원 <2016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가운데,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주로 듣는 말에 대한 응답 결과를 참고로 제시한다. 활동 2에서 청소년들이 듣는 말은 이 응답 결과에 나타나는 현상을 일부 포함할 것이다.

〈부모가 가정에서 하는 말〉



청소년들은 어머니가 가정에서 하는 말로 ‘공감하거나 격려하는 말’에 17.6%, ‘칭찬하거나 좋게 평가하는 말’에 17.2%의 비율로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피곤하거나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말’에 16.1%의 비율로 응답했으며, ‘즐겁거나 보람있다고 기뻐하는 말’이 13.7%를, ‘웃기고 재미있는 말’이 13.1%를, ‘명령, 강요, 지시하는 말’이 10%를 차지했다.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말’과 ‘비난하거나 홍보는 말’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3.1%, 1.8%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타는 7.4%로 나타났다.

한편 아버지가 가정에서 하는 말로 ‘웃기고 재미있는 말’이 24%의 비율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공감하거나 격려하는 말’이 17.1%, ‘칭찬하거나 좋게 평가하는 말’이 15.2%를 차지했다. ‘피곤하거나 힘들다며 하소연하는 말’은 10.5%를, ‘명령, 강요, 지시하는 말’은 12%를, ‘즐겁거나 보람있다고 기뻐하는 말’은 8.4%를 차지했다. ‘비교하거나 차별하는 말’과 ‘비난하거나 홍보는 말’에 대한 응답률은 각각 2.1%, 1.3%로 낮게 나타났다.

정리

타인의 말하기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말하기에 대해 성찰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전개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예를 떠올리며, 솔직하게 답하게 한다.
-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함께 살고 있는 남자 어른, 여자 어른과의 대화를 생각하며 응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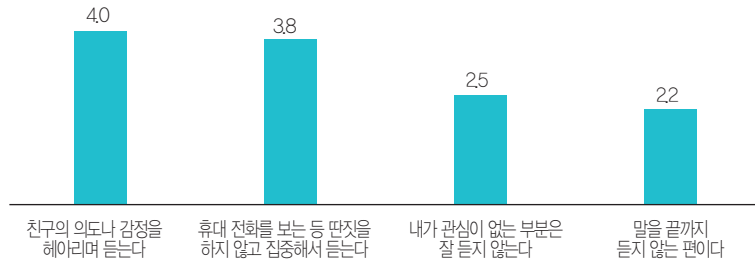
■ 활동 방법

개별적으로 활동지에 있는 질문을 읽고 5점 척도 내에서 응답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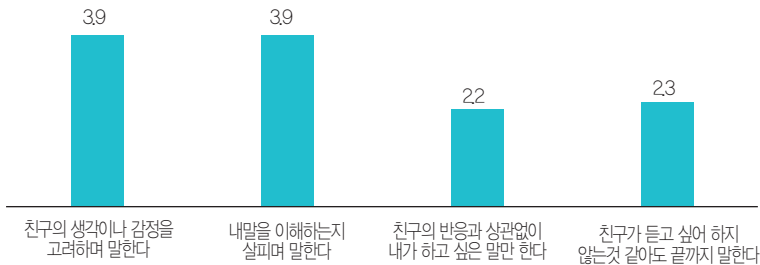
- 이번에는 여러분 자신이 말을 하고 듣는 태도를 점검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친구와의 대화, 어머니,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자신이 어떻게 말을 하고 듣고 있는지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 말하기 방식과 견주어 보며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 결국 말이란 이미 있어온 상대방과 나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애초에 말을 함부로 하거나,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 관계가 나빠진 경우가 대부분이죠. 오늘 집에 돌아가면 여기에서 배운 것에 대해 부모님과 함께 얘기하며 서로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
-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소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참고 자료

정리 단계에서 활용한 문항은 〈2016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를 편집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가운데 3000명을 표집하여 설문 조사 및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정리 단계에서 활용한 문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문항의 결과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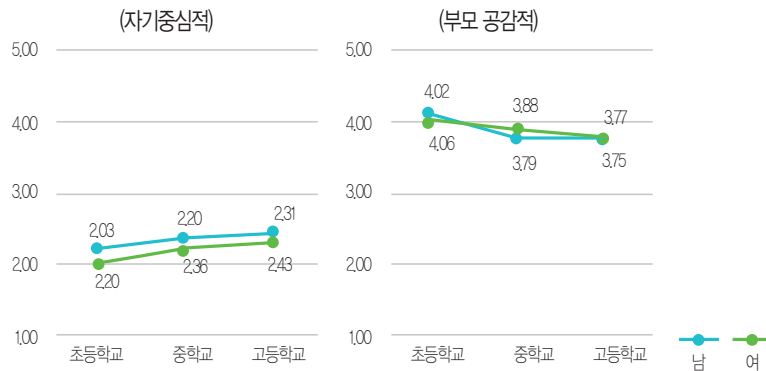


〈친구가 하는 말에 대한 듣기 태도〉



〈친구에게 말하는 태도〉

청소년들의 공감적인 말하기/듣기 태도는 5점 척도에서 3.8~4.0 정도로 '대체로' 공감적으로 말하고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자기중심적 대화 태도와 공감적 대화 태도의 추이〉

부모와의 공감적 대화 태도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자기중심적으로 대화하고, 공감적으로 대화하는 정도가 낮아짐을 보여준다. 따라서 중1은 점차적으로 부모와 소통의 어려움이 심화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1차시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배려하는 말하기

※ 다음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말'과 관련된 속담을 보고 생각해 봅시다.

(1) 각 속담의 뜻을 생각해보며, 비슷한 뜻을 가진 속담을 짝지어 보세요.

(①-㉠ ②-㉡ ③-㉢)

① 웃느라 한 말이 초상난다	●	●	㉠ 실없는 말이 송사 간다
②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	㉡ 말은 할 탓이다
③ 말이란 아해 다르고 어해 다르다	●	●	㉢ 말이 고마우면 비지 시러 갔다 두부 사온다

(2) 위의 속담에는 말에 대한 어떤 삶의 지혜가 담겨 있나요?

고운 말을 써야 해요 / 말을 할 때 조심해서 해야 해요 /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나에 따라 다르게 전달되어야요.

2. 동영상을 보고 아래 표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쓰세요.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말하기 (자기중심적인 말하기)	상대의 처지와 감정을 고려한 말하기 (배려하는 말하기)
반말하기 / 알아서 빨면 되잖아 계산원이 계산을 못해 / 짜증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야	죄송한데 / 어쩔 수 없죠. 많이 힘드신가 봐요 /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3. 자신이 최근에 학교에서, 집에서, 상점에서,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했을 때의 장면과 그 때의 감정을 떠올려 보세요. 그 말이 나의 입장이나 감정을 배려한 말인지 생각하고, 아래 표를 작성해 봅시다.

(1) 나의 입장이나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말

※ 친구와 싸웠던 일,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친구가 기분 나빠했던 일, 친구는 장난으로 놀렸지만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 선생님께 혼났던 일, 엄마의 잔소리를 들었던 일 등을 떠올리며 활동지에 기록한다.

㉠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나요?	(축구 시합에서 내가 실수를 했을 때) 너 그만 식으로 할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지면 너 책임질 거야? 똑바로 좀 해.
㉡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내 기분이 어떠했나요?	실수를 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내 잘못을 꼭 집어 질책하고 무안을 주어서 오히려 화가 났다.
㉢	그 말에서 나의 입장과 감정을 배려하지 않은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만 식, 너 때문에, 똑바로, (내 행동을 비난하는 말)

(2) 나의 입장이거나 감정을 배려한 말

※ 친구와의 오해가 풀린 일, 실수를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주었던 일, 속상했을 때 위로를 받았던 일, 조심스럽게 부탁을 받은 일 등을 떠올리며 활동지에 기록한다.

㉠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들었나요?	(학교에서 시험 망쳐서 얼굴이 굳어 있는 걸 보고 엄마가) 이번 시험 준비 정말 많이 했는데, 진짜 속상했겠다. 엄마는 네가 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뻐했어.
㉡	그 말을 들었을 때의 내 기분이 어떠했나요?	결과는 안 좋았지만, 엄마가 열심히 공부한 걸 칭찬해 주어서 기분이 좋았다.
㉢	그 말에서 나의 입장과 감정을 배려한 표현은 무엇인가요?	진짜 속상했겠다. 이번 시험 정말 준비 많이 했는데 정말 기뻐했어. (내 기분을 이해해 주는 말, 내가 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4. 다음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며, 자신이 말하거나 듣는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1) 평소 친구와 대화할 때 자신의 말하거나 듣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친구의 의도나 감정을 헤아리며 듣는다.	→	①	②	③	④	⑤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잘 듣지 않는다.	→	①	②	③	④	⑤
친구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하며 말한다.	→	①	②	③	④	⑤
친구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	①	②	③	④	⑤

(2) 평소 어머니와 대화할 때 자신의 말하거나 듣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어머니의 의도나 감정을 헤아리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잘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어머니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하며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	어머니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평소 아버지와 대화할 때 자신의 말하거나 듣는 태도는 어떠한가요?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아버지의 의도나 감정을 헤아리며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	내가 관심이 없는 부분은 잘 듣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	아버지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하며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	아버지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	①	②	③	④	⑤

2차시

■ 이 시간에는

특히 친밀한 사이인 친구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문제가 생길 때, 공감적 대화의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 시간에 학생들이 문제 해결의 원리로 학습하게 되는 것은 ‘공감적 경청의 원리’와 ‘나 전달법의 원리’이다. 이를 지식적인 측면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접하게 한다. 그리하여 원리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감과 소통의 정신을 느끼게 한다.

■ 학습 목표

- 가. 소통 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함을 이해한다.
- 나. 공감적 경청의 원리를 알고 수행한다.
- 다. ‘나 전달법’의 원리를 알고 수행한다.

■ 준비물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순수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작’ 동영상, 학습지

도입

■ 활동 방법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 시청 후 동영상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대표 학생 두 명을 선발하여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소통이 안 될 때의 어려움과 답답한 기분을 느끼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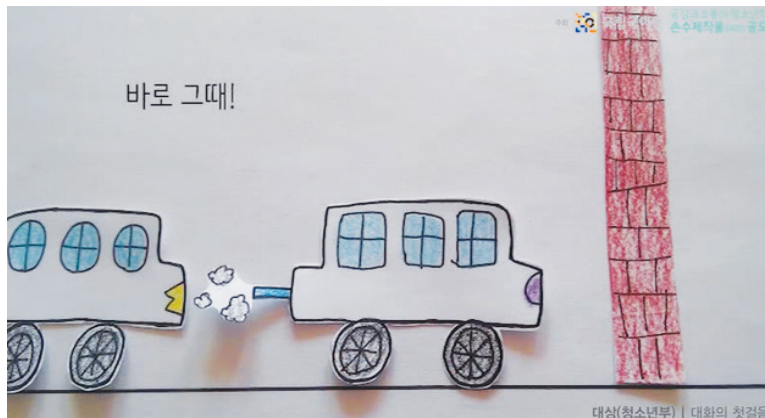
- 다음 영상은 소통이 잘 안 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 친구, 어머니, 아버지와 공감적 말하기와 듣기가 잘 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활동을 하였는데, 그 때 상대적으로 잘 되지 않았던 이와의 대화 경험을 떠올리면서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그림이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상황을 자신의 경험과 연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전 시간 정리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공감적 말하기/듣기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던 대상과의 대화를 떠올리며 동영상상을 시청하게 한다.
- 동영상상을 다 본 후 대표 학생 두 명을 선발하여 서로 등을 지고 서 있게 한다. 그리고 한 명에게만 교사가 일련의 동작을 보여 주고, 그 학생은 등을 대고 서 있는 다른 학생에게 교사의 동작을 따라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이때 뒤를 돌아보면 안 되며, 말로만 설명해야 하고 듣는 학생은 질문할 수 없다.

영상 자료

대화의 첫 걸음



쌩쌩 달리고 있는 차

갑자기 장벽에 막힌다면 어떻게 될까요?

??? 안돼!!

꿈쩍 못하는 운전자들은 정말 답답하겠죠?

바로 그때! 서서히 열리는 장벽……

이제야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차는 [대화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이고, 장벽은 [여러분의 귀와 마음] 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답답해] 하고, 여러분의 귀와 마음은 [닫혀] 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열리는] 장벽 [여러분의 귀와 마음] 도 서서히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열기] 대화의 [첫걸음] 입니다. 이제 [시작]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해야 할 것은 바로 [경청] 입니다.

*출처 : 국립국어원 공모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순수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작>

- 이 영상에서 대화의 첫걸음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내 말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의 말을 잘 듣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의하나요? 그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경청이 왜 중요한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해요.
- 두 친구가 앞으로 나와 볼까요? 이 두 친구가 시범을 하나 보일 겁니다. 두 사람은 등을 맞대고 서 보세요. 선생님이 한 친구한테만 동작을 알려 줄 겁니다. 이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말로만 이 동작을 설명하여 따라 할 수 있게 해야 해요. 잠깐! 등을 맞댄 친구를 돌아보면 안 돼요! 말로만 설명해야 합니다. 듣는 친구도 말로만 듣고 따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따라 해 본 후) 해 보니 어떨까요? 답답하였나요? 질문하고 싶고, 눈을 마주치고 설명해 주고 싶었지요?
- 아마 이 친구들이 대화를 자유로이 할 수 있었다면 참 간단한 동작이었을 텐데 참 어렵게 했지요. 사실 의사소통이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대부분 쉽게 해내고 있지요. 아까 두 친구들처럼 서로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상대를 고려하며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겨 힘들어질 경우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 보겠습니다.

전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감적 대화의 원리를 익힌다.

■ 전개 활동의 흐름

이렇게 해 보세요.

- 처음부터 대화의 원리를 연역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사례를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더 나은 말하기 원리를 스스로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 실제 대화 상황에서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겪는 문제 상황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활동에 제시된 사례의 인물을 의도적으로 중성적인 이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특정 성별에 치우쳐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활동 1),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 말하기 원리의 가치를 평가한다(활동 2).

■ 지식 갈무리

공감적 경청

상대의 메시지를 사실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듣고 정서적으로 공감하며 메시지를 수용하는 것이 공감적 경청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자의 입장에서 경청하며 듣고, 다시 화자로서 공감을 드러내는 적극적인 듣기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해당 차시에서는 메시지를 사실적으로는 이해했지만 정서적으로 공감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대화 상황이 갈등으로 종결되는 경우를 문제적 사례로 들고 있다. 공감적 경청의 원리를 배움으로써 제시된 사례가 왜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공감적 경청의 네 단계

1단계 : 상대방의 말을 판단 없이, 충고 없이, 평가 없이 듣고 그 내용을 수용한다.

2단계 : 상대방의 말 속에서 감정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3단계 :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재구성한다.

4단계 : 재구성한 의미와 감정을 함께 되돌려 준다.

나 전달법(I-message)

내가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고 있는지 상대에게 진실하게 전달하는 의사소통 방법이다. 나 전달법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혹은 평가의 의미를 전하는 너 전달법(you-message)과 대비된다. 너 전달법에는 강요하고 지시하고 명령하는 말(~해), 경고 위협하는 말(이거 안하면 너~) 외에도 당부, 설교하고 도덕적 행동을 요구하는 말(벌써 중학생인데, 너도 ~해야지), 충고하거나 이론적으로 설득하는 말투(~해야 하는 거야), 평가, 비난, 우롱하는 말투(넌 중학생이나 되어 가지고 아직도~), 탐색 질문 및 심리 분석의 말(너 ~거지?), 비교하기(너는 ~보다) 등이 있다.

나 전달법의 3단계

1단계 [상대방의 자극적인 행동/상황] : 자신에게 오는 상대방의 자극이나 행동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말한다. 감정을 섞지 않고 그 상황에 대해서만 말한다.

2단계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결과] : 상대방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 내 감정의 이유를 진술한다.

3단계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 :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자신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한 감정이나 느낌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예)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때 네가 옆에서 떠들면[행동]

나는 정말 짜증이 나.[감정]

왜냐하면 내용이 어려운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어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구체적 영향]

나 전달법은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해 나갈 때 유용하게 활용된다. 갈등 상황에서 위협하거나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더 잘 경청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성격을 지적하지 않기에 갈등 대화에서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나 전달법의 종류

- 긍정적 나 전달법 : 상대의 행동에 대하여 나의 좋은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기술이다.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예) “네가 인사하는 걸 보니 기분이 좋구나!”

- 예방적 나 전달법 :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예상이 되거나 걱정이 될 때 사용할 수 있다.

예) “엄마가 내일 너랑 쇼핑 갈 텐데 걱정이 돼.[감정]

쇼핑하는 도중에 네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게 되면,[행동]

엄마가 시장을 다 보지 못하고 오게 될까봐.[영향]”

- 직면적 나 전달법 :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주로 아랫사람이나 친구들 간에 사용한다.

예) “내가 네게 말할 때 네가 대답하지 않거나 쳐다보지 않으면 기분이 상해.”

- 개방적 나 전달법 : 상대방의 행동과 관계없이 나의 감정을 알려주는 것이다.

예) “엄마는 초록색이 좋아.[감정]

왜냐하면 초록색을 보면 숲이 생각나고[행동]

편안한 마음이 되거든.[영향]”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친구 사이에서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친구 간의 갈등을 낳게 되는 상황을 두 시나리오를 통해 접하고, 모둠 활동을 통해 두 친구의 상황, 각 친구의 마음, 갈등을 낳게 되는 과정을 탐구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인물의 대사뿐만 아니라 지문에 제시된 비언어적, 반언어적인 표현에 주목하여 인물의 마음을 헤아리며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시나리오의 상황을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공감적 경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말하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주목한다.

– 우리는 살아가면서 친구, 가족, 이웃, 선생님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언성을 높이거나,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기도 하고, 생

- 각 없이 한 말로 상처를 주거나 받게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이 있나요?
- 학습지에 있는 두 대화에서는 두 친구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이 두 친구가 왜 갈등을 빚게 되었는지 두 친구의 대화에 주목하며 학습지의 질문에 답해 보세요.
 - 장면 1에서 민서는 병원에 가보라는 다빈이의 말에 화를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화를 내는 걸까요?
 - 이번에는 장면 2를 살펴봅시다. 장면 2에서 한솔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 한솔이는 준하에게 화를 내고 있어요. 한솔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준하는 그냥 한솔이 상황을 해결해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한솔이가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다빈이와 준하가 친구 마음을 몰라주었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다고 한솔이나 민서가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네요. 분명 두 친구의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공감적으로 대화하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예요. 배운 후에 이 두 친구가 어떻게 대화를 했으면 더 좋았을지 생각해 볼 거예요.

참고 자료

- 구현정(2013), 「소통 불통 먹통: 대화에도 기술이 있다!」, 경진.
- 대화에 작용하는 요소, 대화를 어렵게 하는 말하기 방식,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며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례가 제시되어 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모둠 활동에서 ‘공감적 경청’과 ‘나 전달법’의 원리가 적용된 예를 통해, 그러한 말하기의 효과를 귀납적으로 탐구한 뒤에,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사가 두 말하기 원리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 학생들 중에는 감정을 읽어 주거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실질적인 조언을 주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을 때는 그러한 의견에 반박하지 말고 그러한 조언이 효과가 있으려면 일단 대화 상대자 간의 감정의 교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어야 함을 알려 준다.

이렇게 해 보세요.

- 공감적 경청을 위한 듣기와 말하기를 설명한다. 지영이와 친구와의 대화를 예로 들어 공감적 경청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설명한다.
- 활동지에 있는 예의 상황을 활용하여 공감적으로 경청하며 반응하는 연습을 한다.

- 지난 시간에 “말은 할 탓”이라는 속담을 배웠지요. 그런 속담처럼 의미는 비슷해도 말하는 방식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탐구해 보려고 해요. 앞에서 민서와 다빈이, 한솔이와 준하의 말이 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이 잘 얘기해 주었는데, 그것을 표현에 주목하면서 더 깊이 따져 보는 활동입니다.
- 첫 번째 예는 자신의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는 상황입니다. 지영이의 마음과 친구의 마음을 잘 헤아려 대화해 봅시다.

친구가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는 상황

지영 :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친구① :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

친구② : 부모님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많이 신경 쓰이나 보다. 네 생각에는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 것 같니?

수업 돋보기

학생들이 예문의 내용(인물의 마음) 그 자체보다,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세심하게 주목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귀납적으로 공감적 경청의 원리와 나 전달법, 그 효과를 귀납적으로 분석하게 한다.

- 지영이가 친구①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지영이가 친구②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렇게 다른 기분이 들게 할까요? ①과 ②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요?
- 네. 잘 말해 주었어요. 우리는 갈등의 상황이든, 고민을 말하는 상황이든 일단 상대의 입장과 감정을 먼저 헤아리며 듣고, 또 그것을 청자로서 자신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알리면서 대화를 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공감적 경청을 하려면 어떻게 듣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워 볼까요?

부모님과 갈등 상황

진영 : 왜 또 내 옷 갖고 그래. 제발 좀 그만 해.

엄마① : 그러게 엄마 말대로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옷이 그게 뭐니. 남부끄럽게.

엄마② : 옷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정말 싫은가 보구나. 나는 그냥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흉볼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자꾸 말하게 되네.

수업 돋보기

이때 이전에 제시했던 학습지의 상황을 예로 나 전달법을 설명할 수 있다.

- 학습지에 있는 두 번째 예는 진영이의 단정하지 않은 옷차림을 두고 엄마와 진영이가 대화하는 예입니다. 진영이가 엄마①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진영이가 엄마②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다른 기분이 들게 할까요? ①과 ②의 표현이 어떻게 다른가요?
- 네. 모두들 잘 대답해 주었어요. 여러분도 들어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거나, 뭔가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는 상대를 비난하거나 상대에게 책임을 따지는 ‘너 전달법’이 아닌 문제의 상황이 무엇인지 그대로 말하면서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나 전달법’으로 말할 때 그 문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어요.

- ‘나 전달법’은 “네가 …하면 (행동 서술), 나는 …라고 느낀다(느낌 서술). 왜냐하면(결과 서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 그러면 한번 ‘나 전달법’을 연습해 볼까요? 활동지의 예시 상황에서 ‘나 전달법’으로 말해 보세요.

참고 자료

· 유튜브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RWrnX7w0hmQ>)

: 자퇴하려는 아들과 아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엄마의 대화를 보여 준다. 아들은 자퇴하고 싶다는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한다. 하지만 엄마는 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읽어 주며 대화를 이어 간다. 결국 아들은 깊은 속마음을 드러내고, 엄마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된다. 공감적 경청의 힘을 보여 주는 예시이다.

정리

‘공감적 경청’의 원리와 ‘나 전달법’을 구체적인 상황(활동 1에 제시된 민서와 다빈이, 한솔이와 준하의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 활동 방법

- 두 명씩 짝을 지어 각각 민서와 다빈이, 또는 한솔이와 준하의 대화 중 하나를 선택해 대화의 내용을 ‘공감적 경청’과 ‘나 전달법’의 원리에 따라 새롭게 각색한다.
- 작성 후 각각 두 명 정도의 학생이 각색한 내용을 발표하게 하며, 전체 학생들과 함께 ‘공감적 경청’의 원리와 ‘나 전달법’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탐구한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민수와 한솔이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이 대화가 친구 간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전체 토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사례로 제시된 친구 간의 대화 부분 중 어느 부분에서부터 대화를 바꾸어 나가도 괜찮지만 대화를 바꾼 마지막 지점에서 서로의 감정을 충분히 교류하여 공감적으로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이 활동에는 정답이 없으며, '공감적 경청'이나 '나 전달법'이 하나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앞에서 민서와 다빈이의 다툼, 한솔이와 준하의 갈등으로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해요. 우리는 둘이 왜 다투게 되었는지, 어떤 말이 문제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럼 이제는 공감적 대화의 원리를 고려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다시 재구성하려고 해요. 짝꿍과 함께 두 상황 중 하나의 상황을 선택해 공감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게 써 봅시다. 처음부터 공감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도 되고, 갈등 후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방식으로 써도 무방해요.
- 다 썼으면 발표를 해 볼까요? 다른 사람들은 재구성된 대화문에서 어떻게 공감적 대화의 원리가 활용되고 있는지 생각하며 경청하도록 해요.
- 발표를 잘 들었죠? 두 사람의 대화가 완전히 달라졌네요.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나요?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했나요?
- 자. 그럼 오늘 공감적 대화의 여러 원리를 배웠는데, 우리가 공감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까요?
- 그럼 이제 각자 자신의 활동지에 공감적 대화의 원리,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나만의 의미 사전을 만들어 보아요. 활동지의 빈 칸에 자신의 생각을 적으면 됩니다. 비유도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주제: 공감과 소통의 대화

※ 다음 글을 읽고 활동해 봅시다.

1. 다음은 친구들의 대화입니다. 역할을 나누어 상황극을 해 보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장면 1: 친구가 아플 때

민서가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있다. 친구 다빈이가 그것을 보고 다가간다.

다빈 : (걱정스런 말투로) 민서야 괜찮아? 많이 아프니?

민서 : (몸을 일으키며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아.

다빈 : (민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내가 약 사다줄까? 병원 갈래? 내가 같이 가 줄까?

민서 : 괜찮아.

다빈 : (강한 목소리로) 아프면 병원 가자. 내가 대신 말해준다니까.

민서 :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말투로) 아니. 괜찮아.

다빈 : (강한 목소리로)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

민서 : (짜증을 내며) 난 싫다구. 날 내버려 두라구. 왜 이렇게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다빈 : 네 생각해서 말해준 건데, 대신 말도 해 준다는데, 왜 나한테 짜증을 내.

장면 2: 친구가 속상해할 때

한솔이는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자기만 따돌린 것 같아 크게 실망을 하고 준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솔 :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해 주는 거야.

준하 : 글썸. 개가 왜 그랬을까?

한솔 : 그러게 말이야. 개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준하 : 개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한솔 : 사정? 야, 사정은 무슨 사정이 있겠어? 자기 혼자 잘난 맛에 그런 거겠지. 생각해 보니 그 동안 날 은근히 무시했던 것 같아.

준하 : 쉽게 단정하지 말고. 그냥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

한솔 : 야, 그게 아니지. 그런데 너 자꾸 이럴 거야? 도대체 왜 개 편만 드는 거야?

(1) 장면 1에서 민서는 병원에 가 보라는 다빈이의 말에 화를 냅니다.

① 민서는 왜 화가 났을까요?

민서는 아파서 병원에 갈 마음이 없어 '괜찮다'고 했는데, 다빈이가 자신의 상태를 마음대로 판단해서 병원에 가라고 하는 것 같아서.

② 민서가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 안 됨) 다빈이가 걱정되는 마음에 이것저것 물어면서 제안을 한 건데, 그걸 무시하고 화를 내는 것은 지나친 반응 같다.

(이해 됨) 다빈이가 민서에게 묻는 식으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강요하는 어조였고, 또 병원에 안 간다는 민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민서에게는 강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

(2) 장면 2에서 한솔이는 준하에게 화를 냅니다.

① 한솔이는 왜 화가 났을까요?

준하가 자기 마음은 이해해 주지 않고, 왜 그랬는지 이유만 따지고 있어서.
준하가 그 친구의 편만 들고 있는 것 같아서.

② 한솔이가 화를 내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해가 됨) 한솔이는 지금 자기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받고 싶어하는데 준하는 다른 얘기만 하고 있으니 속상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됨) 준하는 두 친구 사이에 오해가 생길까 걱정하는 마음에 이유를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 한솔이가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준하가 친구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2. 다음 지영이의 감정을 헤아리며 대화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친구와 고민 대화 상황

지영 : 부모님이 나한테 너무 관심이 많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친구① : 부모님 입장에서 생각해 봐.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게 아닐까?

친구② : 부모님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 많이 신경 쓰이나 보다. 네 생각에는 부모님이 왜 그러시는 것 같니?

(1) 지영이가 친구①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내 마음은 신경 안 쓰고 부모님 마음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괜히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2) 지영이가 친구②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풀릴 것 같아요.

친구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고민을 더 솔직하게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3) ①과 ②의 어떤 표현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올까요?

①은 부모님의 입장에서, ②는 지영이의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있어요.

①은 바로 충고를 하려 들지만, ②는 같이 문제를 이해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4) 민수와 서윤이가 하는 말을 듣고, 친구로서 민수와 서윤이의 감정을 읽어 주는 반응을 해 봅시다.

[연습1]

민수 : 이번에는 수학 시험을 잘 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그런데 오늘 성적표 받아 보니 지난번보다 성적이 더 안 좋아.

친구 : (예시) 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더 나빠졌다면 정말 힘 빠지겠다.

[연습2]

서운 : 선생님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아. 이번에도 숙제 안 낸 애들이 많았는데, 나만 더 크게 혼내시더라구.

친구 : (예시) 너만 미움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상당히 억울하겠구나. 더구나 애들도 많이 있는 곳에서 혼났으니 더 속상했겠다.

3. 다음에서 진영이의 감정을 헤아리며 대화문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부모님과과의 갈등 상황

진영 : 왜 또 내 옷 갖고 그래. 제발 좀 그만 해.

엄마① : 그러게 엄마 말대로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옷이 그게 뭐니. 남부끄럽게.

엄마② : 옷에 대해 얘기하는 게 정말 싫은가 보구나. 나는 그냥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흉볼까 걱정이 되는 마음에 자꾸 말하게 되네.

(1) 진영이는 엄마①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자기를 비난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자기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속상할 것 같아요.

(2) 진영이가 엄마②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왜 그런 기분이 들었을까요?

엄마가 자기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자꾸 잔소리를 하는지 알게 되어, 엄마의 말을 더 귀담아 듣고 싶을 것 같아요.

3) ①과 ②의 어떤 표현이 이러한 차이를 가져올까요?

①은 '나의 옷차림'에 대해 비난하는 말만 있지만, ②는 엄마의 잔소리가 싫은 진영이의 마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①과 달리 ②에는 엄마가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와 엄마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4) '나 전달법'을 연습해 봅시다.

[연습1]

같은 반의 지호가 함께 청소 당번인데, 지호가 청소를 하지 않은 채 게임에만 빠져 있다.

나: (예시) 청소할 게 많은데 네가 같은 당번이면서 게임만 하고 청소는 안하니깐, 나도 할 마음이 안 생기고 더 힘들게 느껴져. 게임은 청소 끝내고 하고 지금 같이 하면 좋겠어.

[연습2]

같은 방을 쓰고 있는 동생이 가방과 책을 바닥에 어지럽게 늘어놓았다.

나: (예시) 이렇게 네 짐을 바닥에 잔뜩 어지럽혀 놓아서 방에만 들어오면 나도 정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 한방을 공평하게 같이 써야 하는데 내 짐을 놓을 곳도 없어지니 화도 나고, 네 가방이랑 책을 꼭 제자리에 두면 좋잖아.

4. '공감적 경청'의 원리와 '나 전달법'의 원리에 따라 앞에서 '민서와 다빈이', '한솔이와 준하'의 대화 중 하나를 모둠원들과 함께 바꾸어 봅시다.

(대화의 내용은 처음 부분부터 바꾸어도 되고, 화를 내는 부분 이후부터 화해를 해 나가는 대화로 바꾸어도 됩니다.)

〈예시1 - 반영적 경청이 이루어진 경우〉

민서가 교실 책상에 엎드려 있다. 친구 다빈이가 그것을 보고 다가간다.

다빈: (걱정스런 말투로) 민서야 괜찮아? 많이 아프니?

민서: (몸을 일으키며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아.

다빈 : (민서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목소리 보니 많이 힘든가 보다. 내가 약 사다 줄까? 병원 갈래?

민서 : 괜찮아.

다빈 : 너무 아파보여서 얘기했는데, 병원 갈 힘도 없나 보네. 많이 힘들겠다. 내가 보건실 가서 약이라도 받아올까?

민서 : (몸을 움직이는 것도 힘든 말투로) 아니. 괜찮아. 아마 내가 가지 않으면 주지 않으실 거야. 그래도 생각해 주어서 고마워.

다빈 : 그래. 움직일 힘 생기면 얘기해 줘. 보건실까지 같이 가 줄게.

〈예시2 - 나 전달법이 이루어진 경우〉

(한솔이는 기분이 몹시 안 좋다.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자기만 따돌린 것 같아 크게 실망을 하고 준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다.

한솔 :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나한테는 말도 안 해 주는 거야.

준하 : 글썄. 개가 왜 그랬을까?

한솔 : 그러게 말이야. 개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준하 : 개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한솔 : 사정? 아, 사정은 무슨 사정이 있겠어? 네가 자꾸 무슨 사정이 있겠지라고 말하니까 네가 개 편드는 것 같이 느껴져. 그렇게 말하면 내가 더 속상하지.

준하 : 아. 미안해. 나는 너희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말했는데, 네 기분을 더 안 좋게 한 것 같아. 아무튼 너는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너한테만 얘기 안해 줬으니 마음이 상했겠다.

한솔 : 사실은 나도 너가 말 한 대로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기도 했어.

5. ‘공감적 대화’의 가치를 마음에 새기면서 공감적 대화에 대한 나만의 단어 사전을 만들어 봅시다.

공감적 대화란 _____ 것이다.

〈예시 답안〉

친구가 한 말을 잘 듣고, 친구의 입장에서 서서 하지 않은 말까지 헤아리며 대화하는 것.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 말을 하는 것. 그러면서 내 마음까지 전할 수 있는 것.

3. 매체로 소통해요

■ 이 단원은

학생들이 자신의 매체 사용 문화를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매체(media)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인쇄 매체나 텔레비전, 라디오와 같은 언론 매체, 그리고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등의 여러 형식이 합쳐진 복합전자매체(멀티미디어) 등을 총체적으로 이르는 개념이다. 정보화 시대 이전 매체들도 쌍방향적 소통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 양상이 다소 소극적이거나 느리게 이루어져 왔다면, 인터넷 기반의 통신 매체에서는 즉각적이고 빠른 소통과 사용자의 적극적 참여가 보장되고, 개인의 통신 매체에 대한 접근과 사용, 참여가 매우 일상화되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매체 사용의 윤리적 태도는 아직 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수업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맥락 속에서 사용자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매체, 즉 누리 소통망(서비스), 인터넷 게시물, 그리고 뉴스 등에 대한 댓글 등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언어문화와 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들이 디지털 매체 사용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인식과 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목표

- 가.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양상과 사용 태도를 분석한다.
- 나.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의 언어문화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 다.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 라. 바람직한 디지털 매체 언어 사용을 위한 올바른 언어문화의 사용 태도를 갖는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 태도를 성찰한다.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의 언어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리 소통망(서비스) 상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표기상 문제 파악하기 • 누리 소통망(서비스)나 댓글의 사용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를 살펴봄여 자신의 매체 언어 사용 태도 성찰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언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를 통해 마련한다.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를 통해 마련한다. • 바람직한 디지털 매체 언어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디지털 매체 언어 사용 태도를 갖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 맥락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하기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 맥락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 태도 인식하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인터넷 통신과 스마트폰은 청소년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문화적 도구가 되었다. 인터넷 검색부터 게임, 음악 감상, 그리고 누리 소통망(서비스)의 이용 등 새로운 정보 통신의 매체들은 그야말로 만능 도구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도구는 똑똑해졌으나,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는 그러하지 못하다는 우려가 많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의 문제이다. 아무리 똑똑한 도구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짜 똑똑한 도구가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매체 의사소통에서의 다양한 소통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양상을 탐색 및 분석하고 이에 대해 평가해 봄으로써, 매체 의사소통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언어적 문제 현상을 파악한다.

■ 학습 목표

가.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사용 양상을 분석한다.

나.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언어 사용 태도를 성찰한다.

다.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적 양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붙임쪽지, 모둠용 화이트보드, 지우개, 칠판 펜

도입

매체의 발달에 따라 언어의 사용 방식 또한 변화가 있음을 이해한다.

■ 활동 방법

- 자음의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낱말 문답을 통해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언어의 사용 형태, 의미적 특징 등을 생각해 본다. 이를 통해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양상을 파악하는 활동에 대한 동기를 유발한다.

- 자음의 초성으로만 이루어진 낱말을 보고 처음 떠오르는 낱말을 이야기해 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낱말들이 있을지에 대해 찾아본다. 왜 그 낱말이 생각났는지, 언제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면서 평소의 언어생활 습관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해 보세요.

초성 비속어로 사용하는 낱말의 경우 학생들이 자주 사용하지만 선뜻 그 뜻을 말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이를 강요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할 만큼 부끄럽거나 곤란한 뜻인지 등에 대하여 우회적으로 물어봄으로써 평소의 언어 습관에 대해 되돌아보도록 유도한다.

-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사소통에 대해 우리의 언어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선생님이 초성 문답을 하나 내 볼게요.

(칠판에 ㄷ초를 쓴다.)



수업 돋보기

ㄷ초의 초성을 가진 또 다른 단어로는 도착, 도치, 당첨, 덩치 등이 있다.

- 자, 이 단어를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를 모둠별 화이트보드에 적어보세요.
- 자, 다같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볼까요?
- ‘ㄷ초’에 대부분 ‘닥쳐’라고 적었군요. 하지만, ‘도착’이라고 적은 친구도 있네요.
- 이렇게 살펴보니 초성으로만 된 단어가 꼭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제일 먼저 ‘닥쳐’와 같은 말들을 떠올렸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평소 언어생활이나 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속의 우리 언어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살펴보기로 합시다.

전개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과 관련된 언어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신의 매체 언어 생활을 성찰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1차시의 활동들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성찰적으로 접근해 보는 활동이다.
- 활동 1은 매체 의사소통 맥락에서 사용되는 줄임말과 비속어 등의 언어 사용(또는 표기)상의 문제점을 점검한다.
- 활동 2는 댓글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 대화상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 문제를 통해 학생들이 지닌 매체 언어 사용의 태도를 점검한다. 이렇게 언어 사용의 바람직한 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2차시의 활동과 연계한다.

■ 지식 갈무리

• 디지털 매체의 개념

매체(媒體, media)란 어떤 의사나 사실을 전달하는 도구를 말한다. 특히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매체는 신문이나 책 등에서 실현할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의 생산과 수용 문화를 발전시켰다.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의 특징

- 익명성 : 말 그대로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으로 인해 권위에의 도전, 폭로 등이 가능하지만 무책임한 발언을 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디지털 매체 안에서 또 다른 정체성을 형성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희생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 비대면성 : 디지털 매체에서는 상대와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상대에 대한 실재감이 결여되어 상대를 비인격적 존재로 여기거나 텍스트상의 존재로 여기게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상대의 의도 파악이나 감정 변화 등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 시공간의 초월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빠르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상대의 빠른 반응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에 익숙해지거나 중독된 경우에는 메시지 확인 및 답변의 지연 등에 집착을 보이기도 한다.
- 구어의 문자화 :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서는 문자 표기를 구어처럼 하려는 특성이 있다. 또한 비대면의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이모티콘의 사용, 빠른 표기를 위한 줄임말의 사용 현상 등도 함께 나타난다.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활동을 하기 전 학생들을 모둠으로 구성하여 자리를 배치한다. 4인 1모둠으로 구성하고, 각 학생마다 번호를 매긴 후, 각 번호에 따라 맡은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수업 진행 시 해야 할 활동을 번호별로 부여함으로써, 한 사람에게 역할이 집중되거나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생각이나 의견은 모둠원이 같이 모으고, 발표나 기록 등 부담되지 않는 활동을 모둠원 개인에게 부여한다. 각 모둠에게는 화이트보드와 지우개, 칠판 펜, 붙임쪽지를 나누어 주어 이를 사용하게 한다.
- 모둠별로 활동지를 나누어주고, 대화의 내용을 풀어 보게 한다. 활동지를 다 풀고 난 후, 각 모둠별로 대화의 내용을 어떻게 풀이하였는지를 발표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의 언어 활동과 매체 언어 활동의 차이점을 생각해 본다. 특히 매체 언어 활동에서의 특징과 문제점을 인식하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매체 의사소통이 무조건 부정적 측면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언어가 갖는 사회성과 창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다만 비속어나 과도한 줄임말, 은어, 언어폭력 등 언어문화를 해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좀 더 방점을 두어 생각해 보도록 안내한다.

-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활동지를 봅시다. 1쪽에 우리가 평소 친구들과 누리 소통망(서비스)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이 대화 내용을 보고, 활동지 뒷면의 활동들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화 내용을 한번 읽어 봅시다.
- 모듬의 1번 학생이 활동지 1쪽의 대화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 주세요.
- 소리 내어 읽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누리 소통망(서비스)는 말로 하는 대화는 아니지만, 마치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대화를 하고자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 우리가 글을 쓰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 자, 그럼 이제 2번 활동을 해 봅시다. 모듬의 2번 학생이 활동지에 풀이를 적어 보세요. 어떻게 풀이해야 할지 모듬원끼리 함께 상의하면서 적습니다.
- 자, 모두들 다 적었나요? 그럼 3번 학생이 그 풀이를 한번 읽어 볼까요?

- 아까 누리 소통망(서비스)의 내용을 표기 그대로 읽을 때와 지금 읽은 풀이 내용을 읽을 때 어떤 점이 차이가 나나요? 만약 이처럼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면 어떨까요?



수업 돋보기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 상의 언어 활동도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나름의 언어문화적 특성을 인정한다. 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식의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학생들의 예상 답변

- 누리 소통망(서비스) 대화를 그대로 소리 내어 읽으라고 할 때 예상되는 학생들의 반응으로는 “초성으로 된 것을 그대로 읽으니 좀 웃겼어요.”, “그림말을 뭐라고 읽어야 할 지 모르겠어요.”, “평소 말로 하는 것과 글로 표기한 것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등이 있을 수 있다.
- 또한 그 뜻을 있는 그대로 풀어서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가정해 보라고 한다면, 학생들은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었어요.”, “뭔가 조금 심심하고 너무 모범적인 것 같아요.”, “만약 이대로 누리 소통망(서비스)에 쓴다면 대화를 쓰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재미가 없어요.” 등의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수업 돋보기

학생에게 번호를 붙이는 것이 다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면, 색깔 등으로 호칭을 바꿀 수도 있다.

- 누리 소통망(서비스) 상 언어 활동과 평소 우리의 언어 활동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네요. 한번 누리 소통망(서비스)이나 인터넷에서 나타나는 언어 활동 현상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모둠별로 문제 3번을 함께 풀어보세요.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한번 다 같이 정리해 볼까요? 각 모둠의 3번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적어서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1모둠, 초성으로만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 2모둠, 줄임말로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 3모둠, 비속어는 무엇인가요?
- 4모둠, 그림말로 표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 5모둠, 둘 이상에 속한 표현은 무엇이 있나요?
- 그럼 위의 표현 중에서 부모님께서 알지 못하실 것 같은 표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둠의 1번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적고, 2번 학생이 발표해 봅시다.
- 부모님께서 몰랐으면 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둠의 3번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적고, 4번 학생이 발표해 봅시다.
- 부모님께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둠의 2번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적고, 1번 학생이 발표해 봅시다.
- 친구들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둠의 4번 학생이 화이트보드에 적고, 3번 학생이 발표해 봅시다.
- 누리 소통망(서비스)나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그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에서의 언어 활동은 어느 정도까지가 적절할 것 같은가요? 모둠별로 토의하고, 그 결과를 칠판에 적어봅시다. 1번 학생이 발표해 봅시다.
- 자,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 소통망(서비스) 대화를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서비스)나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은 정보 통신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하나의 가상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만의 언어가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소통을 방해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점에 있어서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겠지요?

참고 자료

- 동아일보, 2015년 7월 13일, 「아이들 일상어 부모에겐 암호」
: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언어 소통의 장벽이 높다는 점을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은어와 신조어, 비속어의 과다 사용상 문제점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 단비뉴스, 2011년 10월 5일, 「찐짜버거, 똥추 어른들은 모를 걸」
: 인터넷 언어의 사용이 또래 언어문화 형성을 빠르게 형성하고 있지만 국어 파괴와 세대간 소통 단절을 가져온다는 기사 내용이다. 청소년의 신조어 은어 사용 현황을 시각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정현선(2005),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 새국어생활 15-2, 국립국어원.
: 디지털 매체 시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활동 2는 인터넷 언어문화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그것이 풍자하는 사회 현상과 그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 보는 활동이다. 모둠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여 모둠원이 함께 상의하고, 돌아가면서 발표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다음 차시에 예정되어 있는 인터넷 언어문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현상의 이유를 다각도로 생각해 보게 한다. '익명성'이나 '비대면성' 등 디지털 의사소통의 특징을 인식하면서 언어 사용 태도에 대해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여러분도 이 광고에서처럼 인터넷 댓글을 달아본 적 있나요?
-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이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내용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 먼저 다음의 동영상을 보도록 합시다. 동영상을 보면서 활동지에 나온 질문에 답해 보세요.

영상 자료

파괴되는 우리말



마음껏 말하고 쓸 수 없었던 일제 탄압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우리말과 글이 인터넷상에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담아낸 내용이다.

*출처 : 국립국어원 경로: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찾기 → 국어 관련 영상 및 방송

- 광고 동영상을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익명성에 기대 악의적 댓글을 쓰는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공익 광고이다.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경로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누리집 → Business → 공익 사업 → 공익 광고 → 공익 광고 자료실 → 방송 공익 광고

이렇게 해 보세요.

활동지를 보고 “어떤 연령대에서의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이 많은가요?”, “가장 적은 연령대는 어디 인가요?” 등을 질문하며 기사를 분석하게 한다. 그리고 10대에서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이 많다는 것을 파악하게 한다.

- 왜 이런 광고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 이제 활동지의 신문 기사를 읽어 봅시다. 기사가 악성 댓글의 어떤 점에 대해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활동지를 작성해 봅시다.
- 우리 다 같이 문제를 풀어 봅시다. 악성 댓글 작성의 연령별 특징이 어떻다고 나왔나요? 악성 댓글이 점차 어떻게 확대되고 변화되나요?
- 인터넷 의사소통 활동은 실제 우리가 사는 현실 속 의사소통이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여러분도 누리소통망에서 언어폭력이나 왕따 등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가 있나요? 이러한 사이버 학교 폭력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단지 욕설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등을 무작위로 유포하여서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하네요.

참고 자료

- 사이버 폭력 없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 광고
: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익 광고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손을 씻자는 아나운서의 멘트를 배경 사이버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내용이다. 이 광고 영상은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볼 수 있다.
- 연합뉴스, 2016년 7월 27일, 「카톡 감옥에 초대되었습니다」
: 새로운 학교 폭력의 유형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에 관한 기사로, 사이버 학교 폭력의 양상과 피해에 대해 알 수 있다.

정리

디지털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 현상과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보면서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게 한다.

■ 활동 방법

모둠별로 매체 언어생활 속에서 고쳐야 할 점에 대해 돌아가며 발표하면서 마무리한다.

- 오늘 우리는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등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생활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 네, 누리 소통망(서비스)나 인터넷도 하나의 사회예요. 따라서 그 사회 속에서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언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우선 줄임말이나 초성 표기 등 인터넷 언어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지요? 그러나 비속어 사용, 지나친 줄임말이나 초성 표기의 남용 등은 친구나 부모님과의 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어요.
- 두 번째, 상대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내가 누군지 모른다고 욕설이나 비방, 허위 사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악성 댓글을 다는 문제도 알아보았어요. 심지어 악성 댓글이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졌고요.
-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1차시 활동1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디지털 세상 속 우리가 쓰는 말들

※ 다음 누리 소통망(서비스)의 대화를 보고 활동해 봅시다.



1. 1쪽의 대화를 소리 내어 읽어 봅시다.

2. 위의 누리 소통망(서비스) 대화 내용을 부모님에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내용을 풀어 보세요.



3. 위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언어적 현상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의 표현이 둘 이상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초성으로 표기	○○, 뽀뽀뽀, ㅋㅋㅋ, ㅎㅎ, ㄱㅅㅅㅅ, ㅅㅅ, ㅈㄴ, ㄱㄱ
줄임말로 표기	프사, 세젤예, 생선, 문상, 피방, 꿀잼
비속어	개웃김, 개이득, 개부럽 등 개~, ㅅㅅ, ㅈㄴ
이모티콘	ㄹ.ㄹ ππ

4. 부모님이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사, 세젤예, 뽀뽀뽀, ㅅㅅ, ㅈㄴ, ㄱㄱ

초성으로만 되어 있어서 뜻을 유추해 내지 못할 것 같다

‘프사’나 ‘세젤예’ 등은 엄마나 아빠가 자주 쓰거나 관심 분야가 아닌 것 같아서

5. 부모님이 몰랐으면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ㅅㅅ, ㅈㄴ, 개~, 피방

비속어에 해당하는 말들이라서, 부모님이 아시면 혼날 것 같다. 화내실 것이다. 실망하실 것이다

6. 부모님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프사, ○○, ㅋㅋㅋ, ㅎㅎ, ㄱㅅㅅㅅ, 생선, 문상, @.@ ππ

자주 쓰고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평소 누리 소통망(서비스)가 아니고 실제 생활에서도 많이 쓰니까

7. 친구들과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빠르게 쓸 수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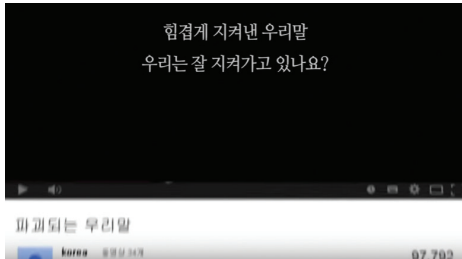
친구들이 모두들 쓰니까

표현이 재미있어서 / 새롭고 신선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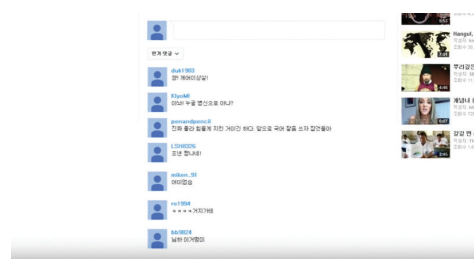
내 기분이나 감정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주제 : 디지털 세상 속 우리가 쓰는 말들

※ 다음의 동영상상을 보고 답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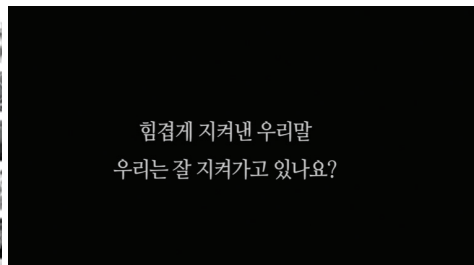
①



②



③



④

1. 이 광고 속에서 보이는 디지털 매체 언어 활동은 무엇입니까?

인터넷 동영상에 댓글을 달고 있다.

2. 영상 속 친구들이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습니까?

우리말을 잘 지키자는 동영상을 보면서도 밑에 비방이나 비속어, 욕설 등을 댓글로 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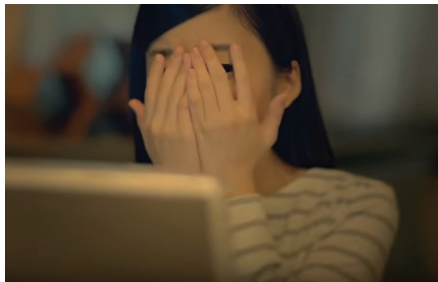
3. 다음의 동영상상을 보고 왜 이런 광고를 제작하였을지, 이 광고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①



②



③



④

익명성에 기대어 막말이나 비방, 비속어, 허위 사실 유포 등을 하는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

※ 다음의 신문 기사를 읽고 이야기해 봅시다.

암(癌) 보다 더 아픈 ‘악성 댓글’ 학교 폭력 키운다

가수 백○○ 씨는 최근 자신의 유산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신의 유산에 대해 악성 게시글을 올린 네티즌 수십 명을 고소하면서 백씨는 “연애나 결혼과 달리 유산의 아픔은 나와 가족에게 다시는 없어야 할 큰 사건이었다.”며 “그런데 이것마저 안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 모습에 어디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며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지난해 발표한 ‘2011 인터넷 윤리 문화 실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20% 이상이 악성 댓글 혹은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별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은 10대 48%, 20대 29%, 30대 17.4%, 40대 14.8%, 50대 11.7%로 저연령층일수록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누리꾼 중 73.3%가 욕설이나 비속어가 담긴 글을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비웃고 헐뜯는 글을 작성한 경험도 44.5%나 됐다.

악성 댓글은 자연스럽게 사이버 폭력으로 이어진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적인 언사도 서슴치 않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악성 댓글은 또 다른 악성 댓글을 낳아서, 누군가에게 악성 댓글을 단 사람의 신상이 털리고 또 악성 댓글이 달린다. 특히 국내 초등학교 인터넷 이용자의 경우, 자신이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는 해당 글 작성자에게 똑같이 되갚아 준다는 답변이 40%에 달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기에는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악순환인 셈이다.

더구나 악성 댓글은 ‘언어폭력’이라는 점에서 온라인 상에서 뿐 아니라 학교 폭력으로도 재생산된다. 실제로 지난해 교육과학부에서 발표한 ‘전국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석에 따르면 누리 소통망(서비스) 상 욕설 등 사이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의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 14.4%, 여학생의 경우 19.7%로 각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게시판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누리 소통망(서비스) 등을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폭력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폭력이 심각하다고 느끼는 청소년의 비율 역시 2011년 1.8%에서 2012년 4.7%로 급증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측은 “청소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이 직접 신체적으로 폭행이 일어나거나 대면하여 욕설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며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2013년 10월 10일 배소진 기자

4. 악성 댓글 작성 경험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연령별 분포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인 10대의 악성 댓글 작성 경험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율이 높다. 또 그러한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들 중 73% 정도가 욕설이나 비속어를, 44% 정도가 비방이나 모함 등을 한다.

5. 악성 댓글이 사이버 폭력으로 어떻게 이어지게 되는지 말해 봅시다.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 등 악성 댓글을 달면, 그것이 또 다시 악성 댓글을 낳고 거기에 또 악
성 댓글이 달리면서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6. 위의 기사 내용을 참고하여 이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누리 소통망(서비스) 등에서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사이버 학교 폭력을 당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
같다. 친구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여기지만, 당하는 아이는 매우 괴로워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왕따나 폭력이 나타나고, 24시간 내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고 한다.



2차시

■ 이 시간에는

지난 차시에서 파악한 여러 매체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양상의 문제에 대해 서로 토의하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매체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갖도록 한다. 학습자들이 스스로 매체 의사소통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찾고 이에 해결할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 태도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목표

- 가.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언어 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를 통해 마련한다.
- 나. 디지털 매체 의사소통에서 보이는 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토의를 통해 마련한다.
- 다. 바람직한 디지털 매체 언어 사용 방안을 마련하여 올바른 디지털 매체 언어 사용 태도를 갖춘다.

■ 준비물

활동지, 필기도구, 2절 전지, 칠판 펜

도입

월드 카페 진행 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한다.

■ 활동 방법

매체에서 보이는 언어 현상 속 문제점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의 방법(월드 카페)에 대한 안내를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본 차시의 수업은 월드 카페 방식을 통해 매체에서 보이는 언어 현상 속 문제점에 대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이 월드 카페 방식은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고, 진행될 때에도 교사의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

-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의 누리 소통망(서비스)와 인터넷 문화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 네 좋아요. 그럼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여러 문제 현상들에 대해서 나름의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요, 토의를 통해서 할 것입니다. 바로 '월드 카페'라는 방식입니다. 조금 생소하지요?
- '월드 카페'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서로 나누고 공유하면서, 집단의 지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토의의 과정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도움영상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먼저 한번 볼까요?



수업 돋보기

'월드 카페 소개하기(<https://youtu.be/8PruLKgA2WE>)'라는 영상을 제시할 수 있다. 이 영상을 통해 월드 카페의 장점과 규칙을 알 수 있다.

- 어때요.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지요? 그럼 각 모둠에서 주인장을 정해 주세요. 책상 앞에 있는 전지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를 적고,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면서, 전지에 자유롭게 적어 가면 됩니다.
- 모두들 준비 됐나요? 그럼 각 모둠의 주인장은 나와서 선생님께 월드 카페 토론 주제를 받아 갑시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 월드 카페 설명 동영상(<https://goo.gl/RS11kp>)
- : 월드 카페의 정신, 규칙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전개

누리 소통망(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떠한 사용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이번 차시의 활동은 교사가 제시하는 토의 주제에 대해 ‘월드 카페’의 방식으로 토의 활동을 펼친다. 활동 1은 ‘월드 카페’로 토의하는 활동, ‘월드 카페’의 결과를 발표하고 정리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활동 2는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언어 생활 수칙’을 정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 태도를 모색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렇게 해 보세요.

1. 각 모둠의 주인장은 교사에게서 토의 주제를 받아 간다.
2. 주인장의 주제 아래, 토의 주제를 전지의 한 가운데에 기록해 놓고, 토의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한다.
3. 주인장은 모둠원이 돌아가면서 모두 발언할 수 있도록 발언의 순서 등을 조정하고, 이야기의 주제가 벗어나지 않도록 토의를 진행한다.

4. 주인공 및 모둠원들은 책상 가운데에 있는 종이에 계속 메모를 하면서 토의한다. 준비된 칠판 펜이나 사인펜 등 서로 다른 색깔의 펜으로 계속해서 종이에 메모해 가며 토의한다. 이때 생각그물의 형식처럼 쓰면 된다고 안내하면 된다.
5. 교사는 약 10분 간 토의 시간을 주고 마무리 2분 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
6. 1차 토의가 끝나기 전, 각 원탁에서는 토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종합하여 또 다른 토의 주제(토의 질문)을 하나 생성한다. 이 주제 질문은 다음 모둠원들이 토의할 질문이 된다.
7. 1차 토의가 종료되면,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 모둠원들은 다른 원탁으로 이동한다. 단, 같은 테이블에 있던 모둠원이 함께 이동하면 안 된다. 모든 모둠원이 여러 원탁으로 흩어져 새로운 토의 모둠이 형성되도록 한다.
8. 새롭게 형성된 토의 모둠에서는, 이전 토의 모둠에서 남겨 놓은 토의 질문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한다. 토의 방식은 1차 토의와 동일하다. 단 2차 토의에서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결 방안은 하나의 명제 형식으로 마무리한다.
9. 2차 토의까지 끝나면 모둠원들은 각자의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10. 주인공은 메모가 된 전지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발표한다. 발표 내용은 질문과 그에 대한 의견,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의견, 마무리 명제가 된다.

- ‘월드 카페’ 방식 자체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활동이다. 토의 활동 진행에 시간 조절을 유의해야 한다. 주인공은 토의 활동을 주재하며, 최종적으로 요약 발표하는 등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역할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토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모둠이 토의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이 나오도록 유도한다.
- 주인공 역할을 맡은 학생은 발표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이야기 되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하면 된다고 격려한다. 너무 어려워한다면 월드카페를 진행하면서 교사가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요약 정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다.

■ 지식 갈무리

• 사이버 윤리의 개념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 옳음과 그름, 좋음과 나쁨, 윤리적인 것과 비윤리적인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규범 체계(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사이버 윤리의 기본 요소

- 타인에의 존중(Respect)
- 인터넷 공간에서의 행동과 책임성(Responsibility)
- 인터넷 공간의 옳지 못한 규칙이나 범죄 행위에 저항하는 정의감(Justice)
-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악행 금지(Non-Maleficence)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도입 부분에서 안내한 ‘월드 카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의 활동을 관찰하고 그 진행을 돕는다. 첫째, 인터넷 속 언어의 문제를 제기한 광고 그림을 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함께 ‘집단 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토의를 독려한다. 둘째, 모둠별로 토의 주제를 놓고 ‘월드 카페’ 방식으로 토의를 한다. 토의 주제는 지난 차시에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하여 ‘인터넷 속에서 병들어 가는 우리말, 그에 대한 처방전은 무엇일까?’, ‘인터넷 속 악성 댓글, 사이버 폭력 어떻게 할 것인가?’, ‘사이버 학교 폭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등으로 한다. 각 토의 주제와 관련된 참고 글을 함께 배부하고, 이를 읽은 후 월드 카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 자료

인터넷 언어,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 광고는 2007년 공익 광고 대상을 수상한 ‘인터넷 언어, 교정이 필요합니다.’라는 광고이다.

*출처 : 한국방송진흥공사

- 자 이제 우리 ‘월드 카페’를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 여기 사진을 한번 봐 주세요.
- 2007년 공익 광고 대상을 수상한 광고입니다.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 자 이제 각 모둠의 주인장들은 나와서 선생님에게서 토의 주제를 받아 가세요. 선생님이 토의 주제와 관련 있는 글도 한 편씩 준비했습니다. 토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 이제 토의 주제를 모둠원들끼리 서로 공유하고, 그 주제에 따라 해결 방안을 한번 마련해 봅시다.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메모를 하면서 대화를 진행해 주세요

요. 토의 시간은 10분입니다.

- 자 이제, 토의 종료 2분 전입니다. 다음 토의를 위해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중심으로 또 다른 토의 질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자리를 이동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된 내용을 종합하면서, 또 다른 토의 질문을 만들고, 그것을 전지에 적어 두세요.



- 자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모둠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을 하겠습니다. 같은 모둠원들끼리 같은 곳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서로 겹치지 않도록, 다른 모둠으로 이동해 주세요.
- 이제 새롭게 만난 친구들과 다시 두 번째 토의 질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주인장은 새로운 질문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새로운 모둠원에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뒤에 새로운 질문으로 다시 토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 토의 종료 2분 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명제를 하나씩 만듭시다.
- 이제 토의가 종료되었습니다. 모둠원들은 모두 각자 모둠으로 돌아가 주세요.
- 그럼 1모둠 주인장부터 전지를 들고 나와서 지금까지 이야기가 진행된 것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발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모둠원들은 주인장들의 발표를 활동지에 요약적으로 메모하면서 듣도록 해요.
- 네, 같은 토의 주제인데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네요. 정말 다양한 해법과 문제 해결이 나왔군요. 정말 훌륭합니다.

참고 자료

- 강준만(2006), 「대중문화의 겉과 속 3」, 인물과 사상사.
- : 대중문화 비평가인 강준만이 쓴 책으로 여러 대중문화를 포괄적으로 다루어 비평하고 있다. 특히 3권의 경우 3장 인터넷 문화, 5장 휴대전화 문화에 관한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월드 카페 토의 시, 학생들의 토의 과정을 돕는 정보로 일부를 제공할 수도 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활동 2는 지난 차시, 그리고 본 차시의 활동 1을 종합하는 활동이다. 지금까지의 활동 내용을 종합하여, '바람직한 인터넷 언어생활 수칙'을 스스로 정해봄으로써 바람직한 의사소통의 주체자로서의 태도와 인식을 기를 수 있다.

-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와 같은 매체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언어적 문제점과 또 그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여러분이 그러한 언어의 사용 주체라는 겁니다. 결국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도 하나의 도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도구를 현명하게 사용해야 바람직한 언어문화가 형성되겠지요?
- 그러면 이제 우리 스스로가 바람직한 인터넷 언어문화를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해요. 다 같이 모둠별로 '바람직한 인터넷 언어생활 수칙'을 생각해 보고 모둠 보드에 수칙을 적어 봅시다. 많이 다양하게, 그리고 참신한 수칙을 생각해 보세요.
- 각 모둠별로 만든 수칙을 발표해 봅시다.
- 모둠별로 발표를 해 보니, 비슷한 내용도 있고, 다른 내용도 있네요. 이걸 합하니까 모두 7가지의 생활 수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칙들을 활동지에 적어두고, 우리 모두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아요.

이렇게 해 보세요.

- '바람직한 인터넷 언어생활 수칙'을 모둠별로 정했다면, 그것을 종합하여 하나의 실천 수칙으로 모아 서로 공유하도록 하게 하여, 정리 과정에서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지의 예시 자료를 한두 개 보여줄 수 있다. 구체적인 국면을 적용하여 참신하고 다양하게 생각해 보도록 유도한다.
- '월드 카페'의 토의 결과와 실천 수칙의 결과는 학생들마다, 모둠마다 매우 다양하게 나올 것이다. 교사는 이에 대해 간략히 메모를 하고, 이를 수업 정리 부분에서 언급하여 줌으로써 학생들을 독려하고, 실제로 이러한 토의나 활동의 결과가 인지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격려와 칭찬을 해 준다.

정리

활동 1, 2를 통해 공유한 여러 내용에 대해 정리하고, 활동 2에서 정한 실천 수칙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활동 방법

활동 2에서 정한 실천 수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디지털 매체 속 언어생활의 주체자로서의 역할과 의식, 태도를 생각해 보고,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격려한다.

- 지금까지 우리는 인터넷과 누리 소통망(서비스)를 둘러싼 많은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해 봤어요. 월드 카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니까, 시간가는 줄 모르겠네요.
- 오늘날에는 인터넷이나 누리 소통망(서비스), 그리고 스마트폰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중심으로 한 언어생활이 너무나 당연한 하나의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우리 사용자가 매우 중요하지요.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인터넷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태도 변화입니다. 아무리 수칙을 정해도, 아무도 실천을 안 한다면 소용이 없겠지요? 모쪼록 여러분이 정보화 시대에 올바른 누리 소통망(서비스) 사용자로 바람직한 소통 문화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제 : 바람직한 매체 언어생활을 위하여

※ 다음 글들을 참고하여 토의해 봅시다.

심각한 청소년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은 일반적으로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타인에 대한 위협이나 괴롭힘을 일컫는 용어이다. 근래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따돌림이 성행하고 있다.

또 타인의 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유포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일명 '도촬'(몰래 촬영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사이버 따돌림은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과는 달리 사이버 공간을 통해 발생한다는 면에서 물리적, 신체적 폭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즉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그 영향 또한 오프라인 폭력 못지않게 심각하다.

최근 조사한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생의 29.2%가 사이버 폭력 가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3%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폭력 유형 중에는 사이버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다. 사이버 따돌림의 경우, 가해 경험은 5.6%, 피해 경험은 1.2%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2013)의 조사 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를 입었을 경우 청소년의 41.8%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64.4%가 '신고해 봤자 별 소용없어서'를 가장 많이 들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의 조사에서도 청소년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저지르는 주된 이유는 '재미로'가 가장 많았고 '상대방이 싫어서', '복수'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이 조사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피해 목격 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이버 따돌림 피해 시 느낀 감정으로는 '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청소년들은 복수심에 불타거나 재미삼아 사이버 따돌림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사이버 따돌림을 직접 당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기보다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주변 친구들이 사이버 따돌림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더라도 수수방관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이창호 외(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2009년, 악성 댓글을 통한 인권 침해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의 중학교 44개교와 고등학교 42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당 1개 학급씩 총 2,504명을 표집하여 2008년 6월부터 7월 까지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댓글로 사생활 폭로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7명(4.2%), 공개적 모욕은 111명(5.5%), 성희롱 경험은 98명(4.8%), 개인정보 피해가 80명(3.2%)으로서, 평균 94명(4.4%)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의 경우, 댓글로 타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2명(3.4%), 공개적 모욕이 125명(6%), 성희롱이 67명(3.2%), 개인 정보 피해는 85명(4.0%)으로서 평균 87명(4.2%)이 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간접 경험의 경우, 타인이 타인에게 하는 사생활을 폭로하는 것을 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571명(30.4%), 공개적 모욕은 415명(22.0%), 성희롱은 504명(27.0%), 개인정보 피해는 263명(13.8%)으로서 평균 438명(23.3%)이 간접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댓글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은 대인 관계가 위축되고, 생활에 의욕이 없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자신이 당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울하고 화가 나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출처 : 성윤숙 · 이준화 · 유의선(2009),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Ⅳ
: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대 간 불통이 심각하다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남녀 학생 6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립국어원의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속어의 경우 초등학생은 97%, 중·고등학생은 99%가, 은어·유행어의 경우에는 초등학생 97%, 중·고등학생 100%가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속어의 경우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 사용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는 비속어 목록이 많아지고 거친 정도가 심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은어·유행어의 경우 중·고등학생이 100%의 응답률로 매우 보편적인 사용 정도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비속어·공격적 언어 표현·은어·유행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언어 파괴가 가속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자주, 그리고 공적인 상황에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됨으로써 국어 어법 자체에 혼동을 가져오고 있다. 비속어·은어·유행어의 일상적 사용이 불러일으키는 더 큰 문제는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점이다. 은어와 유행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거의 모든 언어생활을 점령하고 있다. 기성 세대에게 은어와 유행어는 뜻을 전혀 짐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 허윤아(2013)에 따르면,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기성 세대들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50대 이상 장년·노인층 632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 20개를 사용하여 구성된 대화체 문장을 보여준 결과, 10개의 뜻도 맞지 못한 비율이 41.6%, 단 한 개의 통신 언어도 이해하지 못한 응답자 비율은 7.9%나 차지했다. 결국 이는 의사소통 장애를 넘어서서 세대 간 소통 단절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이러한 단절은 세대 간 뿐만 아니라 세대 내 즉,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발생하여 일부 청소년에게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출처 : 장경희(2011),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원.

허윤아(2013), 통신언어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석사논문.

1. 각 모둠에서 토의 주제에 따라 발표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적어 봅시다.

모둠	토의 주제	발표 내용

2. “디지털 언어 사용 수칙”을 정해 봅시다.

디지털 언어 사용 수칙

3. 모둠별로 나온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만의 “디지털 언어 사용 수칙”을 정해 봅시다.

디지털 언어 사용 수칙

1. 카톡의 수신 확인 ‘1’이 사라졌지만 답이 없어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는다.
2. 최신 유행 신조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선생님과 친구들을 당황시키지 않는다.
3. 왕따를 조장하고, 욕설이나 비방하는 아이에게 되갚아 욕하지 말고, 조용히 증거를 확보하여 학생부 선생님께 신고한다.
4. 악성 댓글에는 댓글을 안 다는 것이 정답이다.

※ 예시로 한두 개 보여 줄 수 있다.

3장

진로 체험 프로그램

1. 우리말글의 미래 열기
2. 우리말글 갈고 닦기

1. 우리말글의 미래 열기

■ 이 단원은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는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 사업과 관련된 직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직업을 체험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들의 표준 언어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국어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예연구사들은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어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홍보하며, 온라인 사전 서비스를 관리 및 보완하고 있다. 먼저 이 단원에서는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의 구체적인 과정을 학예연구사의 면담 기사와 같은 자료를 통해 이해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사전 집필 및 수정 활동 또는 표준어 홍보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관련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지도한다.

■ 학습 목표

가.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 사업을 이해한다.

나.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학예연구사가 맡은 역할을 이해한다.

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가진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사업을 이해한다.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사전 편찬과 보완 작업을 이해한다.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 사업에서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사업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느끼기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사전 편찬, 보완 사업을 알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되어 보는 체험을 통해 대중에게 표준어를 홍보한다.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되어 보는 체험을 통해 사전 집필 및 수정 과정을 이해한다.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가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표준어 제정 및 홍보 활동을 통하여 학예연구사의 직무를 체험하기사전 편찬과 관련된 활동을 통하여 학예연구사의 직무를 체험하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표준어들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는지 알아본다. 그리고 널리 쓰이지만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들을 새롭게 표준어로 추가하여 국민들에게 이를 보급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학습한다. 아울러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사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및 보완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한다.

■ 학습 목표

- 가.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사업을 이해한다.
- 나.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사전 편찬 사업과 보완 작업을 이해한다.
- 다.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 사업에서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한다.

■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붙임쪽지

도입

‘국립국어원’에 대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인상이나 생각을 알아보고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한다.

■ 활동 방법

- 학생들에게 ‘국립국어원’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국립국어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물어본다. 학생들이 직접 붙임쪽지에 하나 이상씩 대답을 적어서 칠판에 붙이도록 하고 함께 그 내용을 확인한다.
- 국립국어원 홍보 동영상(5분 17초)을 시청한다.
- 영상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시민들이 국립국어원의 업무로 ‘사전을 만드는 일’과 ‘표준어를 정하는 일’을 예로 들고 있음을 확인하고 간단히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다.
- 수업을 통해 많은 대중이 인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업무에 대해 배울 것임을 안내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학생들이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경우, ‘국립국어원’이라는 명칭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유추해 보게 하거나, 인터넷에서 국어사전을 이용해 본 경험을 떠올리게 한다.
- 도입 부분의 소요 시간을 줄이고, 활동에 좀 더 비중을 두고자 한다면 국립국어원 홍보 동영상은 2분 33초까지만 재생한다.

- 여러분, ‘국립국어원’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나요? 국립국어원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적어 볼까요? (활동 후) 여러분들이 적은 붙임쪽지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OO이가 나와서 붙임쪽지에 친구들이 쓴 대답을 선생님과 함께 읽어 볼게요.
- ‘국립국어원’이라는 명칭을 함께 살펴볼까요? ‘국립+국어+원’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 의미를 조합해볼까요?
- 그렇죠, 국립국어원은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럼 국립국어원의 홍보 영상을 보며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영상 자료

국립국어원 홍보 동영상



경로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국어원 소개 → 국어원 소개 영상

- 국립국어원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물어본 시민 인터뷰에서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나요?
- 네. 여러분들과 시민들이 대답했던 것처럼 국립국어원의 중요한 업무는 표준어를 제정하고 사전을 편찬하는 일이에요. 영상에서 소개되었듯이 국립국어원은 국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연구해서 이를 기반으로 표준어 및 사전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우리는 국립국어원에 대해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학예연구사분들이 하는 일을 살펴 보면서 우리말에 대한 국립국어원의 역할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누리집 > 국어원 소개
- : 국립국어원의 설립 목적과 진행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전개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주로 접하는 표준어 또는 비표준어를 예로 들어 국립국어원의 사업이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강조한다. 더불어 표준어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며, 국립국어원에서 대중의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표준어 제정과 관련된 활동(활동 1)이 이루어진 후 사전 편찬과 관련된 활동(활동 2)이 이어지도록 한다.
- 대중이 자주 틀리는 표준어, 새롭게 개정된 표준어를 비롯하여 표준어 제정 원칙 및 개정 내용을 학예연구사의 인터뷰가 담긴 활동지를 통해 소개하고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추가 사례를 직접 찾아보게 한다.
- 빙고 놀이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표준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한다.
-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사전 편찬 사업과 학예연구사가 담당하는 역할을 교사의 설명 및 활동지의 면담 기사를 통해 이해하게 한다.
- 각 활동은 1) 학생들이 활동지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고 2) 교사가 부연 설명을 한 후 3) 학생들이 직접 추가 사례를 찾아보는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 지식 갈무리

● 표준어의 개념

- 개념 :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 제정 과정 : 일제강점기에 조선어학회가 표준어를 정리한 것을 정비하여 1988년 표준어규정으로 공표하였다.

● 단수 표준어와 복수 표준어

· 단수 표준어

제17항. 비슷한 발음의 몇 형태가 널리 쓰일 경우, 그 의미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더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제25항. 의미가 똑같은 형태가 몇 가지 있을 경우, 그중 어느 하나가 압도적으로 널리 쓰이면, 그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

· 복수 표준어

제19항. 어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 또는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이 다 같이 널리 쓰이는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제26항.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가 몇 가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

•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하여 현재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어와 방언, 북한어, 옛말 등 우리말을 망라하여 약 51만 단어 규모로 구축되어 있으며,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비롯하여 국민 언어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다.
우리말샘	‘우리말샘’은 실생활어, 신어, 지역어 등 우리말을 국민과 함께 모아가는 참여형 사전이다.
한국수어사전	한국수어사전은 농인과 청인이 한국수어 단어에 대한 한국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한국수어 웹사전과 모바일 앱 사전 등을 통합하여 새롭게 정비한 사전이다. 수어 정보(수어 동영상, 수형 사진, 수형 설명, 원어 정보, 동형어, 반형어 등)와 한국어 정보(표제어, 품사, 뜻풀이, 용례)가 함께 제공된다. * 우리나라 농인이 풍부하고 올바른 수어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국수어의 언어적 특성에 맞는 사전은 현재 준비 중임.
한국어기초사전	‘한국어기초사전’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쉬운 한국어 사전이다. 5만 여 단어가 실려 있다.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 (수업 내용에는 포함하지 않음)	‘국립국어원 한국어-외국어 학습사전’은 한국어기초사전의 표제어와 뜻풀이를 10개 언어(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아랍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타이어, 프랑스어)로 번역한 사전이다. 초급 한국어 학생에게 특히 유용하다.

• 학예연구사의 역할

· 표준어 제정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는 대중의 어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검토하며 국어 전문가들이 모여 표준어 사정을 논하는 국어 심의회를 주관하는 등 표준어 제정의 전체 과정을 기획 및 운영한다.

· 사전 편찬

학예연구사는 현 사전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한다. 그리고 우리말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완 심의회에서 개별 안건이 심사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며, 통과된 수정안을 외부에 공표하고 사전을 최종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국립국어원 온라인 간행물 ‘쉽표, 마침표’의 한 쪽지 ‘갈무리할 우리말-단어장’에서 표준어와 관련된 사례를 학생들에게 문답으로 제시하고 설명한다.
- 대중이 자주 틀리는 단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활동지의 문제를 함께 풀어 본다.
- 학예연구사가 새롭게 인정된 표준어에 대해 소개하는 면담 기사(실제 라디오 뉴스 면담을 재구성)를 함께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 학생들이 직접 스마트폰을 통해 표준어 개정 사례를 수집하도록 한다.
- 1, 2에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 바탕으로 모둠별로 ‘표준어-붙임쪽지 빙고’ 놀이를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구분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국립국어원에서 언중의 언어생활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표준어를 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활동지에 제시된 기사(학예연구사 면담)를 활용하여 표준어가 사전에 등재되는 과정에서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들이 새로 개정된 표준어 목록을 검색할 때, 들머리사이트에서는 ‘표준어 개정(표준어 추가)’로 검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 → 보도자료 → 표준어 추가’ 등의 검색어와 경로를 안내할 수 있다.
- 시간 관계상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정된 표준어 목록을 찾아 정리하는 활동은 생략하고 바로 빙고놀이로 넘어갈 수 있다.

- 여러분, 지금부터 국립국어원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온라인가나다’에 올라온 질문들을 문답으로 같이 풀어 보겠습니다. 우선 활동지에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는 단어에 O표시를 해 봅시다.
- 모두들 잘 풀었나요? 헷갈리는 것들이 많았지요? 한번 같이 풀어 볼게요.



수업 돋보기

- ‘설거지’와 ‘설겅이’: 표준어 규정 제20항 “사어(死語)가 되어 쓰이지 않게 된 단어는 고어로 처리하고, 현재 널리 사용되는 단어를 표준어로 삼는다.”에 따라 ‘설거지하다’를 표준어로 삼고 ‘설겅다’를 잘못으로 본다. 따라서 ‘설거지’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
- ‘웃어른’과 ‘윗어른’: ‘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웃-’은 아래위의 대립이 없는 명사 앞에 붙어 ‘웃거름/웃국/웃돈’처럼 쓴다. ‘어른’ 역시 아래위의 대립이 없으므로 ‘윗어른’이 아닌 ‘웃어른’으로 써야 한다. 한편, 아래위의 대립이 있는 명사 앞에는 ‘윗-’을 붙여 ‘윗니/윗도리/윗목’처럼 쓴다. 따라서 ‘웃어른’이 바른 표현이다.
- ‘돌맹이’와 ‘돌멩이’: ‘돌덩이보다 작은 돌’을 이르는 말은 ‘돌멩이’이다. 이때 ‘멩이’는 ‘망아지’의 ‘아지’, ‘꼬랑이’의 ‘앙이’처럼 원래 뜻보다 더 작은 개념을 나타낸다. ‘돌맹이’는 잘못된 표기이다.
- ‘두루몽실’과 ‘두루몽술’: 예를 들어 “설명이 두루몽실/두루몽술해서 알아듣기 어렵다.”라는 문장에서 바른 표현은 ‘두루몽술해서’이다. ‘모나거나 튀지 않고 둥그스름하다’ 또는 ‘말이나 행동 따위가 철저히거나 분명하지 아니하다’를 뜻하는 말은 ‘두루몽술하다’로서, ‘두루몽실하다’는 잘못된 표현이다.
- ‘봉숭화’와 ‘봉숭아’: 비슷한 발음의 몇 가지 형태가 혼용될 경우, 그 의미에 차이가 없고 그중 하나가 널리 쓰이면 그 한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이에 따라 널리 쓰이는 ‘봉숭아’를 표준어로 삼았고, ‘봉숭화’는 잘못된 표기가 되었다. 한편 ‘봉선화’는 ‘봉숭아’와 복수 표준어이다.
- ‘가랑이’와 ‘가랭이’: ‘하나의 몸에서 끝이 갈라져 두 갈래로 벌어진 부분’이나 ‘바지 따위에서 다리가 들어가도록 된 부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은 ‘가랑이’이다. ‘신출내기’의 ‘-내기’와 ‘냄비’, ‘동태이치다’는 ‘ㅣ’모음 역행 동화를 적용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은 예이나, ‘가랭이’는 표준어가 아니다.

- 모두들 표준어를 잘 골라 주었네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심결에 사용하는 단어 중에는 표준어가 아닌 것들도 많아요. 여러분처럼 일반 대중도 표준어와 비표준어를 많이 헷갈려 하지요.
- 선생님이 계속 ‘표준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들 뜻은 짐작하고 있겠지만, 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표준어가 꼭 바른말이고 서울말이 아닌 방언(사투리)이 꼭 잘못된 말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공문서나 교과서, 방송 등과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누구나 알고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리고 이러한 표준어는 국민의 언어생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전에 실리게 되었죠.
- 지금부터는 선생님이 화면에 많은 단어들을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중에 무엇이 표준어이고 무엇이 틀린 표현인지 상의해서 풀어 봅시다.

- 이어서 사전에 대해서 배웁시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을 쉽게 이용할 수 있지요? 사전을 자주 찾아보며 자신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는 태도를 가지면 표준어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 지금부터는 가장 최근에 새로 추가된 표준어에 대해 학예연구사의 인터뷰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합시다.
- 언어 현실과 언어 규범 사이의 괴리를 좁혀 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립국어원에서 일하는 학예연구사들의 업무겠지요. 그래서 학예연구사들은 대중의 어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검토하며,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준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어 심의회 과정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해 준 학예연구사의 역할을 활동지에 각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 우리 기사에 나와 있는 2015년도 개정 사항 외에 그동안 추가로 개정된 표준어 목록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정리해 볼까요?
- 검색하는 것이 조금 어렵나요? 선생님이 검색어 실마리를 줄게요! 들머리사이트에 ‘표준어 개정 (표준어 추가)’으로 검색해 보거나, 국립국어원 누리집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표준어로 정리해 보면 관련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 최근에 표준어 추가 결과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활동 후) 검색한 내용을 누가 발표해 볼까요?
-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표준어 또는 여러분들이 찾아준 새로 개정된 표준어를 재료로 하여 빙고 놀이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놀이 방법을 활동지에 적어 놓았는데,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볼까요?
- 이렇게 OX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웃어른/잊어른 중 맞는 표현은?’ 과 같이 선택하는 문제 또는 주관식 문제도 좋아요. 다양한 문제로 빙고 칸을 채워 봅시다.
- 빙고 칸을 다 채웠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둘 씩 짝을 지어 빙고판을 교환하고 게임을 시작해 봅시다.

참고 자료

- 민현식(1999), 「국어정서법연구」, 태학사.
: 표준어와 방언, 표준어의 개념, 기능, 선정 조건을 비롯하여 각 조항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 김주필(2004), 표준어 사정 기준과 표준어의 성격, 새국어생활 14-1.
: 총칙 제1항 표준어의 사정 원칙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 국립국어원 누리집>사전·국어지식>표준어규정.
: 표준어 규정의 각 조항과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 허승환(2010), 「수업 시작 5분을 잡아라」, 즐거운학교.
: 불임쪽지 빙고 게임을 소개하고 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국립국어원에서 제작한 사전 홍보 광고 또는 사전 화면을 활용하여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사전 편찬 사업에 대해 소개한다.
- 학생들은 활동지에 실려 있는 사전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사의 면담 기사를 읽고 학예연구사의 역할을 정리하여 발표한다.
- 국립국어원의 사전 서비스 중 하나인 ‘우리말샘’의 사전 집필 활동을 활동지를 통해 경험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학생들이 앞으로 일상에서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사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학예연구사의 인터뷰 기사에서는 사전 편찬 과정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직업인으로서의 보람과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하게 한다.
- 시간 관계상 ‘우리말 샘’ 집필 활동은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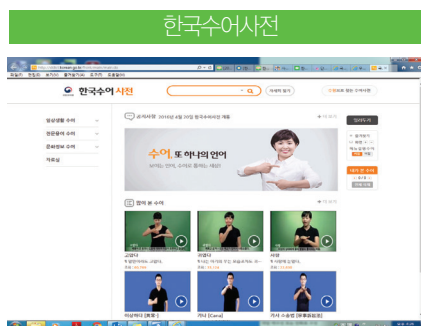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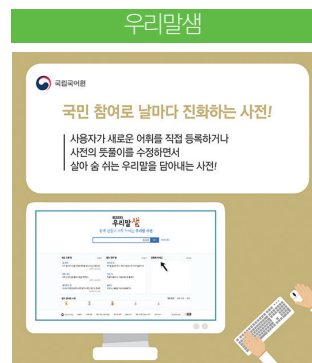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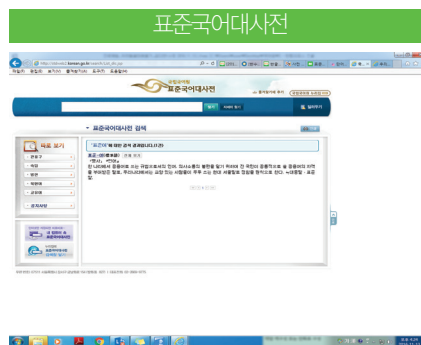
- 지금부터는 ‘사전’에 대해 배워 보도록 할게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다양한 사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활용할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속한 화면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네이버 사전도 이 표준국어대사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는 몇 개일까요? (대답 후) 현재 51만 단어가 구축되어 있어요.
- 여러분 ‘샘’이 뭔지 아나요? (대답 후) 그렇지요.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국민들의 참여로 계속 발전하는 사전도 있습니다. 이 광고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 사전은 국민들이 새로운 어휘를 직접 등록하거나 사전의 뜻을 수정할 수 있는 사전으로 최근에 시작되었어요.
- 다음은 ‘한국수어사전’이에요. 여러분 혹시 ‘수화’가 뭔지 아나요?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손과 손가락의 모양, 손바닥의 방향, 손의 위치, 손의 움직임을 달리 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를 의미해요. 또 같은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런 수화 언어를 줄여서 ‘수어’라고 해요. 이것은 농인과 청인들이 한국수

어 단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새롭게 정비한 사전이에요. 동영상을 통해 바로 수화를 확인할 수 있지요.

- 그밖에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쉬운 한국어 사전인 '한국어기초사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진 자료

사전 홍보 광고 및 국립국어원 사전 화면



경로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사전·국어지식>사전

-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사전 서비스를 운영, 관리하는 역할도 학예연구사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담 기사를 통해 관련 업무에 대해 더 알아보을까요? 기사를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봅시다.
- 사전의 내용이 수정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즘은 정보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업무가 단시간에 처리되지만, 공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임의

로 빨리 단어를 수정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국어대사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을 수정하며, 이는 매년 2~3개월 단위로 진행됩니다. 수정 진행 절차를 함께 보겠습니다.

- 학예연구사는 이러한 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해요. 먼저 현 사전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수정하는 것이 좋을지 논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 보완 심의회에서 개별 안건이 심사될 수 있도록 일련의 과정을 운영하며, 통과된 수정안을 외부에 공표하고 사전을 최종 수정하는 역할을 하지요.
- 그럼 지금부터는 국민들이 집필 과정에 참여하는 ‘우리말샘’과 관련된 활동을 해 볼게요.

영상 자료

새로운 어휘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동영상 도움말



*출처 : 우리말샘>도움말>집필 참여>자주 찾는 도움말>새로운 어휘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동영상 도움말

- ‘집필 요청한 말’에는 어떤 단어들이 적혀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 단어 중 하나를 골라 뜻풀이를 적어 볼게요. 사전은 한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는 뜻풀이를 적는 것이 낫겠지요? 그 점에 유의해서 모둠원들과 상의하여 작성하여 봅시다. 그 전에 우리말샘 도움 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해요.
- (활동 후) 활동이 마무리가 되었나요? 그럼 모둠별로 결과를 발표해 볼게요.
- 모두들 그 단어의 뜻이 궁금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뜻을 풀어서 잘

적었네요.

지금 우리가 한 활동은 2차시에서 직접 사전을 만들어 보는 체험에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2016), 「우리말샘 안내 소책자」.
: 우리말샘의 전반적인 추진 목표와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 국립국어원 언어정보과(2009), 「표준국어대사전 개정 지침」.
: 기존 편찬 지침에 새로 추가한 사항들을 살펴볼 수 있다.

정리

문답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배운 내용을 정리하게 한다.

■ 활동 방법

- 학생들은 붙임쪽지에 배운 내용과 관련된 O/X 문답을 내고 교사에게 제출한다.
- 학생들이 작성한 문답 중 몇 가지는 직접 이번 차시의 정리에서 학생들에게 질문하여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표준어와 비표준어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국립국어원의 표준어가 추가된 이유, 사전 편찬 과정, 학예연구사의 관련 업무와 같은 다양한 문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학생들이 붙임쪽지에 작성한 문답을 읽는다.)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사전의 종류를 두 개 이상 말해볼까요?
- 표준어 개정과정에서 학예연구사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1차시 - 활동 1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표준어 제정과 사전 편찬 (자장면? 짜장면? 무엇이 표준어인가요?)

※ 국립국어원의 표준어 제정 사업에 대해 알아봅시다.

1. 자주 틀리는 단어를 알아봅시다.

(1) 바른 표현에 O표시를 해봅시다.

<p><u>‘설거지’</u>와 <u>‘설것이’</u> 중 바른 표기는?</p>	<p><u>‘두루뭉실해서’</u>와 <u>‘두루뭉술해서’</u> 중 바른 표현은?</p>	<p><u>‘웃어른’</u>일까, <u>‘윗어른’</u>일까?</p>
<p><u>‘봉숭화’</u>와 <u>‘봉숭아’</u> 중 바른 표기는?</p>	<p><u>‘돌맹이’</u>와 <u>‘돌맹이’</u> 중 바른 표기는?</p>	<p><u>‘가랑이’</u>와 <u>‘가랭이’</u> 중 바른 표기는?</p>

설거지, 두루뭉술해서, 웃어른, 봉숭아, 돌맹이, 가랑이

(2) 모둠별로 토의하여 표준어를 찾아봅시다.

메밀? 모밀?	무? 무우?	윗니? 웃니?
어의없다? 어이없다?	강충강충? 강충강충?	천장? 천정?
개구장이? 개구쟁이?	아지랑이? 아지랭이?	세째? 셋째?
강남콩? 강낭콩?	오뎅이? 오뎅이?	수탉? 숫닭?
부엌? 부엌?	삼촌? 삼촌?	새벽별? 셋별?

메밀, 어이없다, 개구쟁이, 강낭콩, 부엌, 무, 강충강충, 아지랑이, 오뎅이, 삼촌, 윗니,
천장, 셋째, 수탉, 셋별

2. 라디오 기사(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인터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 사회자 : “푸르른 잎새가 너무 이쁘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말,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푸르른 잎새가 너무 이쁘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문장에 들어 있는 단어 표현 하나하나가 모두 표준어가 아니었는데요, 국립국어원이 어제 푸르른, 잎새, 이쁘다, 이런 말을 새 표준어로 등재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새 표준어로 등재된 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국어원 이○○ 학예연구사님, 안녕하세요?
- ▶ 이○○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이하 학예연구사) : 안녕하십니까. 이○○입니다.
- ▷ 사회자 : 국립국어원이 어제 발표한 표준어에 어떤 표현들이 새로 포함됐습니까?
- ▶ 학예연구사 : 먼저 기존 표준어랑 뜻이 같은 복수 표준어로서 마실, 이쁘다, 찰지다, 고프다 등 네개 항목이구요, 다음으로 기존 표준어와는 뜻이 조금 다른 별도 표준어로서 푸르르다, 홀연, 의론, 이크, 잎새 등 다섯 항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 ▷ 사회자 : 저는 ‘잎새’라는 표현이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게 의외인데요, 우리가 ‘마지막 잎새’, 오 헨리 단편 소설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도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 ▶ 학예연구사 : 그렇죠, 사실 ‘잎새’가 문학 작품이라든지 많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 ▷ 사회자 :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동안은 표준어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죠?
- ▶ 학예연구사 :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전에서는 ‘잎새’를 ‘잎사귀’의 충청도 방언으로 많이 기술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잎새’를 표준어로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 작품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고 또 농업이나 생물 분야에서는 ‘잎새’가 전문 용어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 ▷ 사회자 : 표준어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부터 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 학교 다닐 때 배우긴 했습니다만 표준어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 건가요?
- ▶ 학예연구사 : 표준어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르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표준어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교양이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사회자 :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표준말 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표준어 아닌 말들은 잘못된 표현이다, 틀린 표현이다, 이렇게 인식하기도 쉬운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요?

▶ 학예연구사 : 그렇죠. 표준어는 곧 바른 말이고 방언은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고요. 표준어 중에도 속된 표현이 있을 수 있고 또 방언도 잘 살려 쓰면 우리 언어생활을 좀 더 풍부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공문서나 교과서, 방송 등과 같이 공적인 자리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려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게 좋다는 것이지 방언이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 이런 식의 정책은 편 적이 없는 것이죠.

▷ 사회자 : 그럼 돌아와서 새로운 표준어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쁘다'도 이제 표준어가 된 거죠?

▶ 학예연구사 : 그렇습니다.

▷ 사회자 : 예쁘다, 이쁘다. 뉘앙스상으로는 두 단어 사이에 특별한 차이가 있는 걸로 봐야 할까요?

▶ 학예연구사 : 저희들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쁘다'가 좀 더 귀엽다든지 양증맞은 거 아니냐. 또는 두 단어가 쓰이는 대상이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소설 등에 쓰인 자료들을 짚 분석해 보니까 '이쁘다'와 '예쁘다'의 경우에는 사전적으로는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둘이 뜻이 같은 복수 표준어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 사회자 : '이크' 이것도 눈길을 끄네요. 뭔가요?

▶ 학예연구사 : 감탄사 중의 하나인데요.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입니다.

▷ 사회자 : 당황하거나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아니 그러면 그동안은 표준어가 뭐였어요?

▶ 학예연구사 : '이키'였습니다.

▷ 사회자 : '이키'요? '이키'? 당황하고 놀랐을 때 이키해야 한다고, 이거 너무 생소한데요. 무척 생소해요.

▶ 학예연구사 :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키'처럼 대중에게는 생소한 말이 오히려 표준어로 잘 알려진 말은 오히려 비표준어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 규범과 또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좁혀 가는 것 표준어 추가 작업의 취지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언어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것. 이게 국립국어원의 정책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한수진 SBS 전망대 2015년 12월 15일 국립국어원 "이젠 '이쁘다'도 예뻐해 주세요"

(1) 복수 표준어와 별도 표준어로 추가된 단어들은 무엇인가요?

복수 표준어 – 마실, 예쁘다, 찰지다, 고프다

별도 표준어 – 푸르르다, 홀연, 의론, 이크, 앞새

(2) 표준어 추가 작업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언어 규범과 현실 간에 괴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좁혀 가는 것이 표준어 추가 작업의 취지임. 그리고 앞으로 이런 표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언어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것이 국립국어원의 정책 방향임.

3.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학예연구사의 역할에 대해 적어봅시다.

대중의 어휘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검토하며, 전문가들이 모여서 표준어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국어 심의회 등을 기획하고 운영함.

4. 기사에 제시된 내용 외에 그동안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를 검색하여 적어 봅시다.

‘자장면, 태견, 품세’만 표준어였는데 ‘짜장면, 택견, 품새’도 표준어로 지정됨.

별도 표준어로 ‘눈꼬리, 나래, 내음’ 등이 추가됨.

※ 이번 시간에 찾은 표준어를 모둠별로 빙고 게임을 해봅시다.

[게임 방법]

1. 모둠별로 빙고판에 표준어와 관련된 9개의 문제를 만들어 적습니다.
2. 문제를 모두 만든 후에는 따로 정답지를 만들고, 9개의 문제는 각각 붙임쪽지로 가려 둡니다.
3. 두 모둠씩 짝을 지어 서로의 붙임쪽지 빙고판을 교환하고, 모둠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4. 이때 이긴 사람이 속한 모둠에서 상의하여 임의의 붙임쪽지를 떼어 내고 문제를 읽습니다. 만약 문제의 정답을 맞히게 되면 붙임쪽지를 떼어 낼 수 있지만, 틀리면 다시 붙임쪽지로 문제를 덮습니다.
5.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모둠의 대표가 되어 다시 가위바위보를 하여 게임을 진행합니다. 이때 붙임쪽지를 떼어 낸 모양이 가로나 세로, 대각선으로 총 3줄이 이어지면 “빙고!”라고 외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주제: 표준어 제정과 사전 편찬(대한민국 국어사전의 표준을 정하다!)

이 면담의 주인공은 국립국어원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며 <표준국어대사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기도 하고, 사전의 내용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가 직접 말하는 학예연구사 직업의 매력에 대해 알아보시다.

명쾌하고 확실한 의사소통을 위해 힘쓰는 직업

— 국립국어원 최○○ 학예연구사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되려면 특별한 조건이 있나?

국립국어원 누리집 통해 채용 공고가 발표되는데, 최종 학력이 석사 이상 되어야 한다. 즉, 대학원까지 졸업해야 하며 박사 과정까지 밟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국어 국문학, 언어학, 국어 교육학, 한국어 교육학 등을 필수로 전공해야 한다.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면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와 능력을 평가받아 최종 합격된다.

— <표준국어대사전> 업무를 하면서 언제 가장 뿌듯함을 느끼나?

수많은 전문가가 모여 꼼꼼하게 만든 사전이긴 하지만, 그 양이 방대한 데다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그래서 꾸준히 수정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등재되지 않은 정보를 직접 찾아 내고 새롭게 올릴 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추가 설명을 덧붙일 때도 우리 사회가 올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데 내가 보탬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함을 느낀다. 또 민원에 잘 대응했을 때도 그렇다.

— 하지만 그만큼 힘든 점도 많을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예연구사 하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새로운 단어의 파급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새롭게 탄생하는 단어가 많다. 신조어가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그 의미가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그 양이 생각보다 많을 땐 힘든 게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나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너무'라는 단어의 경우 수많은 사람이 긍정적인 의미를 담아 널리 사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등재됐다. 이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과 널리 쓰이는 것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한다. 나의 판단을 거쳐 우리말 규칙이 세워진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크다.

– 어떤 친구들에게 이 직업을 추천하고 싶나? 그리고 이 직업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 준다면?

당연히 우리말에 대해 깊은 관심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단어에 관심을 갖고 의문을 품는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사전을 찾아보는 습관을 가진 친구라면 잘할 수 있을 거다. 평소에 꾸준히 언어 감각을 기르는 게 좋다. 평소 문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 문장이나 단어 이해력이 높아 낱말 뜻을 잘할 수 있을 거고.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평소에 꾸준히 언어 감각을 기르는 게 좋다. 진부하게 들릴지 몰라도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어휘를 구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이게 언어 감각을 키우는 데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출처 : 청소년 진로월간잡지 모두매거진 2015년 10월호.

1. 위 학예연구사는 언제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답하였습니까?

기존에 등재되지 않은 정보를 새롭게 올릴 때 뿌듯함

2. 위 학예연구사는 언제 힘들다고 답하였습니까?

최근 새롭게 탄생하는 단어들이 많아 확인해야 할 것이 많아져 어려움이 있음.

3. 학예연구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까?

우리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평소 언어 감각을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함.

4. ‘우리말샘’ 사전 집필 활동에 참여해 봅시다.

집필 요청한 말	사랑, 가상 현실 게임, 휴대 전화, 필통, 교과서, 사투리, 우정, 아이돌
----------	---

• 어휘(표제어)	가상 현실 게임	중복 확인
• 뜻풀이	<div>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게임.</div>	
• 분류	<input checked="" type="radio"/> 일반어 <input type="radio"/> 방언(지역어)	
용례(예문)	<div>+ 추가 - 삭제 ▲ ▼</div>	
	용례(예문)	<div>가상 현실 게임에 푹 빠진 청소년들.</div>
	출처	<div>OO신문 OO일자 기사</div>

2차시

■ 이 시간에는

새롭게 추가되거나 국민들이 자주 틀리는 표준어를 홍보하는 학예연구사의 직무를 체험해 보거나 직접 집필한 사전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열어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 지도 시에는 학생들이 업무의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학예연구사들이 실제적인 언어 생활에 관심을 갖고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학습 목표

- 가.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되어 보는 체험을 통해 대중에게 표준어를 홍보한다.
- 나.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되어 보는 체험을 통해 사전 집필 및 수정 과정을 이해한다.
- 다.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직무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우리말과 글을 소중히 하는 태도를 가진다.

■ 준비물

활동지, 필기구, 붙임쪽지, 색연필, 사인펜, 색지

도입

전시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표준어 제정 또는 사전 편찬과 관련된 활동을 선택하여 학예연구사의 직무를 체험해 보는 2차시 활동을 안내한다.

■ 활동 방법

- 전시에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문답(붙임쪽지에 작성)을 풀며 표준어 제정 및 사전 편찬과 관련된 내용을 상기한다.
- 이번 차시에는 앞서 배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의 업무를 경험할 것임을 안내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이전 차시에서 작성한 문답을 칠판에 부착하고, 학생이 직접 앞으로 나와 질문을 읽고 나머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 앞서 기사를 통해 간접 경험한 학예연구사의 세계를 직접 체험해 볼 것이며, 활동이 진행되는 동안 학예연구사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앞서 기사를 통해 간접 경험한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낸 문답으로 다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 다들 전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이번 시간에 배울 활동에 대해 안내 할게요. 모듈별로 할 활동을 결정하도록 합시다.
- 첫 번째 활동은 표준어를 홍보하는 일이에요. 현재 국립국어원에서는 ‘쉽표, 마침표’라는 온라인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우리말 길라잡이’에 자주 틀리는 단어 또는 새롭게 인정된 표준어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직접 ‘우리말 길라잡이’ 쪽지를 완성해 보는 하는 활동이에요.
- 두 번째 활동은 직접 우리들만의 사전을 제작하고, 다른 모듈의 사전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정할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는 활동이에요.
- 그럼 모듈별로 어떤 활동을 할지 결정해 봅시다.

전개

1차시가 이론적인 내용에 대한 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2차시는 관련 직업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한다. 학생들이 학예연구사의 직무 중 표준어 홍보 및 사전 제작 및 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illegible]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국립국어원 간행물 ‘쉽표, 마침표’의 ‘갈무리할 우리말’에 실린 카드 뉴스를 예시로 보여준다.
- 모듈별로 자주 틀리는 표준어 또는 새로 개정된 표준어 목록 중 내용을 선택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한다. 모듈별로 2개씩 제작한다.
- 모듈원들이 카드를 들고 직접 발표를 하거나,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여 교사 컴퓨터로 옮겨 확대한 후 발표하도록 한다. 발표할 때 결과물뿐 아니라, 각자의 역할과 느낀 점을 공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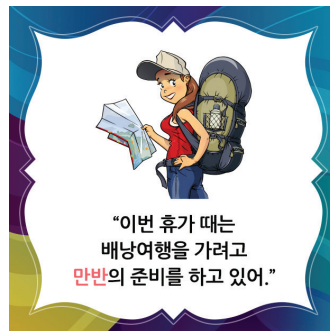
- 모듈별로 활동을 진행한다. 교사는 순회 지도를 통해 모듈별로 과제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준다.
- 활동 2와 동일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 시간을 고려하여 결과물의 수를 조정하도록 한다.
- 가능할 경우 휴대 전화로 촬영을 하여 교사 컴퓨터로 옮겨 확대한 후 발표하도록 하여 카드 뉴스의 전달 효과가 매체를 통해 잘 드러나도록 한다.

- 화면에 어떤 단어가 제시되어 있나요? (대답 후) 그렇죠.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군요. 실제로 국립국어원의 온라인 소식지 ‘쉽표, 마침표’ 쪽지의 한 부분이에요.
- 사람들이 헛갈려 하는 단어 또는 새로 개정되어 홍보가 필요한 표준어를 보급하여 일반 언중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예연구사의 업무를 체험해 보겠습니다.
- 이렇게 짧은 글과 이미지를 여러 장 제시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있나요?
- 카드 뉴스라고 해요.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이러한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있지요. 그 예를 보고 우리도 직접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 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

‘카드 뉴스’의 예로 다음과 같은 그림을 소개할 수 있다.



*출처 : 국립국어원 간행물 ‘섬표, 마침표’

– 각 모듈별로 2편씩 제작하도록 합니다. 제작 후에는 모듈별로 나와서 발표를 할게요.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누리집 > 자료 찾기 > 간행물 보기 > 섬표, 마침표 > 갈무리할 우리말 > 우리말 길라잡이
: 카드 뉴스 형식으로 다양한 우리말 표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교사가 전체적인 활동 순서를 안내한다.

1) 제작하고 싶은 사전의 주제에 대해 토의한다.

예) 학교생활 사전, 감정 사전, 꿈 사전, 색깔 사전, 교과목 사전 등

2) 사전에 등재할 표제어를 5개 결정한 후 모둠별로 토의하여 뜻풀이와 관련 정보를 집필한다.

3) 다른 모둠과 결과물을 공유하여 비교 후, '정보 보완 심의회'를 개최하여 우리 모둠의 사전에 대해 논의한다.

4) 우리 모둠의 사전 내용을 수정, 보완한다.

5) 책자 만들기 영상을 참고하여 하나의 책으로 제작한다.

- 표준국어대사전을 예로 들어 사전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소개한다.
- 정보 보완 심의회를 통해 수정한 사전 내용에 대해 알려 준다(참고: 표준국어대사전 누리집 > 공지사항 > 수정 내용 공개).
- 교사가 책자 만들기 영상을 보여주고 직접 시범을 보인다.
- 활동 순서에 따라 사전을 제작하고 정보 보완 심의회를 개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 활동이 종료된 후, 모둠별로 구성원의 역할, 제작한 결과물, 정보 보완 심의회 회의록, 느낀 점 등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일반적인 사전의 경우, 뜻풀이가 보다 중립적인 성격을 가져야 하지만, 학생들이 자신의 관점을 뜻풀이에 반영한 경우 활동의 목표와 중학교 1학년이라는 대상 학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지적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신성을 존중하여 활동의 결과보다는 체험 자체에 의미를 두도록 한다.
- 학생들이 표제어를 동사와 형용사를 다양한 활용형으로 제시하였다면, '-다'와 같은 기본형으로 통일하여 적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국어 시간에 품사에 대해 이미 학습을 하였을 경우, 품사 정보도 기술하게 하여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추구한다.
- 학생들이 표제어 선정부터 출판 및 수정 보완 작업까지 학예연구사의 업무의 전체적인 과정을 체험해 보면서 직업의 보람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한다.

-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사전의 주제를 모둠 토의를 통해 정해 볼게요. (토의 후)
○○모듬의 주제는 무엇이고 표제어는 무엇인가요?
- 혹시 초등학교 때 종이로 된 사전에 대해 배운 적이 있지요? 우리가 지금부터 제작 할 사전은 종이 사전이라, 표제어를 나열하는 순서도 중요할 거예요. 찾는 사람이 편 하려면 어떤 순서로 배열하면 될까요?
- 순서도 고려하면서, 지금부터 활동지를 채우며 사전의 표제어를 선정하고 집필하는 작업을 해 볼게요.
- 여러분, 선생님이 화면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학교'를 검색한 결과를 보여 줄게요. 사전에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발표해 볼까요?



사진 자료

학교 (學校) | [-교]

활용 정보:

▣ 어학 보기

『명사』 『교육』

일정한 목적·교과 과정·설비·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누학원(學院) 「1」.

『학교에 다니다/학교를 졸업하다/학교를 세우다/아이를 학교에 보내다/너도 이다음에 학교에 가서 배우면 알겠지』만 훌륭한 사람은 모두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된 거란다. <잘못학, 위사가 보이는 풍경>

관용구/속담

학교 구경도 못 하다

학교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다.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이 되기 전에는 학교 구경도 못 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

학교 근처에도 못 [안] 가 보다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다. 누학교(學) 구경도 못 하다. 『할아버지께서는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보셨으나 한글은 깨우치셨다.』

학교(는) 구경도 못 하다

=학교 근처에도 못 [안] 가 보다. 『나도 학교는 구경도 못 해 보고 자란 사람이야.』

- 표준국어대사전에는 표제어, 발음, 활용 정보(용언), 한자, 품사 정보, 해당 분야, 뜻풀이, 용례, 관용구/속담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제공된 정보들을 참고하여 기술해야 합니다. 특히 표제어, 뜻풀이, 용례 등은 필수적으로 포함해 봅시다. 집필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다른 모듈과 활동지를 바꾸어 보며 내용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 지금부터는 사전의 내용을 수정해보는 이른바 ‘정보 보완 심의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 집필한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의 내용이 수정된 사례를 준비했어요. 어떤 단어의 뜻풀이가 수정되었나요?

뜻풀이 수정			
표제항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사교육	사립 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되고 운영되는 교육.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도권 밖에 서 하는 교육	뜻풀이 수정

표제어 추가			
표제항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도로명^주소	X	도로명^주소(道路名住所) 『법률』 도로명을 기준으로 하여 건물이나 토지에 고유 번호를 붙인 주소.	표제어 추가

참고: ^: 원칙적으로 띄어 써야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는 의미임.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 공지사항 > 2016년 3,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

- 네, 맞아요. 사교육이라는 단어는 과거에 ‘사립 학교와 같이 법인이나 개인의 재원에 의하여 유지 되고 운영되는 교육’이라고 뜻풀이가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사교육=학원’의 의미로 많이 쓰이고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면서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하여 제도권 밖에서 하는 교육’과 같이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뜻풀이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단어가 있나요?
- 맞아요. 도로명 주소는 왜 추가되었을까요? 네. OO이가 잘 대답해 주었네요.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재한 단어는 사전에 이렇게 실어 주어야겠죠. 이렇게 사전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의 세상의 모습을 잘 담기 위해 노력한답니다.
- 이렇게 기존에 여러분들이 결정한 사전 기술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게요. 제시된 활동지에 있는 회의록도 작성해 주세요.
- 수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만들어 볼게요. (교사 시범)



수업 돋보기

책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또 아래 경로로 검색하면 책 만드는 법을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다.

- ①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는다.
- ② 접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세로로 접는다.
- ③ 다시 펴서 가운데 접힌 부분을 반만 자른다.
- ④ 종이를 완전히 펼쳐서 자른 방향으로 적는다.
- ⑤ 8면이 나오게 접으면 작은 책(사전)이 완성된다.

*출처 : 미니북 도감 만들기, 네이버 동영상 백과

경로 : 네이버 누리집 → 네이버 지식백과 → 동영상백과 → 미니북 도감 만들기

- 여러분들이 제작한 책에 사전의 내용을 옮겨 적고 우리 모두의 주제에 맞게 꾸며 사전을 완성해 봅시다.
- 대중의 언어 사용을 고려하여 현 사전을 수정해 가는 작업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는 것을 활동을 통해 다들 느꼈을 것입니다.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앞으로 사람들의 언어생활 전반에 관심을 갖고 궁금한 단어가 생겼을 경우에 사전을 찾아보고 또 사전에 기술된 내용이 적절한지 스스로도 고민해 보는 습관을 가지면 도움이 될 겁니다.

참고자료

·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

: 학생들이 직접 사전을 만들어 보는 '우리들의 사전 만들기' 수업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정리

1, 2차시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과 새롭게 깨달은 점, 소감 등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생각을 정리하게 한다. 소감을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우리말에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우리말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활동 방법

- 1, 2차시 활동을 돌아보고 활동에 참여한 소감을 적는다.
- 소감을 친구들과 공유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활동에 참여한 소감에는 느낀 점,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 등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여러분, 오늘 활동 재미있었나요?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은 표준어를 꾸준히 확대하고 변화된 언어 현실을 반영하여 언어 규범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는 직업입니다. 또 국어사전을 보완하며 국어에 담긴 우리의 지식과 문화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 직업은 국어에 대한 지식도 많아야 하고, 또 대중의 언어생활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말을 아끼고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처럼 큰 보람도 느낄 수 있지요.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들의 직무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어요. 해당 직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많지요? 앞으로 국립국어원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또 참여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우리말과 글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2차시- 활동 1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직업 체험 (표준어 홍보하기)

※ 표준어 홍보 활동을 해 봅시다.

1. 우리 모두가 홍보할 표준어를 선정해 봅시다. (카드 뉴스 2개 제작)

자장면, 짜장면(복수 표준어), 웃어른(O), 웃어른(X)

2. 6컷의 장면 계획판을 작성해 봅시다.

1			
2			

주제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직업 체험(사전 제작·수정하기)

※ 사전 제작 활동을 해 봅시다.

1. 우리 모둠이 제작할 사전의 주제를 결정해 봅시다.

주제	예) 학교생활 사전, 감정 사전, 꿈 사전, 색깔 사전, 교과목 사전 등 중학교 1학년을 위한 학교생활 사전
주제 선정 이유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였을 때 초등학교 때와 다른 학교 생활 용어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다. 따라서 후배들을 위한 사전을 제작하여 도움이 되고 싶다.

2. 우리 모듬의 표제어를 사전 등재 순서대로 적고, 빈칸을 채워 봅시다.

〈뜻풀이(학생 활동) 예시〉

1 스마트폰	현대사람들이 주로사용하는 연락수단으로 매우 기능이많은것 하지만 이것때문에 사람들간의 대화가 적어지않 다양한기능으로 편의해진 발전된 휴대폰
2 아 피 머리	얼굴을 장식보여주는수단으로써 본성위로올라가면 오히려 독이되는 여학생들의 생명 비람불면날라갈까 두연 날라갈까 여학생들이 애기다죽듯 애자중지하는 여학생들의 상징중 하나

순서	표제어	뜻풀이	용례	기타 정보
1	수행 평가	선택형 시험이 아니라 학생이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 물을 평가하는 방법.	국어 수행 평가로 모듬원들과 영상을 제작하였다.	품사 정보 : 명사
2				
3				
4				
5				

3. 우리 모듬의 사전에 대해 정보 보완 심의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봅시다.

제 1회 ()사전 정보 보완 심의회 회의록

1) 일시:
2) 장소:
3) 참석자:
4) 논의 내용

해당 표제어	수정 · 보완 제안 내용	협의 결과
출석 체크	'출석'이라는 더 기본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합성어인 '출석 체크'를 심는 것은 문제가 있음. 게다가 '체크'는 영어 표현이기 때문에 사전에 표제어로 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출석 체크'를 삭제하고 '출석'을 표제어로 등재하기로 결정함.

4. 기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을 책자로 제작해 봅시다.

〈사전을 책자로 제작하기〉

1.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접는다.
2. 접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세로로 접는다.
3. 다시 펴서 가운데 접힌 부분을 반만 자른다.
4. 종이를 완전히 펼쳐서 자른 방향으로 접는다.
5. 8면이 나오게 접으면 작은 책(사전)이 완성된다.

2. 우리말글 같고 닮기

■ 이 단원은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 및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모의 체험을 통해 해당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실제 우리말 다듬기 및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게 한다.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는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자료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직접 학예연구사의 업무를 수행해 봄으로써 해당 업무의 가치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 목표

- 가.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담당하는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와 내용을 설명한다.
- 나.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담당하는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체험해 봄으로써 관련 직업의 가치를 인식하고,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한다.
- 다.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말을 가꾸려는 태도를 갖는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 및 내용을 이해한다.•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세부 절차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가치를 인식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등의 업무 이해하기•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가치 인식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 및 내용을 이해한다.•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의 입장이 되어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체험한다.•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말과 글을 가꾸려는 태도를 갖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하기• 우리말과 글을 가꾸려는 태도 갖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와 특성, 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학생들이 해당 업무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 수준에 맞는 구체적 사례를 활용하여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의 절차를 설명한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와 매체를 활용하여, 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하게 한다.

■ 학습 목표

- 가.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한다.
- 나.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세부 절차를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 다.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가치를 인식한다.

■ 준비물

공책, 필기도구, 색지, 테이프

도입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과 관련된 질문을 통해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활동 방법

- 시사성 있고 흥미로운 우리말 다듬기 사례를 하나 선정하여, ‘다듬은 말’은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드론’은 ‘무인기’로 ‘신 스틸러’는 ‘명품 조연’으로 순화된 것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관련된 사진 자료를 사용하여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 문제가 있는 공공언어 표현 하나를 선정하여, 이러한 말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학생들에게 질문한다. 다음 예시는 학생들이 많이 접하는 가정 통신문에 사용된 표현이다.

[예: 학교 교육비 통합 지원 신청 안내 가정 통신문에 사용된 표현]

수정 전	수정 후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각하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 보세요.

도입 단계의 활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볍게 질문을 던지며 학생들의 관심을 유도한다.

- 여러분 혹시 '드론'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혹시 '신 스틸러(scene stealer)'라는 말 들어보았나요?
- 얼마 전 국립국어원에서 '드론'과 '신 스틸러' 대신 '무인기'와 '명품 조연'이라는 '다듬은 말'을 제시했다고 해요. 이와 같은 다듬은 말은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일까요?
- 또 우리가 매일 접하는 가정 통신문에도 어려운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 이 말은 '교육비 지원 신청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각하'라는 어려운 표현 대신 '거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니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이와 같이 공공언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작업을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지 이번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해요.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
: 우리말 다듬기 결과를 예문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publang/index.jsp>)
: 공공언어 개선 사례 및 공공언어 쓰기에 관한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전개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우리말 다듬기에 관한 활동과 설명을 한 다음, 공공언어 개선에 관한 활동과 설명을 한다.
-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두 항목 모두 학생의 활동이 이루어진 후 이를 토대로 각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다.
- 학생 활동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지를 작성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설명은 [개념, 필요성, 사례] →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사업] → [연구 활동]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 보세요.

교사의 일방적 설명보다는 학생과 교사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각 항목의 개념과 필요성,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한다.

■ 지식 갈무리

●우리말 다듬기와 관련된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업무

- 우리말 다듬기를 위한 연구 사업 기획 및 연구
 - 학예연구사는 우리말 다듬기에 대한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우리말 다듬기 관련 연구에도 직접 참여한다.
 - 국립국어원에서는 그간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국어 순화 자료집',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연구' 등 우리말 다듬기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 말다듬기위원회 운영을 통한 국어 순화 실천
 - 학예연구사는 문인, 언론인, 학자 등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말다듬기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다듬을 필요가 있는 말을 선정하고 다듬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한다.
- 다듬은 말 홍보
 - 국립국어원 누리집과 블로그, 보도자료 등을 통해 다듬은 말을 홍보하는 일을 한다.

●우리말 다듬기(국어 순화)의 의미

국어를 다듬는 일. 외래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표준어로 또는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쓰는 것 따위이다.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우리말 다듬기 운동 진행 결과

본격적인 우리말 다듬기 운동이 전개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다. 해방 이후 초창기의 우리말 다듬기 운동은 일본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몰아내는 작업부터 시작되었다. 해방이 되면서 잃었던 국어와 국문을 도로 찾았다는 흥분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본어를 고유어로 바꾸고 한글만 쓰자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던 것이다. 국어와 한글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로 인식되었으니, 외래어 특히 일본어에서 들어온 말에 대한 민족 감정이 어떠하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중략)

1984년에 국어연구소가 세워지고, 국어연구소가 1991년에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으로 승격돼 우리말 다듬기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기관으로서 우리말 다듬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성과에 대해 후한 평가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립국어연구원(현 국립국어원)이 개원한 이래 2003년 말까지 공식적으로 다듬어 내놓은 말만 해도 21,000여 개가 넘지만 이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일반 국민들 또한 이에 대한 관심이 극히 낮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는 무엇보다 주로 전문어를 대상으로 다듬었고, 또 몇몇 관련 전문가들이 다듬을 말을 선정하고 다듬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말 다듬기가 몇몇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게 되면 시의적절한 다듬을 말을 선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또한 일반 국민들의 언어 의식에 합치되는 다듬은 말을 마련하지 못할 개연성도 작지 않다. 그리고 다듬은 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은 채 다듬은 말을 대량으로 만들어 일방적으로 보급하는 것은 오히려 일반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경직시킬 수밖에 없으며 바라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 7월 5일부터 동아일보, 동아닷컴, 케이티(KT)문화재단 등과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www.malteo.net)를 마련하여 낯선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일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의 우리말 다듬기 방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이 매주 다듬어 써야 할 외래어나 외국어를 하나씩 선정하여 발표하면 일반 국민이 이 사이트를 통해 해당 외래어나 외국어를 대신할 우리말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이렇게 제안된 말 가운데 몇몇을 추려서 그것을 후보로 투표를 하여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말이 다듬은 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러한 다듬은 말 선정 방식은 이전까지의 다듬은 말 선정 방식과는 다르다. 이제까지의 우리말 다듬기가 정부나 전문가 집단에서 주도하는 하향적, 일방적, 타율적인 방식이었다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통한 우리말 다듬기는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적, 쌍방향적, 자율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진 다듬은 말은 일반 국민들의 언어 감각에 더 잘 맞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다듬은 말을 자연스럽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다듬은 말의 정착에 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매달, 2015년에는 8회 2016년에는 5회 말다듬기위원회를 열었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을 통해 다듬은 말은 451개이고, 지금까지 다듬은 말은 모두 21,000여 개에 이른다. 다듬은 말은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출처 :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 공공언어의 뜻

‘공공언어’는 사적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적인 언어와 달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즉,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인 공공언어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생산 주체	종류	
	문어	구어
행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공 기관	보도 자료, 법령, 판결문, 계시문, 안 내문 설명문, 홍보문, 민원 서류 양 식 등	정책, 브리핑, 대국민 담화, 전화 안내 등
민간단체 민간 기업 등	[신문, 인터넷 등의] 기사문, 은행· 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 사용 설명서, 홍보 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 현수막, 공연물 대본, 자막 등	방송 언어, 약관이나 사용 설명 안내, 공연물의 대사 등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 공공언어와 관련된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의 업무

-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기획 및 운영 / 연구 참여
 - 학예연구사는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공공언어 관련 연구에도 직접 참여함.
-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공공언어를 다듬고자 지원을 요청하면 공공언어를 다듬어 주는 업무를 수행함.
- 공공언어 쓰기 관련 책자 개발
 -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와 같은 공공언어 쓰기 관련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함.

활동 2

◎ 활동 1의 방법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의 ‘이렇게 바꿨어요!’ 게시판에 탑재된 사례 및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듬은 말 게시판에 제시된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지를 구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다듬은 말’을 만들어 학습지에 써 보게 한다.
- 학생들의 ‘다듬은 말’ 발표를 들은 후, 우리말 다듬기의 개념,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 다듬은 말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우리말 다듬기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할지 각자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짝과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말다듬기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21,000여 개의 다듬은 말을 종합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 등을 소개하며 학예연구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 우리말 다듬기와 관련된 국립국어원 연구 사업을 소개하여 학예연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다듬은 말’ 사례를 선정한다.
- 우리말 다듬기 업무를 단순 나열하지 말고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 학습지에 있는 ‘이렇게 바꿔 보자’ 활동을 보세요. ‘로드뷰(road view)’, ‘텀블러(tumbler)’, ‘테이크아웃(take-out)’, ‘팝업창’, ‘가라’와 같은 말을 어떻게 다듬으면 좋을지 고민하여 적어 보세요.
- 선생님이 칠판에 단어별로 색지를 붙여 놓았으니 각자 나와 자신이 만든 ‘다듬은 말’을 색지에 적어 보세요.
- (학생들이 만든 다듬은 말을 소개한 후) 여러분이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나요?
- 맞아요. 우리말 다듬기가 매우 필요한 일이고 적절한 다듬은 말을 만들기 위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죠.
- 그럼 우리말 다듬기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학예연구사는 국립국어원에서 운영하는 ‘말다듬기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여기서 결정된 다듬은 말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 국립국어원에서는 그간 ‘일본어 투 용어 순화 자료집’, ‘국어 순화 자료집’,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집’, ‘중앙 행정 기관의 전문 용어 개선 지원 및 순화어 정비 연구’ 등 우리말 다듬기와 관련된 다양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에 접속해 보면 그간 학예연구사가 다듬은 말을 검색해 볼 수 있어요.

[illegible]

출처 : 사전 교정자의 <디옌를 말든>에			
* 1991년 출판물 지음(1977~1991 출판물) 2002년 출판물지음까지 21,000여 개의 출판물을 출판한 <국어 순화 위원회 발간>(2003년)과 2004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뉴스레터>에서 디옌를 말든 것을 알릴 수 있습니다.			
<div>출판물 및 출판물지음</div>			
전체	<input checked="" type="checkbox"/>	단문보기	특기
번호	순화명	표준어	태국어
21547	(-)지	次	(-) 3차(차)
21548	(-)지	地	(-) 3차(차)
21545	(-)지	次	(-) 3차(차)
21544	(-)지	次	(-) 3차(차)
21543	(-)지	次	(-) 3차(차)
21542	(-)지	次	(-) 3차(차)
21541	(-)지	次	(-) 3차(차)
21540	(-)지	次	(-) 3차(차)
21539	(-)지	次	(-) 3차(차)
21538	(-)지	次	(-) 3차(차)

그리고 다듬은 말 게시판을 통해 21,000여 개의 다듬은 말을 종합한 국어 순화 자료집 합본(2003년)과 2004년부터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다듬은 말을 검색할 수 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탑재된 ‘공공언어 홍보 동영상 본편(7분 53초)’을 시청하면서 학습지를 작성한다.
- 학습지의 내용을 확인하며 공공언어의 개념, 공공언어 개선의 필요성, 공공언어 개선 사례에 대해 설명한다.
-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공공언어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할지 각자 생각하고 이에 대해 짝과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
-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을 활용하여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언어 지원 사업의 내용과 학예연구사의 역할에 대해 설명한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공공언어 안내 자료[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등이 있다.
- 공공언어와 관련된 국립국어원 연구 사업을 소개하여 어떠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학예연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 여러분, 지금부터 ‘공공언어’에 관한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테니, 영상을 보면서 학습지의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분 생각을 써 보세요.

공공언어 홍보 동영상

공공언어 홍보동영상 본편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2012. 10. 24.
· 조회	6603		



■ 제목: 공공언어 홍보동영상 본편
■ 분량: 7분 53초

경로: 국립국어원 누리집 → 국어원 소개 → 국어원 소개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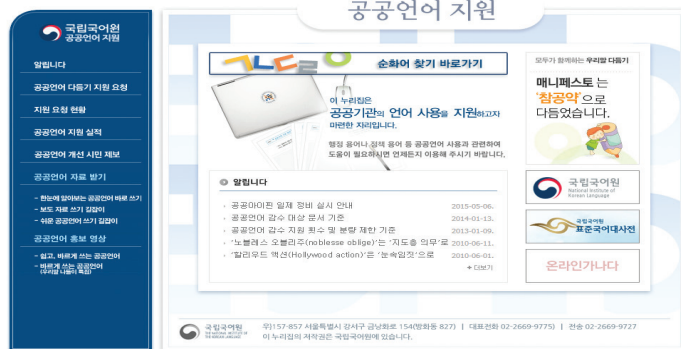
이렇게 해 보세요.

-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학습지를 작성하게 하여 추후 활동과 연계될 수 있게 한다.
- 공공언어 개선 사업의 내용을 단순 나열하지 말고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설명한다.

- 다 풀어 보았나요? 먼저 공공언어가 무엇인지 말해 볼 사람?
- 그럼 공공언어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 말해 봅시다.
- 그럼 공공언어 개선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들은 어떤 일들을 할까요? 국립국어원에서는 그간 공공언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연구와 정책을 실행해 왔고, 그 과정에서 학예연구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 우선 여기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진 자료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 국립국어원에서는 공공언어를 다듬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다듬어 줍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공공언어 담당 부서의 학예연구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와 같은 책자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데, 학예연구사는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지 기획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직접 연구 및 개발에 참여하기도 하지요.

정리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을 정리한다.

■ 활동 방법

-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서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학생들에게 확인 질문을 한 후, 정리하여 설명한다.
-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서 학예연구사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일부 학생들의 소감을 듣는다.
- 다음 차시에서는 학예연구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실제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할 것임을 안내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교사가 일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보다는 학생들의 답변과 소감 등을 통해 함께 내용을 정리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 여러분 이제 이번 차시 수업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해요.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했죠?
- 네 맞아요. 학예연구사는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고, 실제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 그럼 오늘 수업을 통해 느낀 점을 발표해 볼까요?
- 오늘 수업을 통해 학예연구사가 하는 일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도 깨달은 것 같아요.
- 다음 차시에는 여러분이 직접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실제로 체험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1차시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우리말 다듬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 학예연구사의 역할 중 ‘우리말 다듬기’에 대해 알아보시다.

1. 다음 표에 제시된 각 단어들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생각하여 ‘다듬은 말’을 써 봅시다.

다듬어야 할 말	(내가 생각한) 다듬은 말
로드 뷰(road view)	거리 보기
텀블러(tumbler)	통컵
테이크아웃(take-out)	포장 구매, 포장 판매
팝업 창(pop-up 창)	알림창
가라(〈일〉kara)	가짜, 헛-

〈참고〉 관련 예문(출처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 (1)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 가 보는 약속 장소를 확인할 때 휴대 전화로 로드 뷰를 먼저 확인한다.
- (2)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대신, 환경도 보호할 수 있고, 보온·보랭 효과도 있으며, 패션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텀블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 (3) OO 커피 전문점은 음료를 테이크아웃하는 손님에게 할인을 해 준다.
- (4) 구청 누리집 팝업 창을 통해 이번 행사 누리집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 (5) 업주는 서류를 가라로 꾸며 거액을 탈세하였다.

2.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우리말 다듬기’ 활동의 뜻을 적어 봅시다.

나의 생각	선생님의 설명
	국어를 다듬는 일. 외래어를 가능한 한 고유어로, 비속한 말을 고운 말로, 틀린 말을 표준어로 또는 맞춤법에 맞게 바르게 쓰는 것 따위이다. *출처: 표준국어대사전

(2) 우리말 다듬기 활동에서 학예연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 봅시다.

나의 생각	선생님의 설명
	- ‘우리말 다듬기’를 위한 연구 사업 기획 및 운영 / 연구 참여 - 말다듬기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리말 다듬기 실천 - 다듬은 말 홍보

1차시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공공언어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 학예연구사의 역할 중 ‘공공언어 개선’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공공언어 홍보 영상’을 보며 다음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1) 공공언어의 뜻을 적어 봅시다.

나의 생각	선생님의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 - 정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언어

(2) 홍보 영상에서 소개된 공공언어 개선 사례를 정리해 봅시다.

〈관공서의 공공언어 사용〉

- 각하 : 신청한 내용을 거절
- 경증 : 병이 가벼운 증세
- 차상위(계층) : 기초 생활 보장 수급 대상 바로 위 계층
- 어려운 행정 용어 사례 : 경정, 미등기 양도 자산, 사방 사업 소요 비용

〈정책 용어〉

- Walking School Bus → 보행 안전 도우미
- SESE 나라 → 지구 지킴이단
- 사이버 케미칼 감시단 → 화학 물질 사이버 감시단
- 도네이션 스쿨 → 교육 기부 학교
- 가래떡 오피스 어택 → 가래떡 나눔
- 아웃리치 활동 → 구호 지원 활동

2. 공공언어 개선 활동에서 학예연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 봅시다.

나의 생각	선생님의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 기획 및 운영 / 연구 참여 - 공공언어 다듬기 지원 - 공공언어 쓰기 관련 책자 개발

2차시

■ 이 시간에는

학생이 직접 학예연구사가 되어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학생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적절한 순화 대상 자료와 개선 대상 공공언어 자료를 제공하여 활발히 참여하게 한다. 지도 시 각 업무의 세부 절차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해당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직업적 보람을 느끼게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 학습 목표

- 가.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목표와 내용을 이해한다.
- 나.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의 입장이 되어 우리말 다듬기,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체험한다.
- 다.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우리말과 글을 가꾸려는 태도를 갖는다.

■ 준비물

공책, 필기도구, 색지, 테이프

도입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과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학생들이 어떤 업무를 체험할지 스스로 선택하게 한다.

■ 활동 방법



수업 돌보기

학생들이 체험 활동의 성격과 의의, 절차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과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 방식에 대해 안내한다.

•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은 이렇게

1.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을 선택한 학생들은 4~6명이 한 모둠이 되도록 모둠을 구성한다. 각 모둠원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학예연구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우리말 다듬기 업무를 수행한다. 세부 활동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일시적으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2.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의 '어떻게 바꿀까요?' 게시판의 사례 중 아직 다듬은 말이 선정되지 않은 단어 5개를 선정한다.
3. 선정된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말다듬기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은 공공언어과장 역할을, 한 명은 담당 학예연구사 역할을 맡고 다른 모둠원들은 말다듬기위원회의 구성원(문인, 언론인, 학자 등) 역할을 맡는다.
4. 담당 학예연구사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의 주요 내용을 기록한다.
5. 회의 결과를 정리한 후 다듬은 말을 선정하여,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의 '이렇게 바꿨어요!'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 모둠원 모두가 단어를 1~2개씩 맡아 작성하며, 모든 모둠원이 참여하도록 한다.
6. 모둠별 체험 활동이 끝난 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체험 결과를 발표한다.

•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은 이렇게

1.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을 선택한 학생들은 4~6명 한 모둠이 되도록 모둠을 구성한다. 각 모둠원은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의 학예연구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수행한다.
2.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의 '지원 요청 현황' 게시판을 소개한 후, 가상의 지원 요청문이 접수된 상황을 가정하여 활동한다.
3. 학생의 수준을 고려하여 공고문 또는 보도 자료에 교정이 2/3 이상 완료된 자료와 교정 내용에 대한 해설을 함께 제시하고, 학생들은 이를 참고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하게 된다.
4. 또한 학생에게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检표'와 '쉬운 공공언어 쓰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에 관한 참고 자료를 함께 제공하여 작업시 참고하도록 한다.
5. 모둠별 수정 결과를 공공언어 지원 요청 게시판에 올리는 상황을 가정하여 수정본을 작성한다.
6. 모둠별 체험 활동이 끝난 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체험 결과를 발표한다.

- 학생들이 어떤 체험을 할지 스스로 정하게 한 후, 모둠을 구성한다.
- 이번 시간에는 우리말 다듬기 업무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체험해 볼 거예요. 시간 관계상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체험해 본 후 모둠별로 발표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 선생님이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과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 방식에 대해 설명해 줄 테니 잘 듣고 어떤 것을 체험할지 선택해 보세요.
- 모두 잘 들었죠? 그럼 어떤 체험을 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선택하고 나면 선생님이 모둠을 정해 주도록 할게요.

참고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 공공언어 쓰기의 방법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하고 있다.
- 국립국어원(2016), 2016년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
: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의 개정판이다.

전개

학생들이 학예연구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우리말 다듬기 업무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체험하며, 해당 업무의 특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학생이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활동 1]과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활동 2] 중 하나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활동한다.
- 모둠별 활동이 마무리된 후에는 교사의 안내에 따라 우리말 다듬기 업무를 체험한 학생들과 공공언어 개선 업무를 체험한 학생들이 모두 함께 체험 결과물을 발표하고 소감을 나눈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우리말 다듬기 업무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가 학생들에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업무의 절차를 익히거나 수준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하며 학예연구사 업무의 가치와 보람을 느껴 보는 데 초점을 두어 지도한다.
- 학생들이 '말다듬기위원회' 회의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교사가 적절히 개입하여 회의에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하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지식 갈무리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 국립국어원에서는 문인, 언론인, 학자 등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말다듬기위원회(이하 '말다듬기위원회'라고 약칭함)를 2011년 11월에 처음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 말다듬기위원회에서는 누리꾼들이 제안하거나 국립국어원에서 직접 발굴한 다듬을 말 중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말을 결정한다. 그리고 누리꾼이 제안한 다듬을 말 후보와 말다듬기위원들이 제안한 다듬을 말 후보를 아울러 검토하여 그중에서 다듬을 말을 확정하게 된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의 '어떻게 바꿀까요?' 게시판의 사례 중 아직 다듬을 말이 선정되지 않은 단어를 확인하고, 모둠별 회의를 통해 그 중 5개를 선정한다.
-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서 '말다듬기위원회'의 구성원을 확인한 후, 모둠원들끼리 공공언어과장 역할, 담당 학예연구사 역할, 말다듬기위원 역할(문인, 언론인, 학자 등)을 나누어 맡고, 선정한 단어를 대상으로 하여 '말다듬기위원회'를 개최한다.
- 담당 학예연구사 및 공공언어 과장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회의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말다듬기위원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회의에 참석하여 다듬을 말을 선정한다.
- 회의가 끝난 후에는 역할을 조정하여, 모든 모둠원이 담당 학예연구사라고 가정하고 각각 단어 1~2개씩을 맡아 회의 내용을 정리한 후 다듬을 말을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의 '이렇게 바꿨어요!'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작성한다.

◎ 학생 예상 발화

- [사례 선정] 우리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바꿀까요?’ 게시판을 확인해 보자. 난 ‘라이징 스타(rising star)’에 대한 다듬은 말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
- [역할 분담] ‘말다듬기위원회’ 개최를 위해 역할을 분담해야 하는데, 우선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과장과 담당 학예연구사를 하고 싶은 사람 말해 봐. 문인, 언론인, 학자 등과 같이 말다듬기위원을 하고 싶은 사람도 말해 봐.
- [회의 과정] 전 ‘라이징 스타’는 ‘떠오르는 스타’ 정도로 다듬으면 어떨까 합니다. ‘라이징’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어색하지만 ‘스타’는 많이 쓰는 외래어라서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전 ‘떠오르는 신인’ 정도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다듬는 것이니 ‘스타’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다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이라는 표현에서 그 사람이 ‘신인’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니 ‘신인’으로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사진 자료

‘라이징 스타’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라이징 스타(rising star)’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 주세요!

(보기 1)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사로잡은 **라이징 스타** ○○○이 연말 극장가를 찾는다.
(보기 2) 분양 시장에는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는 **라이징 스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보기 3) ○○○은 작년 유명 뮤지컬로 데뷔하여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라이징 스타는 주목받기 시작한 신인 스타를 이르는 말로 방송 연예계에서 주로 쓰였으나 스포츠 분야나 유통업계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신인을 가리키거나 주목받는 신상품을 가리키는 뜻으로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라이징 스타를 대신할 우리말로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더 알기 쉽고 부르기 쉬운 우리말을 제안해 주십시오.

▲ 제안어 공모 기간: 2016년 10월 13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 **라이징 스타**의 최종 다듬은 말 발표일: 2016년 12월 2일
▲ 다음번 다듬을 말 발표일: 2016년 12월 2일

*주의: 제안어는 반드시 ‘제안어 칸’에 입력을 해 주셔야 정상적으로 등록됩니다.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 ‘라이징 스타’가 꼭 신인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시된 ‘분양 시장에는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는 라이징 스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 ‘라이징 스타’는 사람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 **[회의 결과 정리]** 자 그럼 이제 우리 한두 단어씩 맡아서 회의 내용을 정리하여 ‘이렇게 바꿨어요!’ 게시판에 올릴 수 있도록 글을 쓰자. 이제 모두 담당 학예연구사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돼.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 국립국어원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의 ‘지원 요청 현황’ 게시판을 확인하여, 공공언어에 관한 검토 및 수정 요청이 접수될 경우 적절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답변해야 함을 인식한다.
- 학습지에 제시된 내용이 공공언어 지원 요청 사례라고 가정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모둠원들과 협의한다. 교정이 2/3 이상 완료된 자료로, 학생들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검토 및 수정 작업을 한다.
- 학습지의 참고 자료로 제시된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와 ‘쉬운 공공언어 쓰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참고한다.
- 공공언어 지원 요청 게시판에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모둠별로 수정 결과를 정리한다.

◎ 학생 예상 발화

- **[지원 요청 현황 게시판 확인]** 우리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에 들어가서 지원 요청 현황 게시판을 살펴보자. 여기 보면, 여러 공공 기관에서 안내판이나 홍보 문구 등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올라와 있어.
- **[학습지 제시 활동]** 이제 우리가 학예연구사라고 생각하고 이 사례를 수정하기 위한 협의를 하면 돼. 시작하기 전에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와 ‘쉬운 공공언어 쓰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을 읽어 보자.
- **[협의회]** ‘2016년도 동계행복문화캠프 참가자 선착순 모집공고’를 보면 우선 ‘모집’과 ‘공고’를 붙여 쓴 것이 눈에 띄니다. 이후로도 ‘한자교육’, ‘예절교육’, ‘모집기간’, ‘참가자격’과 같이 띄어 써야 할 단어를 붙여 쓴 것이 계속 보이는데, 이러한 유형의 사례부터 먼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수정 결과 정리]** 이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띄어 써야 할 곳에 표시하고, 그 이유도 적어 봅시다.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누리집 '자료 찾기'의 '연구 보고서'

: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가 게시되어 있어, 공공언어에 관한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 자료

공공언어 개선 사례

○○시 공고 제 20○○ - 1099호

20○○년도 동계 ○○문화캠프 참가자 선학순 모집공고

○○시에서 ○한자교육, ○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교육과 삶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 ○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운영한다. (2000년 중 익힘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동계 한자문화캠프에 참가할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학순 모집합니다.

20○○. 12. 1. ○오

○○시장

1. 참가자 모집

○모집기간: 20○○. 12. 1. ○(월) ~ 12. 15. ○(수) 09:00~18:00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

※네대당 ○명 이상 신청 접수할 경우 1명만 캠프에 참가할 수 있음

○모집인원: 50명(선학순 모집)

○신청방법: ○E-mail 또는 방문 ○접수

○E-mail: ○E-mail ○주소: ○○○○@korea.kr

○방문 ○접수: ○○시청 교육관 평생학습팀

○신청처: 20○○ 동계 ○○문화캠프 참가신청서 1통(붙임)

○참가비: 80,000원(○본인부담)

○참가비 납부: 20○○. 12. 22. ○(수)까지 ○기한내 ○비납부시 참가 포기자로 간주

○계좌 번호: XXX-XX-XXXXXXX(○은행) / 예금주: ○○시청 평생학습센터

※편지서 참가 ○작성을 ○입금 요령

2. 한자캠프 운영

○기간: 20○○. 1. 4. ○(화) ~ 1. 7. ○(금) / 3박 4일 합숙

○장소: ○○마을 일대

○내용: 한자와 관련된 교육

○한자배우기 및 붓글씨: 사자소학, 한자형상원리, 붓글씨 배우기

○전통문화교육: 예절, 보물창기, 오래된 놀이, 나무, 불, 떡 만들기

○우리 고장 이야기: 한옥이야기, 단청 체험 등

3. 문의처: ○○시청 교육관(5층), ☎(0XX) XXX-XXXX

※오전 9시부터 접수가 인접합니다. 14:00시 이전 신청서 제출은 무료 처리함)

표현

(6) ~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 ~을 익힘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 '운영하는'은 빼고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군더더기이므로 '인성을 함양하는'으로 수정한다.

· '우리 선조들의 교육과 삶을 이해하는 것'과 '공동체 생활'은 모두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의 수단이 드러나도록 한다.

(23) 한자배우기 및 붓글씨 → 한자와 붓글씨 교육

· 한자와 붓글씨를 교육하는 것이므로 '한자와 붓글씨 교육'으로 고쳐쓰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맞춤법

(8) 20○○.14 → 20○○. 1. 4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는 연, 월, 일 날짜 뒤에 각각 마침표를 찍는다.

띄어쓰기	날말
(1) 제 20○○ → 제20○○ · '제○호'의 '제(第)'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나오는 숫자와 붙여 쓴다.	(14) E-mail → 전자우편 · 공공 문서에는 순화된 어휘를 한글로 써야 한다. 따라서 E-mail은 '전자우편'으로 고쳐 쓴다.
(2) 모집공고 → 모집 공고 ·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단어 안위로 띄어 쓴다.	(15) 접수 → 제출 (26) 불력 → 불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3장에서 발췌.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

참고 1

‘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

단어	고압적 · 권위적 표현, 차별적 표현(성, 지역, 인종, 장애 등)은 없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쉬운 단어를 사용했는가? (상투적인 한자어, 어렵고 낯선 외국어 · 외래어를 다듬어 썼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줄임말(약어)이나 전문 용어를 친절하게 설명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괄호 안에 쓰지 않고 외국 문자를 바로 노출한 단어는 없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규범에 맞게 썼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문장	문장이 장황하거나 지나치게 길지 않은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단어나 문장은 없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문장 성분끼리 잘 호응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피동 · 사동 표현이나 번역 투 표현은 없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구성	적절한 형식에 맞춰 제시하였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제목이나 소제목이 전달 의도를 잘 보여주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글이 조리 있게 전개되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도표나 수식 등의 보조 자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요 <input type="checkbox"/>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쉬운 공공언어 쓰기’에 좋은 습관

참고 2

‘쉬운 공공언어 쓰기’에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

- ▶ 국어사전을 찾아보고 바른 표기와 의미 등을 확인한다.

길잡이

“표준국어대사전” 찾기 <http://stdweb2.korean.go.kr>



- ▶ 헛갈리는 외래어 표기 등 어문 규범이 궁금하면 국립국어원의 ‘찾기 마당’ 게시판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본다.

길잡이

“외래어 표기” 찾기 http://www.korean.go.kr/09_new/dic/rule/rule_foreign.jsp



- ▶ 한글 맞춤법 등 어문 규범과 관련해서 궁금하면 국립국어원의 가나다전화(1599-9979)를 활용한다.

길잡이

가나다 전화 '1599-9979'(국어친구)

- 국립국어원 가나다 전화(국어생활종합상담실)
 - 상담 시간: 월~금, 9:00~18:00
 -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온라인 가나다’ 게시판에 문의할 수도 있다.
(http://www.korean.go.kr/09_new/minwon/qna_list.jsp)

정리

모듬별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체험 활동을 통해 우리말 다듬기 및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가치와 필요성과 관련하여 무엇을 느꼈는지 이야기하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학생들이 활동의 결과만 간략히 발표하게 하지 말고, 발표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도 함께 발표하게 한다.

■ 활동 방법

- 모듬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간략히 설명하고, 그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를 발표한다. 우리말 다듬기 업무 체험의 경우 다듬은 말을 제시하고, 공공언어 개선 업무 체험의 경우 수정된 항목 중 중요한 것 중심으로 발표한다.
 - 교사가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해 준 후, 체험 활동 과정에서 느낀 점이 무엇인지 발표하게 한다.
 -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가 수행하는 우리말 다듬기 업무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소 국어를 가꾸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 이제 모듬별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간략히 설명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모듬원들과 어떤 의견을 교환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발표해 봅시다.
 - 이번 차시에 체험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을 자유롭게 이야기해 봅시다.
 - 오늘 활동을 통해 국립국어원의 학예연구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 업무의 중요성을 깨달았죠? 여러분도 앞으로 국어를 가꾸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앞으로 우리말 다듬기와 공공언어 개선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2차시

20 년 월 일 1학년 반 번 이름: / 조

주제 : 우리말을 다듬어 봅시다.

※ 다음 양식에 맞게 ‘말다듬기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해 봅시다.

‘말다듬기위원회’ 회의록

- 일시 :
- 장소 :
- 참석자 :
- 다듬어야 할 말 :

• 논의 결과

다듬어야 할 말	논의 내용 (다듬은 말 후보 포함)	다듬은 말
예) 라이징 스타 (rising star)	<p>‘떠오르는 스타’: ‘라이징’은 외국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라 어색하지만 ‘스타’는 많이 쓰는 외래어라서 그대로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음.</p> <p>‘떠오르는 신인’: 이왕 다듬는 것이니 ‘스타’도 그대로 쓸 게 아니라 다듬는 것이 좋을 것 같음.</p> <p>‘라이징 스타’가 꼭 신인을 가리키는 것만은 아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제시된 ‘분양 시장에는 여전히 열기가 식지 않는 라이징 스타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와 같은 문장을 보면 ‘라이징 스타’는 사람이 아닌 것에도 사용되는 표현임.</p>	떠오르는 신인/ 떠오르는 신제품

주제 : 우리말을 다듬어 봅시다.

※ 다음은 공공언어 개선 요청이 접수되어, 수정 중인 자료입니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개선 담당 학예연구사가 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음 자료의 검토 및 수정 작업을 완료해 봅시다.

행복시 공고 제 2016 - 1099호

2016년도 동계 행복문화캠프 참가자 선착순 모집공고

행복시에서 한자 교육, 예절 교육,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교육과 삶을 이해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생활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2000년 동계 한자문화캠프」에 참가할 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6. 12. 1.

행복시장

1. 참가자 모집

- 모집 기간: 2016. 12. 13.(월) ~ 12. 15.(수) 09:00~18:00
- 참가 자격: 공고일 현재 행복시에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교 3~6학년 재학생
- 모집 인원: 50명(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E-mail 또는 방문 접수
 - E-mail 접수: happy@korea.kr
 - 방문 접수: 행복시청 교육관 평생학습팀
- 신청 서류: 2016 동계 행복문화캠프 참가 신청서 1통(붙임)
- 참 가 비: 80,000원(본인부담)
- 참가비 납부: 2016. 12. 22.(수)까지(기한 내 미납부 시 참가 포기자로 간주)
 - 계좌 번호: XXX-XX-XXXXXX(행복은행) / 예금주: 행복시 평생학습센터
- ※ 반드시 참가 학생 명의로 입금 요망. 취소 시 참가비는 차월 1일에 환불함.

2. 한자캠프 운영

- 기간: 2016. 1. 4 ~ 1. 7. / 3박 4일 합숙
- 장소: 창의마을 일대
- 내용
 - 한자배우기 및 붓글씨: 사자소학, 한자 형성 원리, 붓글씨 배우기
 - 전통문화 교육: 예절, 보물찾기, 오래된 놀이, 나무 불럭 만들기
 - 우리 고장 이야기: 한옥 이야기, 단청 체험 등

3. 문의처: 행복시청 교육관(5층), ☎0XX) XXX-XXXX

※ 12. 13.(월) 오전 9시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확정된 신청자 명단은 행복시청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표현

~로 바른 인성함양을 위하여 운영하는 → ~을 익힘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 ‘운영하는’은 빼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는 군더더기이므로 ‘인성을 함양하는’으로 수정한다.
- ‘우리 선조들의 교육과 삶을 이해하는 것’과 ‘공동체 생활’은 모두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것’의 수단임이 드러나도록 한다.

맞춤법

2016. 1. 4 → 2016. 1. 4.

-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는 연, 월, 일 날짜 뒤에 각각 마침표를 찍는다.

띄어쓰기	낱말
<p>제 2016 → 제20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호’의 ‘제(第)’는 접두사이므로 뒤에 나오는 숫자와 붙여 쓴다. <p>모집공고 → 모집 공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 	<p>E-mail → 전자우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문서에는 순화된 어휘를 한글로 써야 한다. 따라서 E-mail은 ‘전자우편’으로 고쳐 쓴다. <p>접수 → 제출</p>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국립국어원(2016), 「2016년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쓰기」에서 발췌

예시 답안)

수정 결과	수정 이유
신청방법 → 신청 방법	표준국어대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 않은 것은 단어 단위로 띄어 쓴다.
블럭 → 블록	블럭의 바른 표기는 블록이다.
차월 → 다음 달	어려운 한자말 대신 쉬운 우리말을 쓴다.
홈페이지 → 누리집	외래어는 다듬은 우리말로 쓴다.
한자배우기 및 붓글씨 → 한자와 붓글씨 교육	한자와 붓글씨를 교육하는 것이므로 '한자와 붓글씨 교육'으로 고쳐 쓰면 그 뜻이 더욱 분명해진다.

4장

우리말 꿈터 전시 연계 프로그램

1. 알고 쓰는 우리말글
2. 아껴 쓰는 우리말글

1. 알고 쓰는 우리말글

■ 이 단원은

우리말 꿈터 전시 중 ‘출발! 우리말 여행(지혜가 반짝이는 속담, 지역 방언으로 노래 하기)’과 연계되어 있다. 이 단원은 크게 관용 표현에 대한 학습과 방언에 대한 학습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관용 표현의 개념과 특징은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지역 방언의 개념과 특징은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이미 학습한 바 있다. 이러한 선수 학습 내용을 심화하고, 관용 표현을 표현 효과 면에서 평가하며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 방언뿐 아니라 사회 방언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새롭게 학습하고, 각 방언이 어울리는 상황을 구별하며 상황에 따라 표준어와 방언을 적절하게 선택하게 한다.

■ 학습 목표

- 가. 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을 설명한다.
- 나.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알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 다.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등 언어의 다양한 변이를 이해한다.
- 라. 표준어와 방언을 담화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한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용 표현의 개념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글을 쓸 때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관용 표현의 개념 알아보기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 알기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 알기관용 표현을 글에 활용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의 개념을 이해한다.우리말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한다.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개념 알아보기방언 사용의 효과 파악하기방언이 어울리는 상황과 표준어가 어울리는 상황 구별하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관용 표현이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음을 파악한다. 이어서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관용 표현을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하게 한다.

이 시간의 학습 내용은 비교적 가까운 시기, 즉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학습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개념 설명과 문화적 특징 부분은 축약하여도 된다. 선수 학습의 심화 수준에 해당하는 관용 표현을 현대 문화적 배경에 맞게 변용하기,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등에 더욱 비중을 두어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게 한다.

■ 학습 목표

- 가. 관용 표현의 개념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한다.
- 나.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
- 다. 글을 쓸 때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한다.

■ 준비물

활동지

도입

초등학교 5~6학년군에서 학습한 관용 표현의 개념을 예와 함께 제시한다.

■ 활동 방법

관용 표현의 개념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한다. 이때 학생들에게 친숙한 관용 표현을 예로 든다.

- 안녕하세요, 여러분.
- 이번 시간에는 관용 표현에 대해 학습해 볼 거예요. 관용 표현이 무엇이지요?
- 그래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와 같은 속담도 관용 표현에 포함되지요. 속담 외에는 어떤 말이 관용 표현에 속하는지 생각해 볼까요?
- ‘눈이 높다’는 무슨 뜻이죠? ‘눈이 낮다’는요? ‘눈이 높다’는 ‘안목이 좋다’, ‘정도 이상의 좋은 것만 찾는 버릇이 있다’는 뜻입니다. ‘눈이 낮다’는 ‘눈이 높다’와 뜻이 반대고요.
- 그렇다면 ‘눈이 높다’와 ‘눈이 낮다’라는 말이 있으니 ‘입이 높다’와 ‘입이 낮다’라는 말도 쓸 수 있을까요?
- 네, 못 쓰지요. 아무 말이나 붙인다고 특별한 뜻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둘 이상의 단어가 관습적으로 결합하여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말’을 관용어구라고 해요. 관용어구와 속담 등을 통틀어 관용 표현이라고 하지요.
- 좋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참고 자료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각종 관용 표현을 정확하게 찾아 볼 수 있다.
-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공저(2016), 『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 각 문법적 원리에 대해 풍부한 사례가 첨부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다.

전개

모둠 활동을 통해 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과 표현 효과를 이해한다. 그리고 직접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짓는 공동 창작 활동을 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활동 1에서는 활동지를 보며 관용 표현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배경을 알아본다. 관용 표현에 드러난 농경 문화, 주거 양식, 전통적 생활 도구 등을 찾고, 이것들을 현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바꿔 공동 창작을 해 보는 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 관용 표현이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실감하며 문화적 특성을 살려 글을 참신하게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다.

- 활동 2에서는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평가하고 이를 글쓰기에 활용한다. 관용 표현이 사용된 글을 읽고 표현 효과를 따져 보며, 관용 표현을 일상적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의 차이점을 적어 보도록 한다. 이어서 글의 일부 표현을 관용 표현으로 바꾸어 보기, 관용 표현을 넣은 짧은 글 짓기 등의 활동을 하며 표현 효과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관용 표현을 글쓰기에 활용할 줄 알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학생들은 ‘관용 표현’이라고 하면 흔히 ‘속담’을 먼저 떠올린다. 이 때문에 ‘관용어’라는 부류도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일 뿐, 관용어와 속담의 구별은 본 단원의 주요 학습 내용이 아니다. 혹시 이 점을 궁금해 하는 학생에게는 관용어든 속담이든 두 단어 이상이 모여 한 덩어리처럼 쓰이며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므로 관용 표현으로 묶인다는 점에 주목하도록 이끌 필요가 있다.
- 새로운 관용 표현의 학습은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아니므로, 관용 표현을 많이 제시할 필요는 없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관용 표현을 충분히 이해하고 표현 효과를 평가하며 활용할 줄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지식 갈무리

• 관용어구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어구(語句)이다. 예를 들어 ‘발이 넓다’는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를 뜻하는 것이다.

• 속담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말로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표현이다.

• 관용어, 관용어구, 속담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관용어’가 ‘관용구’와 같다고 풀이하고 있고,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이 둘을 묶어서 ‘관용어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속담은 완전한 문장의 형식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관용어 혹은 관용구와 구별하기도 한다. 하지만 속담 중에서 ‘개밭의 편자’처럼 완전한 문장 형식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도 많다.

*출처: 구본관, 박재연, 이선웅, 이진호 공저(2016), 『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활동지에 제시된 관용 표현을 보고 관용 표현에 반영되어 있는 문화적 배경을 파악한다.
- 자신이 처한 현재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관용 표현을 변형한다.
- 공동 창작을 통해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참신한 표현을 써 보도록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학생이 활동지에 없는 관용 표현의 예를 들며 문화적 배경을 질문할 때, 만약 적절히 대응되는 내용이 없다면, 모든 관용 표현에서 문화적 배경을 명확하게 읽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 준다.
- 또한 하나의 관용 표현과 문화적 배경이 일대일 대응을 이루는 것도 아님을 알려 준다.
- 미리 모듈을 구성하여 자리를 배치해 두면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다.



- 자, 이제 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이전 학년에서 관용 표현은 문화를 담고 있다는 점, 배운 적 있지요?
- 관용 표현에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기도 하고, 선조들이 살았던 집의 구조나 각종 생활 도구가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 이제 모듈별로 활동을 할 거예요. 친구들과 의논하며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 자, 먼저 관용 표현 ‘시치미를 떼다’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여러분은 ‘시치미’라는 말을 자주 쓰나요? ‘시치미’는 ‘시치미를 떼다’에서만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대체 ‘시치미’는 무슨 뜻이기에 그것을 ‘떼다’라는 말과 어울려 쓰이게 된 것일까요? 또 ‘시치미를 떼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친구들과 의논하면서 1번의 질문들에 답해 보세요.

- 다음에는 여러 가지 관용 표현을 봅시다. 이들은 특히 현대와는 다른 문화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관용 표현에 반영된 문화적 특성을 파악해 가며 관용 표현의 의미도 설명해 보세요.
-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전통적 관용 표현을 고쳐 봅시다. 예를 들어,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라는 관용 표현은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낮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여기서 ‘낮’이라는 농기구를 여러분이 일상에서 좀 더 자주 접하고 사용하는 대상으로 바꾸어 보는 것이지요. 선생님이 ‘빨래집게 놓고 에이(A) 자도 모른다.’로 한번 바꿔 봤어요.
- 관용 표현의 의미는 이미 굳어진 의미여서 일부 단어를 바꿔도 전체적인 의미는 변하지 않아요. 관용 표현의 의미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말을 바꾸어 보세요. 친구들마다 아이디어가 다르니 재미있는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네요. 모둠별로 각각 몇 개씩 바꿨는지도 한번 세어 볼까요?
- 이어서 바꾼 표현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공동 창작으로 한 편의 글을 지어 봅시다. 간단한 이야기를 지어 내도 좋고 옛날이야기를 패러디해도 좋아요. 활동 후에는 각 모둠 대표가 발표해 볼 거예요.
- **(활동과 발표를 모두 마친 후)** 모두 재미있게 활동했지요? 먼저 우리는 관용 표현이 문화적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문화를 바탕으로 관용 표현의 의미가 만들어지지만, 한번 만들어진 의미는 일부 단어를 바꾼다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특성도 파악해 봤지요. 이 과정에서 관용 표현이 친구들마다 다양하게 바뀔 수 있음도 볼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공동 창작한 이야기를 통해서 관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 글쓰기 방식이 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활동에서는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볼 거예요.

참고 자료

- 이지혜(2013), 광고매체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의미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어와 문화* 13,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 광고매체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는 관용 표현의 표현 효과를 다루고자 하는 본 수업에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정리

관용 표현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준다. 관용 표현을 사용할 경우 어떤 표현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강조한다.

■ 활동 방법

학습자들에게 활동 1과 활동 2의 의미를 설명하고 정리한다.

-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관용어나 속담 등의 관용 표현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보니 우리 선조들의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의 문화가 그때의 문화와 바뀌었다 해도, 그래서 관용 표현 중 일부의 말을 바꾼다 해도 관용 표현의 고유한 의미는 여전히 유지된다는 점, 활동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지요?
- 또 관용 표현을 씬으로써 인상을 강하게 남길 수 있다는 표현 효과도 발견해 보았지요? 관용 표현을 적절하게 쓰면 빠른 시간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의미를 실감나게 전달할 수도 있었어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언어생활에서 관용 표현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상으로 수업을 마칩니다.

주제 : 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과 표현 효과

※ 다음 자료를 보고 친구들과 의논하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관용 표현 ‘시치미를 떼다’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1) ‘시치미를 떼다’를 넣어 문장을 만들고, ‘시치미를 떼다’를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지 말해 봅시다.

- ‘시치미를 떼다’를 넣어 만든 문장:

과자를 누가 다 먹었는지 언니가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먹지 않은 척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

자기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

(2) ‘시치미’는 현재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시치미’가 무슨 뜻인지 (1)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짐작해 봅시다.

흔적, 증거물, 기록물 등

(3) ‘시치미’의 유래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참고하여 빈칸에 적절한 말을 넣으며 ‘시치미를 떼다’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봅시다.

고려 시대에 매를 길들여 새를 사냥하는 ‘매사냥’이 성행했던 때가 있다. 매사냥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자 길들인 매를 잃어버리는 일도 많아졌다. 이 때문에 자기 매에다가 주소를 적은 꼬리표 달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시치미’라고 했다.

⇒ ‘시치미를 떼다’에서 ‘시치미’는 ‘매의 주인을 밝히기 위하여 주소를 적어 매의 꿈지 속에 다 매어 둔 네모꼴의 뿔’(이)라는 뜻이다. 주인을 잃은 매를 발견했을 때 ‘시치미’를 떼어 버리면 (주인을 찾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래하여 오늘날 ‘시치미를 떼다’는 ‘(자)가 하고도 하지 아니한 체하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체하다’(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처럼 관용 표현은 문화를 담고 있다.

2. 문화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음 관용 표현을 설명해 봅시다.

간이 콩알만 하다(해지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눈에 쌍심지를 켜다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	--

(1) 관용 표현에 반영된 아래의 문화적 특성을 참고하여, 어떠한 부분에서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지를 밑줄 치고 이야기해 봅시다.

- 전통적 주거 양식의 반영: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등
- 전통적 생활 도구의 반영:
눈에 쌍심지를 켜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등
- 농경 문화의 반영 :
간이 콩알만 하다(해지다),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등

(2) (1)에서 답한 내용과 관련 지어 각 관용 표현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예시 답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에 대한 설명

⇒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귀중한 가축이었다. 이 때문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에서 ‘소도둑’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뜻한다. 즉 작은 나쁜 짓도 자주 하게 되면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말이다.”

또 다른 관용 표현

- **간이 콩알만 하다(해지다).** : 여기서 ‘콩알’은 농작물의 ‘작은’ 알곡을 뜻한다. 즉 ‘간’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맥락으로 ‘몹시 두렵거나 무섭다(몹시 두려워지거나 무서워지다)’를 뜻하는 말이다.
- **눈에 쌍심지를 켜다.** : ‘쌍심지’는 ‘한 등잔에 있는 두 개의 심지’를 뜻한다. 예전에 등잔불로 실내를 밝혔을 때 등잔에 심지를 하나 더 넣으면 실내가 그만큼 더 밝게 잘 보였다. 이 점에 착안하여 눈이 크게 잘 보일 정도로 눈을 부릅떴을 때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솥뚜껑’은 전통적으로 음식을 끓이는 데 사용하던 도구인 ‘솥’을 덮는 뚜껑이다. 자라의 둥근 등을 보고 놀란 적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둥글고 비슷하게 생긴 솥뚜껑만 봐도 깜짝 놀란다는 데에서 유래한 말로, 어떤 사물에 몹시 놀란 사람은 비슷한 사물만 보아도 겁을 났을 이른다.
-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 풀을 베는 도구인 ‘낮’이 ‘ㄱ’ 자 비슷하게 생긴 점에서 유래한 말이다. 즉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낮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 ‘빈대’는 아주 작은 벌레이다. 그것을 잡기 위해 불을 놓았다가 ‘초가삼간’, 즉 여기서의 ‘집’ 전체를 태운다는 말이다. 손해를 크게 볼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마땅치 아니한 것을 없애려고 그저 덤비기만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부뚜막’은 아궁이 위에 솥을 걸어 놓는 언저리로, 흙과 돌을 섞어 쌓아 편평하게 만든 공간이다. 전통 가옥 구조가 아닌 현대식 주거 양식에서는 부뚜막 대신 싱크대가 있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짭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어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뿌린 대로 거둔다.** : 어떤 작물의 씨를 뿌리면 그 작물의 싹이 나서 결국 그것의 알곡을 거두게 된다는 말로 농경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원인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뜻이다.

3. 다음 질문에 답하며 관용 표현을 패러디하고 이야기를 지어 봅시다.

(1) 다음 관용 표현을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맞게 바꾸어 봅시다.

-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른다 ⇒ 빨래집게 놓고 에이(A) 자도 모른다.
- 눈에 쌍심지를 켜다 ⇒ 눈에 레이저를 켜다.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 ⇒ 수도꼭지 고치려고 학교 건물 다 허문다.
-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 지우개 도둑이 책가방 도둑 된다.
-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싱크대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2) (1)에서 답한 표현 중 하나 이상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공동 창작으로 한 편의 글을 지어 봅시다. 간단한 이야기를 지어 내거나 옛날이야기를 패러디하는 등 모둠에서 정한 방식으로 하면 됩니다. 다른 관용 표현을 추가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자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약한 개미와 줄다리기를 하기로 했다. 개미를 이기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한 사자는 개미에게 친구를 데리고 와서 함께 해도 좋다고 말했다. 개미는 수백만의 친구를 데리고 왔고, 사자와 개미의 줄다리가 시작되었다. 사자의 예상과 달리 개미가 승리하자, 사자는 눈에 레이저를 켜고 따지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 이 세상 개미 전체를 다 데리고 오라고 했냐?”

개미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 수백만의 개미 모두가 내 친구인데! 친구 데리고 오라며?”

사자는 입이 열 개, 아니 백 개라도 할 말이 없었다.

주제 : 관용 표현의 문화적 특성과 표현 효과

※ 다음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의논하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다음 글을 읽고 관용 표현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모둠 활동을 하면서 한 친구가 내 의견에 반대하자 갑자기 모둠 활동이 하기 싫어졌고, 모든 모둠 활동에서 손을 놓았다. 친구들은 내가 왜 그러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내 역할까지 하느라 힘들어 했다. 힘들어 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자 내 잘못이 느껴지며 너무나 부끄러워졌다. 얼른 친구들에게 사과하고 내 몫을 열심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친구들은 마감 날짜가 다가와 그동안 속을 태웠다고 했다. 그런데도 나에게 크게 화 내지 않고 내 사과를 받아 주어 정말 고마웠다.

(1) 윗글에서 관용 표현을 2개 찾아 밑줄을 치고 각각 ㉠, ㉡으로 표시해 봅시다.

밑줄 ㉠ : 손을 놓았다

밑줄 ㉡ : 속을 태웠다

(2) ㉠, ㉡이 어떠한 상황 혹은 의미를 나타내는지 적어 봅시다.

- ㉠ :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잠시 멈추다.
- ㉡ : 걱정이 되어 마음을 졸이다.

(3) ㉠, ㉡과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관용 표현을 찾아 아래에 써 봅시다.

- ㉠ : 손을 떼다, 손을 빼다 등
- ㉡ : 속을 끓이다, 속을 썩이다 등

(4) ㉠, ㉡을 각각 관용 표현이 아닌 표현(㉠', ㉡')으로 바꾸어 써 봅시다.

- ㉠' : 빠졌다,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등
- ㉡' : 마음이 안 좋았다, 걱정하며 속상해 했다 등

(5) ㉠, ㉡을 ㉢, ㉣으로 고쳤을 때 표현 효과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시다.

- ㉠을 ㉢으로 고쳤을 때 달라진 표현 효과 : 손을 놓는 동작이 연상되며 구체적인 이미지로 확대되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평범한 느낌이 된다, 눈에 덜 띈다 등
- ㉡을 ㉣으로 고쳤을 때 달라진 표현 효과 : 속이 상해서 마음이 타들어 간다는 점이 강조되지 않는다,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는다 등

(6) 윗글에서 관용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찾아봅시다. 그리고 관용 표현으로 바꾼 표현을 표현 효과 면에서 평가해 봅시다.

- 관용 표현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는 부분 : 너무 부끄러워졌다.
- 바꾼 관용 표현 : 쥐구멍을 찾고 싶은 심정이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다.
- 표현 효과 : 일상적으로 써서 평범하게 보였던 말이 눈에 잘 띄며 느낌이 확 와 닿는다.

2. [활동 1]과 [활동 2]에서 다룬 관용 표현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고, 그 관용 표현을 활용하여 짧은 글을 지어 봅시다. 모두 친구들과 함께 공동 창작의 방식으로 지어 보도록 합니다.

초등학교 때 조금만 공부했는데 운 좋게 성적이 잘 나왔던 적이 있다. 그 뒤로 연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지 않았고, 다음 시험을 잘 보지 못했는데도 그저 운이 나빴던 것이라니 생각하고 말았다. 그것이 어느새 습관이 되어 중학교에 올라와서도 대충대충 공부하고 시험을 치렀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낮은 성적을 받아 눈앞이 캄캄해졌고,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을 실감했다. 이제 제대로 노력하는 공부를 해 봐야겠다.

3. 자신의 생활 속에서 관용 표현을 사용하여 표현 효과를 높였던 경험담을 쓰고 발표해 봅시다.

지원이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가까운 곳에 살아서 학교를 계속 같이 다녔다. 항상 붙어 다니는 우리를 학급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지원이 집이 어디야?”라고 물었을 때 “우리 집에서 엮어지면 코 닿을 데야.”라고 답하자 다들 금방 이해하는 눈치였다.

2차시

■ 이 시간에는

표준어와 방언의 개념을 이해하고, 방언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누어짐을 학습한다. 표준어와 방언은 모두 다양한 말하기 방식으로 공존하는 것이며, 방언을 사용하면 그 나름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인지하게 한다. 나아가 표준어와 방언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구별하며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학습 내용 중 '사회 방언'은 중학교에서 처음 학습하는 개념인 데다가, 표준어와 지역 방언에 관한 내용도 상대적으로 오래 전인 초등학교 3~4학년군에서 학습한 것이므로 선수 학습 확인과 개념 설명에 좀 더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 방언이라는 것은 집단에 따라 어떠한 말을 상대적으로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는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학습 목표

- 가.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의 개념을 이해한다.
- 나. 우리말의 다양성에 대해 이해한다.
- 다. 표준어와 방언의 가치를 알고, 담화 상황에 맞게 사용한다.

■ 준비물

활동지

도입

초등학교 3~4학년 때 학습한 바 있는 지역 방언과 표준어의 정의, 지역 방언의 가치를 상기시킨다. 이어서 지역 방언과 다른 사회 방언이라는 범주가 있음을 언급한다.

■ 활동 방법

방언,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의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이때 개념 위주의 설명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풍부하게 든다.

이렇게 해 보세요.

사회 방언의 개념과 유형 등은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므로 간단히만 언급하고 전개 단계에서 더 자세히 다룬다.

- 이번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방언’이 뭐지요?
- ‘방언’은 ‘어느 한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이었죠. 즉 사투리가 맞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말이라는 대답도 일리가 있어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 표준어로는 “그 아이가 가 씨니?”라고 할 말을 경상도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요? “가가 가가가?”입니다.
- 또 꼭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두루뭉술하게 말할 때 전라도 지역에서는? ‘거시기하다’라는 말을 자주 쓰죠.
- 충청도에서는 “밥 먹었어요?”를 어떻게 말할까요? “밥 먹었어유?”라고 하죠.
- 이렇게 지역 방언은 표준어와는 다른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르다는 점 때문에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지역 방언은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죠?



수업 돋보기

“한 지역의 전통을 담고 있어요.”, “정겹고 친근한 느낌을 줘요.”, “우리말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 줘요.”, “문학 작품에서 실감 나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돼요.”, “표준어의 재료가 돼요.”, “국어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돼요.” 등의 예상 대답이 나올 수 있다. 학생들의 답변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주며 한꺼번에 정리해 준다. 답변이 덜 나오면 전개 단계의 활동에서 보완해도 된다.

- 잘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방언을 좀 다른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도 있어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말을 사용하는 지역에 따라 나누어지는 방언도 있지만, 지역을 떠나서 말을 어떤 성격의 집단이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방언도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지역 방언, 다음에 말한 것을 사회 방언이라고 해요. 이제 활동을 통해 각각의 개념과 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 갑시다.

참고 자료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한국의 방언과 방언을 다루는 학문인 방언학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개념을 알아보고, 표준어뿐 아니라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으로 변이되는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이해한다. 방언 사용의 효과를 파악하고, 표준어와 방언의 역할을 구별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교육과정에서는 지역 방언뿐 아니라 사회 방언의 영역까지 학습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데, 사회 방언은 중학교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의 기능을 비판적으로 따져 보고,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 방언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끔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화자를 놀리는 듯한 분위기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 사회 방언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유행어나 은어를 떠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학습 활동을 넘어서는 수준의 접점이 되지 않도록 모둠 활동 중 점검을 자주 해 준다.
- 활동 1 후에 사회 방언의 개념을 교사가 명확하게 정리해 준다. 또한 사회 방언이라는 것은 집단에 따라 어떠한 말을 상대적으로 더 사용하고 덜 사용하는 문제이지, 절대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님을 학생들이 이해하게 지도한다.
- 각 활동 후에는 친구들 앞에 나와서 혹은 자기 자리에 서서 발표하게 한다. 모둠별로 대표를 뽑아 대표 한 명이 발표하게 할 수도 있다.

■ 지식 갈무리

• 표준어, 방언의 개념

- **표준어** : 한 나라에서 공용어로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의 자격을 부여받은 말로, 우리나라에서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방언** : 한 언어에서,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분화된 말의 체계.
- **지역 방언** : 한 언어에서, 지역적으로 분화되어 지역에 따라 다르게 쓰는 말.
- **사회 방언** : 한 언어에서, 계층적으로 분화되어 직업, 연령, 성별 따위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활동지를 통해 표준어와 방언이 사용될 수 있는 상황을 구별한다. 또한 사회 방언의 구체적인 양상을 접하고, 사회 방언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한다. 교사는 중간에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전체 혹은 모둠에 대한 설명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활동 후 교사가 개념과 장단점을 정리해 준다.

— 자, 이제 활동지를 보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먼저 표준어, 방언이 나오는 다양한 상황이 제시되어 있어요. 각각의 상황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말의 다양성을 어느 면에서 보여 주고 있는지 파악해

보는 활동을 할 거예요.

- 혹시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각각의 단어 뜻을 정확히 알아 뉘야 하거나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말의 기능,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더 집중하며 친구들과 토의하며 물음을 해결해 갑시다.
- 우리가 지금 활동 1의 1번에서 답한 내용들은 지역 방언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2번에서 답한 내용들은 사회 방언과 관련되지요.
- 여러분에게 이미 익숙한 지역 방언의 개념 외에 사회 방언의 개념을 다시 짚어볼까요? 사회 방언이란 한 언어에서 직업, 연령, 성별 따위에 따라 특징적으로 쓰는 말을 가리킵니다. 어느 한 직업 내에서 쓰이는 말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수 있죠. 세대 간, 남녀 간에 언어 사용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사회 방언은 이렇게 집단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하는 집단의 특성을 잘 드러내 줍니다. 알겠지요?
-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은 ‘표준어가 곧 우리말’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정한 말인 표준어 외에도 다양한 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각각의 기능도 다릅니다. 표준어는 누구에게든 언제 어디서나 통일된 형태로 쓰이니까 누구에게든 언제 어디서나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은 같은 말을 쓰는 지역이나 집단 내에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지역이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방언이 적절한 상황과 표준어 사용이 적절한 상황을 구별한다. 활동지의 문제를 친구들과 함께 해결하고 서로 비교하며 무엇이 더 적절한지 토의할 수 있도록 한다.

-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활동을 하면서 표준어 사용이 적절한 상황과 방언 사용이 적절한 상황을 구별해 봅시다. 이어서, 표준어 및 방언 사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담도 발표해 봅시다. 한 상황에 반드시 한 종류의 말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세요. 자신이 생각했던 답과 친구들의 답을 비교하며 토의하면 과연 어떠한 말이 그 상황에서 더욱 적절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 다음으로 표준어,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다양한 방언들을 떠올려 보세요. 내가 미처 떠올리지 못했던 방언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떠올릴 수 있고, 관련된 경험이 기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을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했던 경험을 적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해 봅시다. 서로의 경험담을 듣다 보면 아마 공감되는 내용이 많을 것입니다.
-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많은 친구들이 답한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의사소통 상황 혹은 공식적이지 않더라도 의사소통 참여자들의 출신 혹은 거주 지역이 여러 지방으로 섞여 있는 상황에서는 공용어인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면 정확하고 편리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어요.
- 많은 친구들이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의견을 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 맞아요. 특정 지역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는 그 지역에서만 사용하는 말을 사용할 때, 친근감과 유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이나 직업 등에 따라 사회 방언을 구사하면 집단 구성원들 간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요.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이 서로 잘 통하는 사람들 간에는 이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의사소통을 편하게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우리가 우리말의 다양성을 알고 잘 구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 보세요.

- 활동지에서 모르는 말이 없는지 점검한다.
- 방언과 표준어는 상황에 따라 화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활동에서도 대체적인 경향에 비추어 적절함을 판단하고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른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미리 알려 준다.

정리

표준어, 지역 방언 또는 사회 방언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언어생활에서 중요함을 강조한다.

■ 활동 방법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 등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말의 양상이 의사소통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방언을 사용하는 상황이 희화화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정돈해 준다.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들은 모두 우리말을 다양하고 풍요롭게 해 주는 재료들입니다. 무엇이 우위에 있고 무엇이 낮은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기능과 장·단점을 정확히 알고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잘 선택된 방언 사용은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친밀도를 높이거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빠르고 편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언어 생활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사용이 적절한지 살펴보고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주제 : 언어의 다양성과 방언 사용의 효과

※ 다음 글 (가)~(다)는 ‘세원이’가 겪은 일입니다. 두 글을 읽고 친구들과 의논하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세원은 경상도에서 태어나 계속 경상도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초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어 서울의 한 학교로 전학을 했습니다. 새 학교에서의 첫 날, 담임 선생님이 교실 앞에서 친구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원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녕! 내는 김세원이라 한다. 잘 지내 보재이.”

순간 친구들의 얼굴에는 뭔가 호기심 어린 표정이 가득해졌습니다. 세원은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급식을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급식 반찬으로 세원이가 좋아하는 새우가 나오자,

“와! 새비대!”

라고 했더니 친구들이 신기해 하는 것입니다.

(나) 세원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사한 후, 이번 중학교 1학년 첫 방학을 맞아 고향에 들르기 전까지는 고향에 들 기회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과 모인 세원은 반갑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다들 잘 지냈어?”

그런데 친구들의 표정이 묘합니다. 이상한 사람 보듯 세원이 얼굴을 뺨히 봅니다.

당황한 세원은,

“아니, 왜 그렇게 봐?”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친구들이 말합니다.

“왜 저 자숙 저거, 서울 놈 다 되었네.”

(다)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에 세원이가 ‘우리말의 다양성’을 주제로 발표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경상도의 방언은 물론, 강원도 방언, 충청도 방언, 전라도 방언, 제주도 방언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양한 방언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달리 쓰이는 말을 지역 방언이라고 합니다. 표준어와 각 지역 말 또는 각 지역 간 말들이 동일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에 따라 사물의 이름이 달리 쓰이기도 하고, 문장을 끝맺는 말이 다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차이점도 있습니다.”

1. (가)에서 친구들이 세원의 말을 듣고 호기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김세원이라 한다. 잘 지내 보재이.”라고 한 말, ‘새우’를 ‘새비’라고 한 말과 같이 세원이 지역 방언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타 지역의 방언은 낯설어서 호기심을 유발할 때가 있다.
2. (가)에서 세원의 기분은 어떠했을지 짐작해 봅시다.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말 그대로 말한 것인데 친구들이 웃어서 당황했을 것이다.
3. (나)에서 세원의 친구들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경상도 지역 방언을 사용하던 세원이 서울말을 썼기 때문이다.
4. (나)에서 세원의 친구들이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지 짐작해 봅시다.
옛날과 달리 서울말을 쓰는 세원이 낯설고, 경상도에서 지냈던 시절을 잊은 듯하여 서운했을 것이다.
5. (다)에서 세원이 표준어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업 시간에 발표하는 것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말할 때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6. (다)에서 나타난 발표 상황 외에도 어떤 상황에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방송, 연설, 강의, 공개 토론 등 다수의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7. 앞에서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에 따라 어떠한 말을 쓰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끼리 모이는 사적인 상황에서는 지역 방언을 쓰면 친밀감을 높일 수 있다. 반면에, 방송, 발표, 연설, 강의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해야 정확하게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알아듣기 편하다.

※ (가)와 (나)는 세원이 겪은 서로 다른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글을 읽고 친구들과
과 의논하며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중학교 1학년 학생인 세원과 친구들은 무엇의 이름이든지 두 글자로 줄여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컴퓨터용 사인펜'은 '컴사', '급식 당번'은 '급당', '생일 파티'는 '생파', '생일 선물'은 '생
선', 누리 소통망(서비스) 계정의 '친구 추가'는 '친추'라고 하는 것 등입니다. 그렇지만 세원이 부
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거의 쓰지 않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일
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세원: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친구들이랑 생파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응? 뭐 한다고?”

세원: “생파요, 생일 파티.”

할머니: “아, 생일 파티를 한다고,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는구나.”

세원: “할머니, 그럼 ‘생선’이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생선을 왜 몰라? 고등어, 조기 뭐 그런 거지.”

세원: “하하하! 할머니 그럴 줄 알았어요. ‘생선’은 ‘생일 선물’의 줄임말이에요. 친구들도 다 이러
게 말해요.”

할머니: “아이고, 참. 요즘 말 따라가기 어렵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세원과와의 대화에서 들은 내용을 할아버지께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아니 글썄, 세원이 ‘생일 파티’를 ‘생파’라고 하데요.”

할아버지: “요즘 애들 말이 좀 어려워야지. 내일 세원이 또 만나거든 할아버지가 주는 거라며 생
일 선물 좀 미리 사주오 세원이 생일 날 다른 일 보다가 바로 세원이네로 가야 하니 말
이요.”

할머니: “그래요, ‘생일 선물’은 ‘생선’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생선’? 거참 듣기에 이상하구려.”

(나) 세원은 동네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큰 병원에도 가 보는 것이 좋겠다며
의사 선생님이 소견서를 한 장 써 주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견서에는 ‘Bronchiolitis’(세기
관지염’을 뜻함), ‘Asthma’(천식’을 뜻함) 등 세원이 모르는 말이 영어로 많이 적혀 있어 정확
하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직업 탐색 프로그램 시간에 목공실을 방문했을 때도 목수 분들이 사용하는 말이 무엇인지 정확
히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방부목, 집성목’과 같은 한자어는 물론 ‘래티스, 사이딩’과 같은 외래어

나 외래어에 한자어를 결합한 ‘코아합판’과 같은 말들을 자주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1.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중학생 또래의 청소년들의 말과 어르신들의 말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청소년들은 사용하지만 어르신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 :

‘컴사, 급당, 생파, 생선, 친추’ 등의 줄임말

- 어르신들은 사용하지만 청소년들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 :

‘사주오, 말이오, 합디다’와 같이 ‘하오체’에 해당하는 말, ‘이상하구려’에서의 ‘- 구려’와 같은 어미

2. 세원이와 친구들이 줄임말을 씀으로써 얻는 긍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 빠른 시간에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 친구들과 줄임말을 쓰며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이 말을 쓰는 사람이 한 집단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3. 세원이와 친구들이 줄임말을 쓰는 것의 부정적 효과는 무엇입니까?

- 줄임말을 모르는 사람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줄임말을 쓰지 않는 사람을 심리적으로 소외시킬 수 있다.

4. (나)에서 세원이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를 짐작해 봅시다.

특정 직업에서만 주로 쓰이는 용어(전문 용어)가 많았기 때문이다.

5. (나)에서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와 소견서를 받은 의사, 목수와 목수 간에도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느꼈을지 짐작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아마 아닐 것이다. 해당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교육이나 평소 의사소통을 통해 그 말을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6. (가)와 (나)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빈칸을 채우며 정리해 봅시다.

(가)에서 세원이와 친구들 같은 청소년들은 줄임말을 흔히 사용하지만,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이는 (연령)에 따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는 현상을 보여 준다.

(나)에서 세원이는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았을 때나 목공실에 현장 학습을 갔을 때 보거나 들은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는 (직업)에 따라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끼리는 (의사소통)을/를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공감대)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주제 : 언어의 다양성과 방언 사용의 효과

※ 제시된 상황 ㄱ~ㄴ에서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지역 방언 또는 사회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지 판단해 봅시다. 그리고 적절한 이유와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이어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이 작성한 내용과 비교하며 토의해 봅시다.

상황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중 사용할 말 선택하기	그것을 선택한 이유 적기
ㄱ. 전국의 각 시도에서 중학생 대표로 뽑힌 학생들이 모인 토론 대회에서 '학생 인권'을 주제로 토론할 때	표준어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편이를 위하여 표준어를 써야 한다. 토론은 공식적인 말하기 상황이므로 표준어를 써야 한다.
ㄴ. 아나운서가 텔레비전 방송 뉴스 중 자신이 속한 지역 축제에 대한 소개를 진행할 때	표준어	자신의 지역과 관련된 내용을 전달할 때라도 방송이라는 매체의 대중적이며 공식적인 기능을 고려할 때 표준어를 써야 한다.
ㄷ. 지역 대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멘토와 과학 실험을 진행할 때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	같은 지역에 속한 사람과의 대화 상황이므로 지역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표준어를 사용해도 된다. 과학 실험에 필요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 방언도 사용할 수 있다.
ㄹ. 우리 반 친구들과 최근의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우리 반 친구들과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므로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을 쓸 수 있다. 물론 표준어를 사용해도 된다.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집단에서 쓰는 말, 유행어 등을 웃음의 소재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사회 방언을 구사할 수도 있다.
ㅁ. 할아버지 칠순 잔치로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친척 50여 명이 모였을 때	표준어, 지역 방언, 사회 방언	지금은 한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예전에 한 지역에 살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역 방언을 쓰며 친근감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표준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의 편의성을 높여도 된다. 또한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사회 방언을 사용할 수도 있다.

※ 표준어, 지역 방언이나 사회 방언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자신의 경험담을 적은 후에 발표도 해 봅시다.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표준어만 주로 쓰는 편이다. 그렇지만 여름 방학 때 인성 함양 캠프에 참여해서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의 각기 다른 말을 듣자 친구들의 말을 배우고 싶어졌다. 전라도 친구가 쓰는 말을 따라 ‘고구마’를 ‘참감자’로, ‘옥수수’를 ‘옥시시’, ‘강냉이’로 말하고, ‘거시기 해브렀다.’ 등의 말을 따라하자 친구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최신 유행어를 배우며 함께 쓰자 다 같이 웃을 수 있었고 분위기가 더 즐거워졌다.

2. 아껴 쓰는 우리말글

■ 이 단원은

우리말 꿈터 전시 시설 중 ‘나도 우리말 지킴이!(쉽고 편한 우리말을 찾아서, 국립국어원에 물어보세요, 띄어쓰기 뛰어 보기)’ 코너와 연계하여 전시 주제를 심화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학생들은 1차시에 일상에서 자주 실수를 범하는 어문 규범들을 배운다. 그리고 2차시에는 외래어의 정확한 표기법을 배우고 외래어 남용 현상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파악한 후, 우리말 순화의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 프로그램의 성격상 교수·학습 과정에서 명제적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어문 규범의 핵심 원리를 자연스럽게 터득하고, 올바른 국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 학습 목표

- 가. 어문 규범을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한다.
- 나. 외래어를 정확하게 표기한다.
- 다. 남용되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태도를 내면화한다.

■ 대단원 수업의 흐름

세부차시	학습 목표	주요 내용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어문 규범의 필요성을 이해한다.어문 규범의 주요 원리와 내용을 설명한다.어문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사례를 통해 어문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기어문 규범을 놀이를 통해 이해하기어문 규범을 상황극을 통해 이해하기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외래어를 표기한다.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한다.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태도를 내면화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상에서 자주 틀리는 외래어 표기 바로잡기외래어 남용 사례 실태를 확인하고 문제점 인식하기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일의 필요성 이해하기

1차시

■ 이 시간에는

어문 규범 중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에 관한 규정을 일상의 사례와 함께 이해하게 한다. 어문 규범의 핵심 원리를 터득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명제적 지식을 강조하는 강의 중심의 수업이 아닌, ‘놀이’나 ‘상황극’을 활용해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활동 중심의 수업을 전개한다.

■ 학습 목표

- 가. 어문 규범의 필요성을 이해한다.
- 나. 어문 규범의 주요 원리와 내용을 설명한다.
- 다. 어문 규범에 맞는 언어생활을 한다.

■ 준비물

활동지, 낱말 카드

도입

어문 규범과 연관된 사례를 확인하며 어문 규범과 그 필요성을 이해한다.

■ 활동 방법

활동지의 자료를 보며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과 문답한다. 이때 어문 규범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기보다는 어문 규범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게 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학생의 일상에서 어문 규범을 지키지 못해 의미 전달에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를 다양하게 생각하게 한다.

-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삶 속에서 어문 규범과 연관된 사례들을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말의 어문 규범에는 표준어의 종류와 표준 발음을 규정한 표준어 규정, 올바른 표준어 표기 방법을 규정한 한글 맞춤법,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르게 표기하기 위한 외래어 표기법, 우리말을 외국어로 옮기는 방법을 규정한 로마자 표기법이 있지요. 이러한 규범들은 사람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존재합니다.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봅시다. 활동지의 사례를 다 같이 읽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 어문 규범을 잘 지키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오해를 낳거나, 교양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문제를 겪을 수 있겠네요. 이처럼 어문 규범은 우리의 언어생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문 규범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발음이나 표기가 매우 헷갈리는 경우도 있죠. 이 시간에는 핵심적인 어문 규범들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해요.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 볼까요?

참고 자료

- 이희승, 안병희(2007), 「새로 고친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 어문 규범의 원리 및 사례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개론서이다.
- 경향신문, 2015년 10월 9일, 「대학생들이 꼽은 최악의 한글 맞춤법 실수 1위는?」
: 자주 틀리는 맞춤법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전개

학생 중심의 활동인 문장 만들기 놀이, 상황극 등을 통해 주요 어문 규범을 이해한다.

■ 전개 활동의 흐름

활동 1을 통해 띄어쓰기 규범을 간략히 이해한다. 그리고 낱말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통해 띄어쓰기 규범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한다. 활동 2에서는 상황극을 통해 표준 발음법 및 한글 맞춤법 오류에 따른 문제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식 갈무리

● 띄어쓰기

중학생 수준에서는 띄어쓰기에 관한 세부 규정을 이해하기보다, 단어는 띄어 쓰고, 조사는 붙여 쓴다는 정도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한글 맞춤법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 맞춤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써 우리말을 표기하는 규칙의 전반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방법에는 소리나는 대로 적는 방법과,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어법에 맞게 적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한글 맞춤법에서 밝힌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발음이 사람마다 달라지게 되면 의사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하게 되었다. 정영호(2010)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들이 표준 발음법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겹받침의 발음, 된소리되기, 소리의 첨가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이 단원에서는 겹받침과 관련된 규정 중에서 겹받침 ‘ㄹ’과 연관된 규정을 다루고자 하였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표준 발음법 제11항: 겹받침 ‘ㄹ, ㄲ, ㄴ’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ㄴ]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발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 표준 발음법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제11항은 ‘ㄹ’ 받침이 어말에서 ‘ㄱ’으로 발음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제14항은 형식 형태소와 결합할 때 ‘ㄹ’ 받침이 어말에서 ‘ㄹ’로 발음되고 겹받침의 ‘ㄱ’이 뒤에 이어지는 모음의 어두에서 발음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 학생들은 4개 모둠을 구성하여 낱말 카드를 활용한 문장 만들기 놀이에 참여한다.

1. 앞면에는 단어와 예문이, 뒷면에는 단어의 품사가 써 있고 자석이 붙은 낱말 카드와 띄어쓰기를 의미하는 카드를切的,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별로 10개씩 준비한다.
2. 모둠별로 같은 수의 낱말 카드와 띄어쓰기 카드를 갖도록 분배한다. 학생들은 낱말 카드의 뒷면을 보지 않고 단어가 표시된 앞면만 책상 위에 펼쳐 놓는다.
3. 교사가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낱말 카드의 단어들을 제시하면, 학생들이 시간 내에 띄어쓰기를 지켜서 책상 위에 낱말 카드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든다.
4. 조건을 지켜 문장을 완성한 모둠은 순서대로 칠판 앞으로 나가 문장을 배열한다. 교사는 띄어쓰기를 제대로 지켰는지 평가하여 이상이 없으면 문장을 먼저 완성한 순서대로 4점, 3점, 2점, 1점을 부여한다. 문장에 오류가 있으면, 0점을 부여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 활동의 초점은 품사의 이해가 아니라 띄어쓰기 규칙의 이해에 있으므로, 품사는 조사와 나머지 단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설명한다.
-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한 조가 직접 낱말 카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출제하고, 다른 조가 정답을 맞히게 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수업 돋보기

모둠 활동의 성격상 다소 산만한 분위기가 형성되거나, 활동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활동의 규칙과 진행 과정을 숙지하게 한다.

-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문제를 문장 만들기 놀이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먼저, 중요한 띄어쓰기 규정을 확인해 봅시다. 띄어쓰기 규정을 같이 읽어 볼까요?
-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모든 단어는 띄어 쓰되, 조사는 붙여 쓴다고 되어 있네요. 바로 아래에 단어의 품사를 분류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읽어 볼까요?
- 기본적으로는 관계언인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들은 띄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런 내용을 활용해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 봅시다. 활동지 2쪽에 있는 놀이의 규칙을 같이 읽어 볼까요?
- 규칙을 숙지하였으면, 문장 만들기 놀이를 같이 해 봅시다.

예) 다음 중 적절한 띄어쓰기는 어떤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1. 나는오늘국립국어원에왔다.
2. 너 무 멀 었 다.
3. 그래도 나 는 즐겁다!
4.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 네, 그렇지요. 4번이 답입니다. 그럼 놀이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낱말 카드와 띄어쓰기 카드를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화면에 제시된 낱말 카드를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문장을 먼저 완성한 조는 앞으로 나와 칠판에 낱말 카드를 붙이면 됩니다.
- 모두 문장을 완성했나요? 같이 제대로 되었는지 채점해 봅시다. 문제를 풀어 보니 띄어쓰기의 기본 원칙을 이해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바르게 띄어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 곽세영(2009), '낱말 카드' 만들기를 활용한 단계별 띄어쓰기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교육, 39, 한국어문교육학회.
- : 낱말 카드를 활용한 띄어쓰기 지도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해 살피고 있다.

활동 2

◎활동 2의 방법

- 학생들은 활동지에 따라 모둠별로 상황극을 완성한다. 활동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활동지에 제시된 상황 1 또는 상황 2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상황극을 완성한다. 교사는 주제가 겹치지 않도록 제비뽑기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2. 활동지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상황극 대본을 완성한다.
3. 한 모둠이 상황극을 대본에 따라 시연하면, 다른 모둠은 어떤 어문 규범 오류가 발생했는지 사례와 내용을 정리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학생들이 유익적인 요소에 치중하다 보면 주제와 어긋난 상황극을 만들 수 있으므로 교사가 순회 지도를 하면서 내용을 조정한다.

- 이번에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 문제를 상황극 만들기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먼저 상황극 만들기의 규칙을 같이 읽어볼까요?
- 규칙에 따라 상황극을 완성해 봅시다.
- 상황극 대본이 완성되었으면, 모둠별로 시연해 봅시다. 시연 중에 나머지 학생들은 어떤 어문 규범 오류가 발생했는지 정리해 봅시다.
- 모든 모듬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가 정리한 내용을 발표해 볼까요?
- 잘했습니다. 상황극을 만들어 보니 어문 규범을 지킬 때 가장 쉽고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도 일상에서 어문 규범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정리

교사의 정리를 바탕으로 어문 규범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및 띄어쓰기에 관한 어문 규범을 재확인한다.

■ 활동 방법

- 판서를 통해 앞에서 배운 내용을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생활에서 어문 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뭐였죠?
- 네. 이번 시간에는 자주 틀리는 띄어쓰기 규정과 표준 발음법, 한글 맞춤법 규정을 배웠어요.
- 이상의 내용을 잘 기억해서 생활 속에서 어문 규범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주제 : 우리 삶 속의 어문 규범

※ 아래 사례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보고, 어문 규범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생각해 봅시다.

사례	잘못된 점
<p>철수는 시험 전날에 괜히 기분이 상송 생송해서 친구 영수에게 “이불안감워 냐”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런데 영수로 부터 “글쎄, 극세사인 것 같은데?”라고 답장이 왔다.</p>	<p>“이 불안감 뭐냐”라고 보내야 할 것을 띄어 쓰기를 잘못해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 했다.</p>
<p>영희는 시험이 끝나자 기분이 좋아서 “그래도 결국 빛이[비시] 생기는구나!” 라고 기쁘게 외쳤다. 옆에 있던 진우가 “머리 빛는 빛이 생긴 게 그렇게 좋은 일 이야?”라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어본다.</p>	<p>[비치]라고 발음해야 할 것을 표준 발음법 에 맞지 않게 발음해서 의사소통에 오해가 발생했다.</p>
<p>짜꿍이 오늘 감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아서 반 채팅 방에 “감기 빨리 낫아” 라고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 그러자 “친 구는 ”그래도 이 정도면 문안한 것 같아. 너도 조심매”라고 답을 주었다. 단체 채 팅방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우리를 무시하기 시작한다.</p>	<p>“감기 빨리 나아”,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 한 것 같아. 너도 조심해”라고 써야 할 것을 맞춤법에 어긋나게 썼다.</p>

주제: 우리 삶 속의 어문 규범

※ 아래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과 품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장 만들기 놀이를 해봅시다.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

한글 맞춤법 제2항 :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41항 :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다른 말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는 단어

품사의 분류

체언	용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량/차례를 나타내는 단어	동사 형용사	관형사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 부사	조사	감탄사

문장 만들기 놀이의 규칙

- 다음과 같은 예로 띄어쓰기 연습을 먼저 해 봅니다.
 - 나는오늘국립국어원에왔다.
 - 너 무 멀 었 다.
 - 그래도 나 는 즐겁다!
 -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어서!
- 선생님께 낱말 카드와 띄어쓰기 카드를 받습니다. 낱말 카드의 앞면에는 단어와 그 예문이, 뒷면에는 그 단어의 품사가 쓰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 앞면만 보이게 낱말 카드를 나열해 놓습니다.
- 선생님이 화면에 단어와 시간을 제시하면,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책상 위에 낱말 카드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철수] [밥] [가] [을] [먹는다]와 2장의 띄어쓰기 카드가 화면에 제시되면, 다음과 같이 카드를 나열하면 됩니다.
- 문장을 완성했으면, 칠판에 낱말 카드를 붙입니다. 먼저 완성한 순서대로 점수를 받습니다.

철수	가	✓	밥	을	✓	먹는다
----	---	---	---	---	---	-----

주제 : 우리 삶 속의 어문 규범

※ 아래의 조건에 따라 짧은 상황극을 완성해 봅시다.

〈상황극 만들기의 조건〉

아래 제시된 두 개의 상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자료를 참조하여 상황극의 빈칸을 완성한다.

— 대본을 완성하고, 간단히 연습한 후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시연한다.

상황 (1) 친구들끼리 집에 가는 길에 영희가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라고 쓰는 것보다 “바라메 꼬너피 떠러진다”라고 쓰는 게 더 편하다고 주장한다. 주변 친구들은 영희에게 맞춤법을 지키는 게 의사소통을 더 원활히 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알려 주려 한다.

[자료]

한글 맞춤법 제1항

: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어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발음대로만 적는다면 단어의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려워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할 것이다. 가령, ‘같이’를 ‘가치’로, ‘웃어른’을 ‘우더른, 운어른’으로, ‘같다, 같고, 같아, 같으니’를 ‘간따, 간고, 가타, 가트니’로, ‘날날이’를 ‘난나치, 난나치’로 적는다면 의미 전달이 어렵고, 읽기에 매우 불편할 것이다.

상황 (2) 문법 수업 시간에 철수가 “닭”을 [닥]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달ㄱ]라고 받침의 두 자음을 모두 발음하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니냐고 주장한다. 주변 친구들은 그렇게 발음하면 언어 생활을 할 때 매우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선생님은 철수에게 표준 발음법의 규정을 통해 받침의 “ㄹ”을 발음하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 주려 한다.

[자료]

표준 발음법 제11항

: 겹받침 ‘ㄹ, ㅂ,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ㅁ, ㅂ]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ㄹ’은 ‘ㄱ’ 앞에서 [ㄹ]로 발음한다.)

예) 닭[닥] 흙과[흑파] 삶[삼:] 젊다[점:따] 읊고[읍꼬] 읊다[읍따] 묶고[물꼬]

표준 발음법 제14항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 발음한다.(이 경우, ‘ㅅ’은 된소리로 발음함)

예) 넋이[넉씨] 앓아[안자] 닭을[달글] 젊어[절머]

상황 1 대본

인물	대사
영희	오늘 수업 시간에 “바람에 꽃잎이 떨어진다.”라는 문장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써야 하지? 소리나는 대로만 쓰면 더 편하지 않아?
철수	<p>그렇게 소리나는 대로만 단어를 적으면 소리가 유사한 단어를 쓸 때 헛갈릴 거야. 예를 들어,</p> <p>함께의 의미를 갖는 ‘같이’와 값어치의 의미를 갖는 ‘가치’는 소리는 같은데 의미는 다르니까 의사소통에 혼란을 줄 수가 있어.</p> <p> [소리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단어를 사례로 들어 대사를 완성하세요.]</p>
진우	<p>또, ‘꽃’이라는 뒤에 ‘이’라는 조사가 오면 [꼬치]로 발음하는데, ‘잎’이 붙으면 [곤납]이라고 발음하지. 그러니까 소리나는 대로만 적으면</p> <p>단어의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려울 거야.</p> <p> [소리나는 대로 적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적어 대사를 완성하세요.]</p>
철수	<p>맞아, 진우가 말한 것과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는 사례가 또 있어.</p> <p>‘밭’이라는 단어는 뒤에 ‘이’라는 조사가 오면 [바치]로 발음하는데, ‘알’이 붙으면 [반닐]이라고 발음해.</p> <p> [진우가 제시한 사례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는 예시를 들어 대사를 완성하세요.]</p>
영희	아, 그렇구나. 확실히 소리나는 대로 적으면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겠네.
수희	<p>그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글 맞춤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지.</p> <p>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적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p> <p> [자료에서 맞춤법 규정을 찾아 대사를 완성하세요.]</p>
영희	한글 맞춤법에 관심이 없었던 게 부끄러워지네. 앞으로 열심히 맞춤법을 공부해야겠다.

상황 2 대본

인물	대사
철수	선생님, ‘닭’을 왜 [닥]이라고 발음하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그냥 쓰인 대로 ‘달ㄱ’라고 발음하는 게 정확한 발음 아닐까요?
영희	그렇게 쓰인 대로 다 발음하면 받침 발음하기가 어렵고 알아듣기 힘들 거야. 예를 들어, <div>‘옳다’이나 ‘옳다’ 같은 받침은 쓰인 대로 다 발음하려면 매우 힘들고, 정확하게 알아듣기도 힘들지.</div>  [받침 발음이 어려운 사례를 들어 대사를 완성하세요.]
선생님	그래 철수야.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는 겹받침을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를 규정해 놓았단다. 예를 들어, ㄹ 받침의 발음을 위한 규정에는 이런 것이 있지. <div>겹받침 ‘ㄹ’은 단어 끝 또는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한다.</div>  [자료를 보고 ㄹ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어 대사를 완성하세요.]
진우	선생님, 그런데 전에 TV에서 ‘닭’ 다음에 ‘을’이 오면 ‘다글’이 아니라 ‘달글’이라고 발음해야 한다는 걸 들었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선생님	표준 발음법 제14항에는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와 결합하면 뒤엷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닭’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 ‘을’, ‘으로’가 오면 이렇게 발음해야지. <div>[달기], [달글], [달그로]라고 말아야.</div>  [자료를 보고 ㄹ 받침의 발음과 관련된 표준 발음법 규정을 적어 대사를 완성하세요.]
철수	이제 ‘닭’ 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의 발음도 알 것 같아요. 예를 들어, <div>‘흙’이라는 단어는 [흙]이라고 발음하고, 뒤에 ‘이’라는 조사가 오면 [흙기]라고 발음을 해야겠네요.</div>  [자료의 규정을 참조하여 ‘흙’, ‘싫’과 같은 단어들의 발음을 적어 대사를 완성하세요.] 앞으로는 표준 발음법에 맞게 발음을 잘 하도록 해야겠어요.

※ 상황극 안에서 발생한 어문규범 오류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리해 봅시다.

	상황극 안에서 발생한 어문규범 오류	이러한 오류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문제점
상황 1	표준어를 소리나는 대로만 적고 어법에 맞게 적지 않았다.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단어의 원래 형태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황 2	겹받침의 발음에 대한 표준 발음법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발음이 불편하고 알아듣기 힘들다.

※ 낱말 카드 예시 (띄어쓰기 카드는 앞면에 V 표시만 있는 것으로 함)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사람	체언 자석 명사	연필	체언 자석 명사
개 <hr/>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체언 자석 명사	음식	체언 자석 명사
물건	체언 자석 명사	그것	체언 자석 대명사
첫째	체언 자석 수사	대로 <hr/> 본 대로 말해라	체언 자석 의존명사
만큼 <hr/> 베푸는 만큼 돌려 받는다.	체언 자석 의존명사	개 <hr/> 사탕 한 개	체언 자석 의존명사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이/가	관계언 자석 조사	의 나의 고향	관계언 자석 조사
을/를	관계언 자석 조사	에 집에 있다	관계언 자석 조사
은/는	관계언 자석 조사	도 나도 갈래	관계언 자석 조사
이다	관계언 자석 조사	야 철수야, 반가워	관계언 자석 조사
대로 사실대로 말해라	관계언 자석 조사	만큼 너만큼 한다.	관계언 자석 조사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울다

용언

자석

동사

사다/
샀다

용언

자석

동사

먹다/
먹을

용언

자석

동사

되다

용언

자석

동사

오다/
왔다

용언

자석

동사

좋다
/좋은

용언

자석

형용사

있다

산도 있고
물도 있다

용언

자석

형용사

없다
/없는

용언

자석

형용사

아프다

용언

자석

형용사

예쁘다
/예쁜

용언

자석

형용사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새

새 신발을 샀다

수식언

자석

관형사

이

이 분은
내 어머니셔

수식언

자석

관형사

두

두 친구 이야기

수식언

자석

관형사

그

그 책을 다오

수식언

자석

관형사

매우

수식언

자석

부사

잘

수식언

자석

부사

많이

수식언

자석

부사

허겁지겁

수식언

자석

부사

물론

수식언

자석

부사

과연

수식언

자석

부사

앞면

뒷면

앞면

뒷면

야

야, 이제 살았다

독립언

자석

감탄사

아

아, 알았다

독립언

자석

감탄사

흥

흥, 그게 뭐라고

독립언

자석

감탄사

아이고

독립언

자석

감탄사

아뿔싸

독립언

자석

감탄사

하하

하하, 이거
야단났군

독립언

자석

감탄사

네

네, 그렇습니다

독립언

자석

감탄사

아니

아니, 그렇지 않소

독립언

자석

감탄사

이런

이런,
내 정신좀 봐

독립언

자석

감탄사

앗

독립언

자석

감탄사

※ 문제 예시

문제 1. [좋다] [이] [사람] [√]

예상정답 : [사람] [이] [√] [좋다]

문제 2 [새] [을] [샀다] [연필] [√] [√]

예상정답 : [새] [√] [연필] [을] [√] [샀다]

문제 3. [그] [은] [물건] [있다] [은] [두] [개] [√] [√] [√] [√]

예상정답 : [그] [√] [물건] [은] [√] [두] [√] [개] [√] [있다]

문제 4. [이] [음식] [먹을] [도] [만큼] [없다] [은] [√] [√] [√] [√]

예상정답 : [이] [√] [음식] [도] [√] [먹을] [√] [만큼] [은] [√] [없다]

2차시

■ 이 시간에는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인식한다. 그리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태도를 내면화한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잘못된 외래어 표기와 외래어 남용 실태를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례를 바탕으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일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학습 목표

- 가.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외래어를 표기한다.
- 나.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한다.
- 다.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태도를 내면화한다.

■ 준비물

활동지, 국어사전

도입

사례를 통해 올바른 외래어 표기의 필요성과 외래어 남용의 문제점을 인식한다.

■ 활동 방법

동영상을 시청한 후, 활동지의 자료를 보고 교사의 질문에 답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학생들의 일상과 연관된 자료를 제시하여 올바른 외래어 표기의 필요성과 외래어 남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말글을 어떻게 바로 써야 하는지에 대해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말글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는지 동영상 통해 확인해 볼까요?

영상 자료

한글 등 올바른 언어 사용



*출처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동영상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이 어떤 게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외래어에 관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해요. 외래어라는 것은 외국어에서 들어와 국어 속에서 사용되는 말을 말하죠. 외래어와 관련해서 공익 광고에서 제시된 문제는 두 가지였는데, 그와 연관된 사진을 활동지에 제시했어요. 이 사진들이 어떤 문제를 보여 주고 있죠?
- 네. 외래어의 잘못된 표기와,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림 옆에 이러한 문제와 연관된 주변의 사례를 적어 볼까요?
- 이렇게 외래어를 우리말의 특성에 맞지 않게 표기하거나, 외래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 모두 원활한 의사소통과 교양 있는 언어생활, 나아가 소중한 우리말을 지키는 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바르게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익히고, 남용되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것을 공부해 봅시다. 같이 학습 목표를 읽어 볼까요?

전개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외래어를 표기하고, 남용되는 외래어를 쉽고 편한 우리말로 바꾸어 써 본다.

■ 전개 활동의 흐름

- 활동 1에서는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바탕으로 잘못된 외래어 표기를 수정한다. 활동 2에서는 외래어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할 필요성을 이해한 후,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사례를 참고하여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써 본다.
- 학생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를 사례로 제시하여, 외래어와 연관된 문제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지식 갈무리

● 외래어

외래어는 '외국에서 들어오되, 외국어와 다르며, 국어 속에 사용되는' 3대 조건을 만족시키는 말임(홍빈, 1997 : 199)로 정의할 수 있다.

●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통일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현용 24자모만으로 적는다.
- 제2항 : 외래어의 1음운은 원칙적으로 1기호로 적는다.
-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 제4항 :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항 :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하되, 그 범위와 용례는 따로 정한다.

● 외래어 다듬기

- 모든 외래어를 국어로 바꿀 것이 아니라 현재의 시점에서 국어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선별해야 한다. '라디오, 버스, 택시'와 같이 일반화된 외래어들까지 다듬는다면 언어 생활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 국어로 다듬을 때 언중들의 언어감각에 맞게 다듬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색하지 않은 국어를 사용하고, 일반 언중이 해당 외래어보다 다듬은 말이 쉽다고 느낄 수 있도록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것, 국어에 덜 동화된 것부터 다듬어야 한다.
- 외래어 중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되는 것이나 사용될 것부터 다듬어야 한다.
- 외래어를 국어와 1:1로만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한다. 동일한 형태의 외래어가 분야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다듬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외래어 수용에서 선조들의 노력과 태도를 참조해야 한다.

*출처 :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활동 1

◎ 활동 1의 방법

활동지에 제시된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바탕으로 잘못된 외래어 표기를 바로 잡는다.

이렇게 해 보세요.

단순히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것을 넘어, 표현의 함축성, 의미상의 유사성, 어감 등을 고려하여 우리말로 순화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 활동지 2쪽에는 외래어 표기법 중 일부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 외래어 표기법의 1항은 외래어를 우리말로만 적는다는 것입니다. 2항은 예를 들어 ‘c’라는 소리를 ‘ㅋ’으로 적기로 했으면 이후에도 ‘ㅋ’으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3항은 받침에 나는 소리를 제한한 것입니다. 자, 이런 규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지 2쪽에 제시된 질문에 답해 볼까요?
- 잘했습니다.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게 바르게 표기하지 않아서 이상한 표기가 되었죠? 만약 외래어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표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 외래어 표기법은 우리말의 특성에 맞게 외래어를 표기함으로써 우리말의 변질을 줄이고, 외래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혼란을 줄이는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여러분도 외래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기보다 외래어 표기법을 찾아보고 그에 따라 바르게 적는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참고 자료

- 임흥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 : 외래어의 개념과 표기법 원리를 기술한 논문이다.

활동 2

◎ 활동 2의 방법

활동지를 읽고 모둠별로 외래어의 우리말 다듬기의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한다.

이렇게 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토의를 하기 앞서 '누리꾼'이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는지, 이 다듬은 말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더 좋은 다듬은 말은 없는지 등의 질문을 던져 발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듬은 말을 만든 다음에는 각 모둠이 만든 말에 대해 '좋아요' 등의 팻말을 드는 활동도 할 수 있다.

-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는 글을 같이 읽고 그 의미를 써 봅시다.
- 무슨 의미인지 정말 이해하기 어렵네요. 굳이 번역하자면, “아름다운 장식을 더한 최신 유행의 소품과 기본 형태의 외투를 통해 매력을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정도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외래어를 많이 써서 의사소통을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정리해 볼까요?
- 이렇게 외래어가 남용되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외래어 남용을 줄이고 소중한 우리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더치 페이’ 대신 ‘각자내기’로 다듬었다는 내용의 글을 같이 읽고 문제를 풀어 보세요.
-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이 글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외래어 중에는 좋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들도 있어요. ②에서 이 용어를 ‘각자내기’로 바꾸었다고 하고 있네요. ③에서는 댓글이나 안전문 등도 우리말 다듬기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남용되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한 것인지 말해 볼까요?
-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일상어 중에는 그러한 태도를 바탕으로 다듬은 말이 많이 있어요.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http://www.malteo.net>)에 들어가면 그러한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 대표적인 사례를 살펴봅시다. 사례를 같이 읽어 볼까요?
- 이 사례에서는 일상에서 많이 쓰는 ‘네티즌’이라는 말이 ‘네티켓’, ‘노티즌’ 등 다른 신조어들을 만들어 내며 남용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우리말 다듬기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4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는데, (1)은 순 우리말로 된 다듬은 말들이고 (2)는 한자어를 사용한 다듬은 말, (3)은 네티즌의 뜻을 풀어서 단어를 만든 것들이네요. 이 중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말은 누리꾼이 있어요. 이 말은 ‘세계’를 가리키는 옛말인 ‘누리’와 어떤 일을 전문적,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꾼’이 결합한 말이지요. 누리꾼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 있나요? 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이지요. 그러면 왜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이 말이 선정되었는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생각해 볼까요? 7분의 시간을 줄 테니, 모둠 별로 토의를 해서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 시간 됐습니다. 모둠 별로 토의 결과를 발표해 볼까요?

- 잘했습니다. 표현의 함축성이나 의미 상의 유사성, 어감 등의 다양한 기준들이 적용된다
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신중을 기해서 선정된 어휘들이 대중의 호응
을 얻으면 일상어로 정착됩니다. 최근 1년간 뉴스 기사에 '누리꾼'과 '네티즌'을 검색하면
두 단어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누리꾼이라는 용
어가 대중의 호응을 얻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도 더 아껴
서 사용해야겠죠? 혹시 누리꾼 말고 더 좋은 말을 제시할 친구 있나요?
- 지금까지 우리말이 다듬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한번 다듬은 말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에
서 시민들이 다듬고 싶은 외래어를 공모할 때 쓰는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양
식에 따라 주변에서 남용되는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보도록 합시다.
- □□ 모듬이 발표해 볼까요? 이 모듬이 만든 다듬은 말은 어떤가요?
- 잘했습니다. 무분별한 외래어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외래어보다 쓰기 편한
우리말을 많이 만들고, 이런 우리말을 여러 방면에서 널리 쓰도록 노력해야겠네요.
여러분도 우리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갖기 바랍니다.

정리

올바른 외래어 표기 방법을 확인하고, 남용되는 외래어를 적절한 우
리말로 바꾸어 쓰는 태도를 내면화한다.

■ 활동 방법

판서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우리말글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조
한다.

-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잘못된 외래어 표기와 외래
어 남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뭐였죠?
- 네. 그러면 외래어를 바르게 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 외래어 남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요?
-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말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기를 바
랍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주제 : 우리말글 바로 쓰기

※ 공익 광고 「한글 등 올바른 언어 사용」을 시청한 후 아래 사진에 나타난 문제 상황과 그와 유사한 주변 사례를 적어 봅시다.



문제 상황	주변 사례
외래어를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게 표기했다.	캐러멜을 카라멜로 표기한다. 오렌지를 오렌지로 표기한다. 커피숍을 커피썬으로 표기한다.
무분별하게 외래어를 사용했다.	게임을 할 때 버프, 딜러 등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화장품을 소개할 때 화이트닝, 에스테틱 등 외래어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 외래어 표기법 규정을 참고하여, 아래의 사례에 제시된 질문에 근거를 들어 답해 봅시다.

제1항 : 외래어는 국어의 24자모만으로 적는다.

제2항 : 외래어의 하나의 소리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제3항 :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쓴다.

질문	답
‘file’은 ‘파일’, ‘화일’ 등 다양하게 발음되는 것 같은데, 왜 ‘파일’이라고 적는 걸까?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외래어 표기는 하나의 소리를 하나의 기호로 적습니다.) 단어의 첫소리로 나는 ‘f’는 파이어, 프랑스 등 ‘f’로 적기 때문에, ‘file’은 ‘파일’로 적어야 합니다.
‘rocket’은 발음대로 하면 ‘로켓’에 가까울 것 같은데, 왜 로켓으로 적는 걸까?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받침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을 쓰게 되어있으므로 ‘t’은 받침으로 쓸 수 없습니다. ‘슈퍼마켓’의 경우와 같이 받침 ‘t’는 ‘ㅅ’으로 적고 있으므로 ‘rocket’은 ‘로켓’으로 적어야 합니다.

※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뷰티한 장식을 더한 핫 트렌디 아이템과 잇 베이직 코트를 통해 매력을 세련되고 아트적인 느낌으로 표현했습니다.

1. 윗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장식을 더한 최신 유행의 소품과 기본 형태의 외투를 통해 매력을 세련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였다.

2. 윗글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말을 쓸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아래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국적불명 ‘더치페이’ 대신 우리말 ‘각자내기’로

최혜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더치페이’라는 용어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렸고 일부 언론에서는 ‘각자내기’를 적극적으로 쓰기도 했다. 국립국어원은 지난 2010년 7월 누리꾼과 함께 ‘더치페이’를 ‘각자내기’로 다듬어 언론에 알리고 활용하고자 한 바 있다.

① 식민지 쟁탈 시대 영국인들이 음식값을 각자 지불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키며 쓴 ‘더치페이’(혹은 더치트리트 · Dutch treat)는 민족적 비하도 담겨 있어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더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었다. 다만 당시 ‘각자내기’는 일반의 호응을 받지 못했다. 그러다가 ② 9월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각자내기’가 ‘더치페이’에 대한 대안어로 뒤늦게 생명력을 얻어 가는 중이다.

국립국어원은 이해하기 어렵고 낯선 외국어 등을 쉽고 편한 우리말로 다듬는 일을 지속해 오고 있다. 때로는 일반인의 언어 감각과 동떨어진 말을 선정해 지탄받기도 했고, 드물지만 ③ ‘댕글(리플)’이나 ‘안전문(스크린도어)’과 같이 다듬은 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도 했다. 낯설고 새로운 말인 다듬은 말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언론과 일반의 우리말에 대한 애정, 다른 이들과 좀 더 쉽게 소통하려는 배려 덕분일 것이다.

④ 다듬은 말이 입에 설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우리말에 들어온 외국어를 그대로 쓴다면 우리말의 창조력과 생명력이 위축돼 문화적 언어로서 한국어의 위상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사회적 소통 속에서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다듬은 말을 하나하나 정착시키는 것은 우리말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 될 것이다.

*출처: 서울경제 2016년 10월 28일

(1) ①-②를 중심으로 위 글에서 주장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더치페이는 특정 인종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있으므로, 각자내기라는 우리말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2) ③-④를 바탕으로 외래어를 우리말로 다듬기 위해 필요한 태도를 써 보세요.

우리말에 대한 애정, 다른 사람과 쉬운 말로 소통하려는 태도 등

※ 아래 사례를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네티즌(netizen)’을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 주세요!

네티즌(netizen)은 통신망을 뜻하는 네트워크(network)와 시민을 뜻하는 시티즌(citizen)이 합쳐진 말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말은 낯선 영어들로 만들어진 말인데다가, 이 말이 널리 퍼지면서 ‘네티켓(netiquette)’이니 ‘안티즌(antizen)’이니 ‘노티즌(老tizen)’이니 하는 말들까지 마구 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말을 오염시키는 ‘네티즌’을 어떻게 바꿀까요?

네티즌을 다듬기 위해 제안된 의견들

- (1) 누리꾼, 누리손님, 나그네
- (2) 통신꾼, 통신족, 통신사용자
- (3) 무선 단짝친구, 가상 세계 주민, 가상 정보민

1. 위의 의견들 중에서 ‘누리꾼’이 다듬은 말로 선정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3)은 단어가 너무 길어서 함축성이 부족합니다. (2)는 통신이라는 말이 요새 쓰는 단어가 아니라 너무 낡은 느낌을 줍니다. (1)에서 나그네는 이미 고장을 떠나 다른 곳을 떠도는 사람이라는 일상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손님이라는 말은 초대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 자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네티즌의 특성을 잘 표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용어 중에서 누리꾼이 가장 적절한 다듬은 말인 것 같습니다.

※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에서는 시민들이 우리말로 다듬고 싶은 외래어를 아래의 양식으로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듬별로 주변에서 남용되는 외래어를 찾아 아래 양식을 채워 보시다.

예시)

[다듬고 싶은 말]	스테인드글라스
[다듬고 싶은 말 출처]	교회
[다듬고 싶은 까닭]	스테인드글라스를 처음 접하면 무엇인지 상상하기 어렵고, 발음이 길고 어렵습니다.
[다듬은 말 후보 제안]	빛을 받아야 그 본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 창이라는 뜻의 '빛깔그림창'을 제안합니다.
[다듬고 싶은 말]	
[다듬고 싶은 말 출처]	
[다듬고 싶은 까닭]	
[다듬은 말 후보 제안]	

〈참고 문헌〉

- 능동적으로 참여해요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동영상	'왜 우리는 대학에 가는가?' 5부 말문을 터라 EBS 다큐 프라임 661회
삽화	수업 시간 우리는 직접 작성
글	나의 말하기 유형은 김복순(2008), 발표와 토의, 국학자료원.

- 공감하고 배려해요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글	말의 힘, 중요성, 신중한 말하기와 관련된 속담 정달영(2010). 한국어의 말(言語) 관련 속담에 나타난 언어 인식. 한민족문화연구, 35, pp.39-71.
삽화	내 이름을 불러줘! 직접 작성
동영상	당신의 10초는 어떤가요? 국립국어원 공모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순수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작>
동영상	대화의 첫 걸음 국립국어원 공모 <공감과 소통의 청소년 대화 순수제작물(UCC) 공모전 수상작>

- 매체로 소통해요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동영상	파괴되는 우리말 국립국어원 <201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줄거리 공모전 수상작>
동영상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글	암(癌) 보다 더 아픈 '악플' 학교폭력 키운다 머니투데이 2013. 10. 10.
사진	인터넷언어, 교정이 필요합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07년 공익광고 대상 수상작

글	심각한 사이버 따돌림
	이창호 외(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글	'악성 댓글' 예방과 구제체계 속히 마련해야
	이창호 외(2014), 청소년 사이버불링 실태 및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글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성윤숙 이준화 유의선. (2009). 청소년 정보화 현황과 대응방안 IV: 인터넷 댓글에서의 청소년 인권침해 현황과 대응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글	세대 간 불통이 심각하다.
	장경희(2011), 청소년 언어실태 언어의식 전국 조사, 국립국어원.
	허윤아(2013), 통신언어의 효과적인 지도방안 연구: 중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숙명여대석사논문.
삽화	누리소통망(서비스)에서의 괴롭힘
	직접 작성

● 우리말글의 미래 열기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동영상	국립국어원 홍보 동영상
	국립국어원 누리집
사진	사전 홍보 광고 및 국립국어원 사진
	국립국어원 누리집
동영상	새로운 어휘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동영상 도움말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누리집
글	"이젠 '이쁘다'도 예뻐해 주세요" - 국립국어원 이대성 연구관
	한수진의 SBS 전망대 2015. 12. 15.
글	명쾌하고 확실한 의사소통을 위해 힘쓰는 직업 - 국립국어원 최정도 학예연구사
	청소년 진로월간잡지 모두매거진 2015년 10월호.
사진	국립국어원 우리말 길라잡이(갈무리할 우리말)
	국립국어원 온라인 간행물 '심표 마침표'
사진	표준국어대사전 '학교' 검색 결과
	(http://stdweb2.korean.go.kr/search/View.jsp)
글	뜻풀이 수정, 표제어 추가 사례
	2016년 3,4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 주요 내용

● 우리말글 갖고 닦기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글	우리말 다듬기 결과 및 공공언어 개선 사례 및 공공언어 쓰기에 관한 안내 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글	공공언어의 종류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사진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및 다듬은 말 게시판
	(http://www.korean.go.kr/front/refine/refineList.do?mn_id=34)
동영상	공공언어 홍보 동영상
	국립국어원
사진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첫화면
	공공언어 지원 누리집
글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개선 사례 예시
	- 공고문: 20○○년도 동계 ○○문화캠프 참가자 선착순 모집공고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글	국립국어원 말다듬기위원회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사진	‘라이징 스타’를 대신할 우리말을 찾아주세요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사진	공공언어 개선 사례/‘쉬운 공공언어 쓰기’ 점검표와 ‘쉬운 공공언어 쓰기’에 좋은 습관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국어원(2014), 쉬운 공공언어 쓰기 길잡이.
글	우리말 다듬기의 과정
	고성환(2011),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 알고 쓰는 우리말글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글	관용어, 관용어구, 속담의 개념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 공저(2016), 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글	관용 표현 뜻풀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www.stdweb2.korean.go.kr)
글	세원이 이야기
	직접 작성

● 아껴 쓰는 우리말글

자료 유형	자료명 및 출처
글	학생들 발음 실태 조사 정영호(2010), 발음 및 표기 오류의 음운 교육적 접근, 우리말 글 48, 우리말글학회.
글	외래어 개념 임홍빈(1997), 외래어의 개념과 그 표기법의 형성과 원리, 『한글맞춤법 무엇이 문제인가』, 태학사.
글	어문 규범의 원리 및 사례 이희승·안병희, 새로 고친 한글 맞춤법 강의, 신구문화사, 2007.
삽화	어문 규범에 어긋난 간판 직접 작성
동영상	한글 등 올바른 언어 사용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글	외래어, 외래어 표기법, 외래어 순화 자료 송철의(1998), 외래어의 순화 방안과 수용 대책, 새국어생활 8-2, 국립국어연구원.
글	외래어의 우리말 순화 사례 국립국어원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글	국적불명 '더치페이' 대신 우리말 '각자내기'로 - 최혜원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장 서울경제, 2016.10. 28.